

**제8·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8차:2003.9.20~9.25〉

〈9차:2004.3.29~4. 3〉

통 일 부

제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일 반 기 사

| | |
|------------------|----|
| ❖ 일반기사 | 3 |
| ❖ 시 설 | 81 |

8차 이산상봉 내달 20~25일

금강산서 南北 100명씩

8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9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또 금강산 상설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 회의가 8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통일부는 북측이 14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 총재

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고 남측도 동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8차 상봉단 규모는 전례대로 남북 각각 100명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설면회소 추진 회의에 선 면회소 건설 규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산상봉 새달 20~25일 금강산서

남북 적십자사는 14일 전화접촉을 갖고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상봉단 규모는 남북한 각각 100명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03. 8. 18 (월)

8차 이산가족 상봉 내달 20~25일

21일 면회소 추진단회의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음달 20~25일 엿새 동안 금강산에서 열린다. 또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제3차 회의가 오는 21~23일 개최된다.

통일부는 14일 오후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이런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으며, 우리 쪽은 이에 동의한

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9~12일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추석(9월 11일)을 계기로 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봉 규모는 북측이 전례에 따르는 방침이어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16일 상봉 후보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재권 기자 jik@hani.co.kr

대한매일

2003. 8. 18 (월)

이산상봉 북가족 200명 명단 공개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오는 9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제8차 이산가족상봉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북측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북측 상봉 후보 명단은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한겨레

2003. 8. 18 (월)

8차상봉 북측후보 명단공개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양문옥(84·제주)씨 등 북측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명단은 대한적십자사(redcross.or.kr)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재권 기자

8차 南北 이산가족상봉
9월20~25일 금강산서

남북한 적십자사는 14일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6일 상봉 후보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北 이산가족 “내동생은 김덕중·김우중”

대우 金前회장 형일 가능성

남북한 적십자사가 다음달 20~25일 금강산에서의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 200명의 명단을 교환한 가운데 북측의 한 가족이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고 있어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17일 공개한 북

측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가운데 제주 출신인 김우중(78)씨가 남측의 아버지 김용하(103)씨와 동생들인 관중(72)·덕중(70)·우중(68)씨를 찾고 있다.

관중씨와 교육부장관과 아주대 총장을 지낸 덕중씨, 대우그룹 회장을 역임한 우중씨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실제로도 형제 사이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내가 김우중의 형”
北 70대 상봉희망

김윤중씨, 덕중씨도 찾아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김우중(金宇中·68·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형이



라고 밝힌 북한의 김윤중(78)씨가 다음달 20~25일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金전회장 형제들을 만나보겠다고 생사를 확인해왔다.

북측이 16일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요청한 명단에 따르면 김윤중씨는 ‘아버지 김용하(103)씨와 어머니 김평아(102)씨, 형 대중(82), 동생 관중(72)·덕중(70)·우중(68)·성중(65)·영숙(64)씨’와의 상봉을 희망했다. 윤중씨가 상봉을 희망한 가족 가운데 아버지와 관중·덕중·우중씨의 나이는 실제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가 밝힌 어머니는 金전회장의 어머니(전인향)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중씨는 생사 확인을 요청하면서 “나는 제주 출신으로 방북 전 서울에 거주했었다”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東亞日報

2003. 8. 18 (월)

“내동생 김우중 찾아주소”

北거주 김윤중씨 金 전회장 가족 이산상봉 신청

김우중(金宇中·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인사가 김 전 회장의 가족에게 9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적십자사가 보내온 상봉희망자 200명 및 납측 가족 명단에 따르면 고향이 제주도라고 밝힌 김윤중씨(78)가 김 전 회장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따르면 김씨는 남쪽의 아버지 김용하씨(생존했을 경우 103세)와 어머니 김평아씨(102), 형 대중(82) 남동생 관중(72) 덕중(70) 우중(68) 성중(65), 그리고 여동생 영숙씨(64)를 찾는다고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친은 대구사범 및 서울대 상대 교수에 이어 1930년대 후반 제주도지사를 지냈으며 6·25전쟁 때 납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모친 이름이 잘못됐다”는 대우그룹측 설명과 관련해 “남북간



명단교환 과정에서 나이나 이름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대우그룹 주변에선 김 전 회장이 80년대 말 이후 몇 차례 방북하면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날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 전 회장 가족의 상봉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보낸 희망자 200명의 납측 가족 가운데 생존 여부 및 상봉 희망자를 중심으로 170~180가족을 추려내더라도 북한 당국이 김씨를 최종 상봉자 100명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상봉이 성사되더라도 99년 대우그룹이 부도나면서 출국한 뒤 제3국에 장기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은 이 행사를 위해 귀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북측 이산상봉 후보자중 김우중前회장 친형 포함

오는 20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북측 후보자 중에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친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6일 전달받은 8차 북측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에는 제주도 출신의 김윤중씨(78)가 동생 우중씨 등 남한에 살고 있는 8명의 가족을 찾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씨가 만나고 싶어하는 형제 중에는 김전회장의 친형으로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덕중씨 이름도 포함돼 있다.

대우그룹측에 따르면 김전회장의 선친은 1949년 제주도지사를 지낸 뒤 이듬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씨가 상봉을 희망한 남한 가족 8명 중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김전회장의 아버지 및 형제들과 나이, 이름, 본적이 일치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3. 8. 18 (월)

南北, 이산가족 면회소 규모 협의

남북한은 21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 회의를 열어 면회소 건설 규모와 설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 북측은 2만여명 규모의 대형시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되 우선 필요시설을 정한 뒤 그 시설의 규모를 따져 전체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朝鮮日報

2003. 9. 8 (월)

金宇中 前회장 가족 북한친척 상봉 거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김우중(金宇中·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형 윤중(78)씨와 남쪽의 김 전 회장 가족 간의 반세기만의 상봉이 무산됐다.



북한의 김윤중씨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김 전 회장을 비롯해 남쪽의 가족들을 만나길 희망했으나, 김 전 회장의 가족들이 윤중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7일 전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世界日報

2003. 9. 8 (월)

남북 면회소건설회의 연기 北, 인간-명단 회신 안보내

통일부는 5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추진단 4차회의가 북측의 회신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회의 안건과 명단을 건넸는데, 아직까지 북측이 회신을 보내 오지 않아 이날 개최될 4차회의가 일단 무산된 상태”라며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3. 9. 8 (월)

8차 이산상봉 명단 교환

남북은 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8차 이산가족 상봉 양측 참가자 명단 각 100명씩을 교환했다.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정월옥(95) 할머니는 북측에 살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를, 북측 최고령자인 량문옥(84) 할아버지는 남측 자녀와 동생들을 만나게 됐다. 이번 북측 상봉단에는 권위있는 전력학자로 알려져 있는 백영철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은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ooki.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03. 9. 8 (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북측 형과의 상봉 무산

오는 20~25일 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성사가 기대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가족들 간의 만남이 남측 가족들의 참가·거부로 무산됐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7일 남북간 상봉 가족 최종명단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했으며, 이 명단에 북측의 김윤중(78)씨가 신청한 김 전 회장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쪽이 김윤중씨와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으나, 김 전 회장 등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많고 나머지 가족도 상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시평



이종원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6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9월9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이날 핵보유 선언이나 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압박 전술일 것이다. 핵보유 선언설이 주로 북한 자신이나 북한에 가까운 소식통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6자 회담 직후부터 중국이 대미 비판을 되풀이하고, 미국 국무부가 서둘러 대북 협상 의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번주 한반도는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핵문제가 위기적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사회는 여전히 감정적인 북한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일본 정부나 외교당국, 식자들 가운데는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여론이 폭주하는 가운데 매스컴도 냉정한 분석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잃고, 여론보다 한발 앞서서 북한 때리기 경정을 펼치고 있다.

"만경봉-92"호가 7개월 만에 입항한 8월25일, 니가타항은 일본의 운명을 건 중대사태라도 터진 듯한 긴박감에 휩싸였다. 경찰 150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에서 집결한 80여 우익단체의 검은색 거리선전차 100여대가 대음량의 확산기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쏟아냈고, 납치문제 단체들은 "입항 금지"를 외쳐댔다. 수백명의 보도 관계자들은 육지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해상에서 이 모습을 생중계했다. 만경봉호로 도배된 신문과 살기 등등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착잡한 심경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규모는 작지만 만경봉호가 다시 입항한 9월4일에도 비슷한 광경이 되풀이됐다.

만경봉호 소동 자체는 일본 정부가 연출한 "김빠기 작전" 측면도 있다. 반복 여론에 국내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접촉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계산이 엿보였다. 400여명을 동원한 어마어마한 검사 결과 지적된 문제는 환풍기 미비, 비상등 부족 등 사소한 5개 항목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엄중하고 강경하게 대처했다"는 정치적 실적의 과시가 중요했을 것이다.

베이징 6자 회담 마지막 날 북한은 일본 대표단에게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갈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 "납치문

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종래 주장을 수정한 중요한 양보로서, 일본한테는 큰 "선물"을 준 셈이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북-일 교섭 재개 움직임이 엿보이는 장면들이다.

문제는 이런 외교를 위해 만경봉호 입항이라는 국제적인 선박 왕래의 자유원칙, 나아가 재일 동포의 기본적 인권과 일상생활이 흥정 수단과 불모가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동원된 입항국 안전검사(PSC)는 승객과 항만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검사가 본연의 취지다. 정치적 계산에서 조이거나 풀거나 해서 안 된다.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검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만경봉호를 정치적인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총련계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활동 전반이 잠재적인 범죄행위라는 이미지를 일본 사회에 급속히 퍼뜨리고 있다.

총련계 시설에 대한 총격과 폭발물 설치의 명백한 테러 행위인데도 테러라는 인식이 일본 안에는 약하다. 그 피해는 총련계 동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 때리기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 운동, 단란도 포함한 민족단체의 활동 등 동포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전반에 대한 배외주의 감정을 부추기고 인권을 제약하는 법제화로도 연결될 우려가 크다. 일본 내의 새로운 인권문제, 민족차별의 조짐에 한국 정부와 사회도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우중 전회장측 北가족 상봉 거부

수년째 해외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나자"는 북측 형제의 상봉 요청을 "만남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

통일부는 오는 20~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지난 4일 양측이 교환한 생사주소확인서 명단에 김 전 회장 가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김 전 회장의 형제인 북측 윤중(78)씨가 신청한 이산상봉은 무산됐

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이 북측 김씨와 형제관계임을 확인해줬으나 해외에 체류 중이고 나머지 가족도 상봉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1년 5월 검찰에 의화탄출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외로 도피, 수년째 외국에서 은신생활을 해오고 있다.

북측 윤중씨는 지난달 중순 북측 적십자회를 통해 자신의 본적지를 제주도 제주군 애월읍 하귀리로 적시하고 남측의 아버지 김용하(103), 어머니 김평아(102), 형 대중(82), 동생 관중(72), 덕중(70), 우중(68), 성중(65), 영숙(여·64)씨와의 상봉을 신청했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 co. kr

김우중씨 가족 이산상봉 거부

오는 20~2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때 성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가족들간의 만남은 김 전 회장 남측 가족의 상봉거부로 무산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난 4일 남북이 100명의 상봉후보자 생사주소확인서 명단을 교환했으며, 이 명단에 북측의 김우중(78)씨가 신청한 김 전 회장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 전 회장측이 김우중씨와 김 전 회장이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으나, 김 전 회장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나머지 가족도 상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3. 9. 8 (월)

김우중씨가족, 北형제 상봉 거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측 가족들이 오는 20~25일 제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북측 가족이 낸 만남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김 전 회장 가족들은 북측의 형 윤중(78)씨의 만남 요청에 대해 김 전 회장 등 가족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며 너무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나머지 가족도 상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지난 4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주소확인 회보서에 이같은 상봉 거부 이유를 적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1년 5월 의화도피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수년째 외국도피 중이며, 교육부 장관을 지낸 형 덕중씨도 해외에 머물고 있다.

앞서 김우중씨는 지난달 중순 북측 적십자회를 통해 자신의 본적지를 제주도 제주군 애월읍 하귀리로 적시하면서 남측의 아버지 김용하(103), 어머니 김평아(102), 형 대중(82), 동생 관중(72), 덕중(70), 우중(68), 성중(65), 영숙(여·64)씨와의 상봉을 신청했다. 윤중씨는 가족과 헤어질 당시 서울여자의과대학 병원의사였으며, 아버지 김용하씨는 제주도 지사를 지낸 이듬해 터진 6·25전쟁 와중에 납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납북한 적십자사는 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금강산에서 만날 이산가족 각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3. 9. 9 (화)

8차 이산상봉 육로 방문

통일부는 8일 "오는 20일부터 25일 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남측 가족 이동로가 육로로 확정됐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육로를 통해 수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이산가족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감안, 북측에 육로 이용을 제안했는데 북측이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수용 입장을 전해왔다"며 "4시간 이상이 걸리는 해로 이동에 비해 육로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앞으로 육로 방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병기자

한국일보

2003. 9. 15 (월)

보고싶은 얼굴 — 北에 두고온 가족

한가위입니다. 연세로 보나 북한
의 기아 상태로 보나 할머니
(김관중)와 아버지(전창련) 어머
니(김선승)께서는 이미 이 지상
에 안 계시리라 믿고 이 글을 올
립니다.

세 분 혼백, 지금
고향인 함남 단천군
광천면 용잠리 하늘
위를 맴돌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
고 계신지 알 수 없군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고향 하
늘 근처에 계시리라 믿고, 북쪽을
향해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제 마음의 꽃다발을 바
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머느리
는 한가위를 앞두고 매일 차례

상에 올릴 제수를 조금씩 사들
였습니다. 물론 차례 때 오셔서
드셨겠지만, 저는 저대로 이 글
을 한가위 꽃다발 예물로 드리
고 싶습니다.

누이야, 잘 살고 있겠지?

다만, 1950년 12월 6일 점심을
먹고 넷째 숙부를 따라 국군 수
도사단 공병대 김도규 대위 부대
의 마지막 트럭을 타고 고향집을
떠날 때 겨우 네 살이었던 누이
분금이는 아직 57세 밖에 안 되
었으니 살아있으리라고 억지로
믿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 역사상 가장 위
대한 화자 중의 한 분인 다산 정
약옹 선생의 기민시(飢民詩)를
읽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아
픔을 노래한 그 시를 보니 170년
전 다산이 목도했던 비참한 모습
이 북한 동포들에게 다시 반복되
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굶주리다
가 돌아가셨을지. 모
르는 할머니와 아버
지, 어머니를 생각하
노라니 구구절절 눈
물겨웠습니다. 누이야, 살아 있다
면 묻고 싶다. 너희 가족은 잘 먹
고 있는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저승
혼백으로나마 평안하소서. 20
03년 한가위, 손자이고 아들이며
오빠 씬.

/전태수·nahdoo

東亞日報

2003. 9. 20 (토)

오늘 금강산서 8차 이산상봉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
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날 남측 이산
가족 456명은 19일 방북에 앞서 강
원 속초시 한화콘도에 집결한 뒤 방
북교육을 받았다.

이번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분희
할머니(93)는 북측에 살고 있는 큰아
들 강임석씨(71)와 상봉할 예정이다.

1진 상봉단에 이어 남측 가족 100
명과 보호자 43명이 포함된 상봉단
2진이 23일부터 25일까지 방북해 북
측의 혈육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국민일보

2003. 9. 20 (토)

상봉단 564명 육로로 금강산행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
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1진 564명이
19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한
뒤 20일 육로를 이용, 금강산으로 떠난
다. 1진 상봉단은 20일 오전 육로로 금
강산에 들어간 뒤 2박3일 동안 금강산
에서 네차례 북측 가족을 만나고 두차
례 식사를 함께 한다. 속초=공동취재단

50년만에 안겨본 어머니품

금강산 이산상봉 표정

최고령 할머니 만찬때서야 아들 겨우 알아봐
北인민예술가 리근화씨 가족들에 그림 선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인 이기상 제8차 이산가족상봉단장은 20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환영만찬행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를 강조했다.

이 단장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오직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 그 행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고령 모자 상봉으로 주목받았던 남측 김분희(93) 할머니와 북측 아들 강임석(71)씨의 상봉은 이날 첫 만남에서 김 할머니가 아들을 못알아봐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으나, 만찬 중 아들을 알아 보기 시작해 주위를 감격시키기도 했다.

또 52년만에 아들 형제를 만난 북측 박옥순(80) 할머니는 작은 아들 임승주(57)씨의 손을 잡고 “어려서 헤어질 때 젖꼭지를 안놓겠다고 그리 울더니...”라며 한동안 놓지 못했고 승주씨는 팔손 노모를 들어올리며 “나는 50년만에 어머니를 안아봤다”고 외쳐 주위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밖에 북측의 인민예술가(화가) 리근화씨는 21일 해금강호텔의 객실에서 치러진 개별상봉에서 가족들에게 한시와 풍경화, 꽃그림 등을 전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겨레

2003. 9. 22 (월)

상봉 모르고간 구순 노모 “남편 닮은 노인이 내아들...”

8차 이산가족 만남

“어머니, 이걸 드시면 10년은 더 사실 겁니다.”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1일 금강산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이뤄진 가족들간 개별상봉에서 북측의 아들 강임석(71)씨는 어머니 김분희(93)씨 손에 ‘금강’, ‘장명’ 상표의 북한산 장수 약품을 꼭 쥐여 주었다. 어머니 김씨도 “이 아이가 19살 때 집을 나갔는데”라며 연신 눈물을 흘리더니, 손목시계 두 개를 아들 강씨 손에 안겨줬다.

앞서 김씨는 20일 첫 단체상봉 때까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만찬 도중 갑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뜨거운 만남의 눈물을 흘렸다. 만찬 시작 때까지도 아들 임석씨를 ‘남편 닮은 노인’ 정도로 생각했

던 김씨는 함께 온 남측 아들 영석씨가 이 자리가 형 임석씨를 만나는 자리라고 다시 알려주자, 갑자기 임석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니가 임석이야. 보구 자파서(싫어서) 요즘 눈물이 나서, 누가 나를”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의 남측 가족들은 90살이 넘은 노모의 건강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알렸을 뿐, 임석씨와의 상봉이 이뤄진다고는 알리지 않고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했다.

김씨 모자 등 남측 가족 1진 453명은 21일 오전 개별상봉에서 서로 준비한 선물을 쥐여주며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는 데 이어, 오후엔 아름다운 금강산 삼일포의 풍광을 함께 돌아보며 도란도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국민일보

2003. 9. 22 (월)

“忌日 몰라 제사 못지냈는데...”

8차이산가족 금강산서 눈물의 상봉식

“헤어질때 그리 울더니 이제 왔니...”

남쪽형제 52년만에 북 어머니 만나

“아들아...” “어머니...” 꿈같은 짧은시간

8차 이산상봉 이틀째 표정

남북 이산가족들은 8차 이산상봉 이틀째인 21일 금강산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개별상봉 행사를 갖고 오묘한 시간을 보냈다.

처음 만났을 때 북측 아들 강임석(71)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남측 어머니 김분희(93)씨는 해금강호텔로 찾아온 강씨에게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강씨가 19세 되던 1951년 집을 나가면서였다. 김씨는 그동안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다.

상봉 첫날 김씨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단체상봉장에 들어서 강씨를 봤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남편 닮은 노인”이라고 말하던 김씨는 아들이 “어머니, 문안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해도 시큰둥했다. 김씨는 2~3시간이 흐른 뒤에야 강씨를 알아보았다. 강씨의 형 형석씨가 “어머니, 임석이에요”라고 동생을 소개하자 그제야 “네가 임석이에요. 보구자파서 눈물이 나서...”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해금강호텔에서 두 사람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김씨가 아들에게 손목시계

두 개를 건네자 강씨는 “이걸 먹으면 10년은 더 살 거예요”라며 북한산 장수약품 ‘장명’과 ‘금장’을 어머니에게 줬다.

52년만에 남쪽의 아들 형제를 만난 북측 어머니 박옥순(80)씨 사연도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박씨는 6·25 당시 남편이 7살이던 큰아들 임석주(62)씨와 2살이던 승주(57)씨를 데리고 월남하면서 가족과 헤어졌다. 두 형제는 그 뒤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박씨도 세상을 떠난 줄 알고 반세기 동안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 박씨는 승주씨 손을 잡고 “헤어질 때 젖꼭지를 안놓겠다고 그리 울더니...”라고 말했다.

이산상봉 5일을 앞두고 사망한 북측의 김옥순(71·여)씨를 만나러 간 남측 가족들은 김씨가 북한에서 결혼해 낳은 아들 박광빈씨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다. 김씨의 동생 화자(60·여)씨는 “아이고, 우리 언니”라며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에 앞서 남측 이산가족들은 하루전인 20일 남북 동해선 연결 육로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거쳐 금강산에 도착, 반세기만에 북한의 혈육들을 만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20, 21일 이틀간 진행된 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반세기만의 정을 나눴다.

최고령자인 김분희 할머니(93)는 북측 아들 강임석씨(71)를 처음 본 순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들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20일 전체상봉에 이어 만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그저 ‘남편 닮은 노인’ 정도로 생각했던 김 할머니는 함께 방북한 남측 아들 영석씨가 형이라고 다시 알려주자 “내가 임석이에요. 보고자파서(싶어서)... 요즘 눈물이 나서...”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 인민예술가인 이근화씨는 21일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진행된 개별상봉에서 가족들에게 한시와 풍경화 꽃그림 등을 건넸다.

북측 이산가족 이소영씨(64·여)는 함께 북으로 올라온 어머니가 1992년 100세 생신 때 녹음한 육성을 남측 가족에게 들려주었다.

어인갑씨(76)는 북측 이종사촌 선희갑씨(72)를 만나 남쪽에서 돌아가신 선씨의 어머니 기일을 알려주었다. 선씨는 “기일을 몰라 그동안 제사도 못 지냈는데, 이제는 어머니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30여년간 철도 관련 일을 해오다가 5월 청진역장으로 퇴임한 이종만씨는 남측 동생 종선씨를 만나 “가족들과 헤어진 이후 20여년간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잊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1진 상봉단 456명은 22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귀환하며, 이어 2진 상봉단 143명이 방북해 가족들과 상봉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50년을 기다렸는데...”

김옥순씨 5일전 사망 南 가족들 오열

• 8차 이산가족 상봉 오늘 작별 육로귀환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20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시작됐다. 첫날 단체상봉에 이어 21일 남측 상봉단 453명은 북측 가족 100명과 개별상봉 및 삼일포 관광을 하면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 남측 상봉단은 22일 오전 작별상봉을 한 뒤 육로를 통해 귀환한다.

○...최고령 모자 상봉으로 주목됐던 남측 김분희 할머니(93)와 북측 아들 감익석씨(71)의 상봉은 20일 첫 만남에서 김할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 주위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으나 만찬 도중 아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상봉의 감격을 누렸다.

19세 때인 1951년 전쟁통에 가족들과 헤어진 아들 강씨는 첫날 단체상봉에서 “어머님, 문안드립니다”라고 인사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던 김할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52년만에 아들 형제를 만난 북측 박옥순 할머니(80)는 셋째 아들 임승주씨(57)를 만나자 “어려서 헤어질 때 젓가락지를 안놓겠다고 그리 울더니...”라며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승주씨는 팔순 노모를 번쩍 들어올리며 “나는 50년만에 어머니를 안아봤다”고 외쳐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상봉 닳새를 앞두고 사망한 북측의 김옥순씨(71·여) 대신 아들 박광빈씨를 만난 남측 가족들은 박씨의 손을 잡은 채 “닳새를 기다리지 못했느냐”며 대성통곡했다. 남측 가족들은 광빈씨가 옥순씨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을 두드리며 오열했다. 김씨의 동생 화자씨(60)는 “아이고, 우리 언니”라며 주저앉았고, 동길씨(63)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차세형기자

이산상봉 2진 오늘 금강산행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 223명이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거쳐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측 상봉단은 23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20여대에 분승, 오전 11시30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12시30분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한다. /속초=공동취재단

한겨레

2003. 9. 24 (수)



“할머니
잡쉴보세요”

23일 저녁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제8차 남북이산가족 두번째 상봉 환영 만찬에서 지난 1987년 남북된 동진호 기관장 김상섭(53)씨의 어머니인 오말신(75·오른쪽)씨가 북의 손녀가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있다. 금강산/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오열... 웃음

23일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지난 87년 납북됐던 동진호 기관장 김상섭씨가 어머니 오말신씨를 만나 부둥켜안고 있다(왼쪽 사진). 남측 남성기씨가 국군포로였던 아버지 남소열씨와 아버지의 북측 딸 정애씨를 만나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동진호 기관장 16년만에 모친 상봉 국군포로 2명도 가족만나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서 1987년 1월 납북된 동진호 기관장 김상섭(53)씨와 어머니 오말신(75)씨가 16년 만에 23일 금강산에서 만났다.

6·25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 처리됐던 남소열(76)씨와 한영옥(80)씨도 이날 반세기 만에 각각 남쪽의 가족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

다. 남씨와 한씨는 인민군에 포로로 붙잡혀 남쪽과 연락이 두절됐었다.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한의 이산가족 143명은 북의 가족·친척 230여명과 이날 금강산의 북측 지역인 김정숙 휴양소에서 단체 상봉과 공동만찬을 가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오머니”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3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가운데 북측 어머니 강지효(가운데) 씨와 남측 아들 김순석(왼쪽)씨가 부둥켜안은 채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南어머니, 남북아들 16년만에 만나

이산가족 2진 상봉 南143명 北가족 만나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한 남북 이산가족들이 23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2시간 가량 단체상봉을 갖고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남측 가족 143명이 이날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북측 가족들이 반갑게 맞았으며 곧바로 여기저기서 손을 부여잡거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말신(74) 할머니는 같이 간 큰아들 김상규(56)씨와 함께 1987년 1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동료 선원들과 함께 납북된 둘째아들 상섭(53)씨와 16년만에 만나 오열했다. 강원도 강릉병무지청장인 남성기(58)씨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줄 알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모셨던 아버지 남소열(76)씨를 만났다.

남소열씨는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1953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북한에서 국군포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25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간 한영옥(80)씨도 남의 여동생 일덕(68)씨를 만났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정월옥(95) 할머니는 전쟁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가 북으로 끌려간 아들이 얼마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북측의 두 손자와 며느리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 김정숙휴양소에서 북측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금강산의 첫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50년 제사지낸 아버지 만나 통곡

남북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

제8차 이산가족상봉 나흘째인 23일 오후 남쪽 가족 143명은 금강산에서 전쟁포로가 된 아버지와 남북 어부인 아들을 만나는 등 북쪽의 가족들과 감격과 회한의 첫 상봉을 했다.

남성기(58)씨는 6·25전쟁 때 전사한 줄 알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모셨던 북쪽 아버지 소열(76)씨를 만나 통곡했다. 소열씨는 "나도 너를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며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강원도 삼척에서 살던 소열씨는 1950년 전쟁이 터지자 그해 12월 국군에 들어간 뒤 소식이 끊겼다. 휴전 2개월 뒤 가족들은 소열씨가 53년 7월21일 김화전투에서 전사했다는 통

보를 받았고,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신 채 반세기 넘게 제사를 지냈다.

남쪽 오말신(74) 할머니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둘째아들 상섭(53)씨를 만나 흐느꼈다. 상섭씨는 동진27호 기관장으로 일하며 1987년 1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동료 선원들과 함께 납북됐다. 상섭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걱정말라요. 저는 여기서 서른일곱에 결혼하고 아들딸 놓고 잘 살고 있어요"라며 16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한을 달랐다. 반세기 만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저녁 7시 김정숙휴양소에서 북쪽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금강산의 첫밤을 보냈다.

금강산/공통취재단,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어머니 생일상 차린 남북아들 1987년 납북된 동진호 기관장 김상섭(뒷줄 왼쪽 첫번째)씨가 24일 낮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제8차 남북이산가족 오찬장에서 어머니 오말신(앞줄 가운데)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北가족 정치선전 줄어

8차 이산상봉 결산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8차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25일 일정을 모두 끝낸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동해선 육로를 통한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관계당국이 행사 진행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북측 가족들도 과거와 달리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이번 8차 이산가족상봉단의 육로 이용은 지난 2월 22일 제6차 상봉에 이어 두번째다. 4

시간이 걸리는 해로에 비해 육로는 1시간 정도여서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이산가족들에게는 상봉의 심적·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재개된 이후 상봉행사는 육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산상봉에 대한 달라진 태도도 엿보였다. 북측은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 요구한 동반가족의 확대를 수용했다. 동반가족은 지난 7차 때 10명에 이어 이번 8차에서 4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열기로 북측과 협의 중인 9차 상봉 때도 동반

가족을 늘려 상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북측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의 소지품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던 과거와 달리 북측은 이번엔 고배울 카메라의 반입까지 허용하고 상봉과 제반 행사 지원에 관한 남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봉기간 북측 이산가족의 정치선전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한적 관계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은덕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산가족들이 취재진이 물려들지 않으면 차분함을 유지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이산상봉의 정례화와 상설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이벤트성의 일회적 상봉이 아닌 정례화된 제도적 만남을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가 시급하지만 현재 규모를 둘러싼 남북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14일 평양에서 열릴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면)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기자

동반가족 확대등 협조적 ‘육로상봉 정례화’ 길마련

東亞日報

2003. 9. 26 (금)



“언제 또 만날까”

금강산=공동취재단

25일 금강산에서 한 할머니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떠나는 남측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2003. 9. 26 (금)



기약하며... 25일 5박6일간의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차에 오른 남측 참가자들이 북측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원유현기자

“물고기가 남북 오가듯이 통일도 물흐르듯 돼야지”

임진강 어느 늙은 어부의 사무친 망향가

한국전쟁 정전 50돌

“경기도 연천에 민통선 검문소가 있는 ‘리바교’라고 있어.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 다리 위에 서면 오가는 물고기들이 새카맣게 보였어. (임진강) 물고기들은 남북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못하지.”

올해로 30여년째 임진강 명물인 황복과 참게를 잡고 있는 늙은 어부 김병오(67)씨. 27일 정전협정 50돌을 맞은 그는 전쟁과 분단에 얽힌 회한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전쟁과 분단 탓에 두번이나 집을 잃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38선 이남 지역이지만, 정전 직후인 1954년 이른바 ‘민통선’

에 포함되면서 졸지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두번째의 실항은 2000년 찾아왔다. 경기도 파주시의 집터가 미군의 ‘스토리 사격장’(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의 미군 사격장) 터로 징발당한 것이다.

농사꾼이던 김씨가 어부가 된 것도 분단의 ‘후유증’이었다. 지난 73년까지 농사를 짓던 경기도 파주군 장자리의 논을 국군의 탱크 사격장 터로 징발당했다. 번번이 땅을 빼앗기는 데 질린 그는 결국 쟁기를 버리고 그물을 들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우리 국군이 필요해서 한 일인데 어쩔 수 있겠느냐고 체념하고 살았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통선때문에 고향 잃고 미 사격장 들어와 또 등져 40년 농사 버리고 ‘바다’로

“통일돼 고향땅 밟으면 맺힌 한 모두 풀릴거야”

김씨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분단의 아픔을 수없이 현장에서 지켜왔다. 2001년 장마철에 탈북을 시도하다 의사한 것으로 보이는 10대 초반의 아이 주검을 임진강에서 발견한 것을 비롯해, 그간 대여섯번에 걸쳐 북한군 또는 주민의 주검을 발견해 신고했다. 68년에 남파간첩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곳도 바로 김씨가 고기 잡는 조업구간 바로 옆이었다. 김씨도 당시 예비군으로 동원돼 금촌역 앞에서 보초를 섰다.

“통일? 돼야지. 꼭 돼야지. 통일이



돼서 고향 땅 밟아보고, 징발된 땅도 되찾는다면 그동안의 한이 한꺼번에 다 풀릴 거야.”

임진강 어부 가운데는 김씨처럼 잃어버린 땅 때문에 임진강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파주시 어촌계에 등록된 어부 20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실항민이다. 한때는 절반을 넘었지만, 다들 나이 들어 세상을 뜨거나 어업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도 30대 젊은이부터 60~70대 할아버지까지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라면 모두가 분단에 얽힌

사연 한두 가지와 통일에 대한 꿈을 가슴에 지니고 산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가운데 분단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변해도 물 흐르는 건 안 변해. 요즘 같아서는 ‘북핵’이니 ‘전쟁’이니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물 흐르듯 언젠가는 통일도 될거야.”

이날도 김씨는 임진강변에서 남북을 오가는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물을 던졌다.

파주/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8~9월 대형 남북교류 봇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북한 핵위기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대형 민간 교류 행사들이 오는 8,9월 봇물 터지듯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광복 58주년인 오는 8월 15일에 즈음해 8.15 남북 민족공동 행사가 평양이나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을 비롯,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선수.응원단 참가(8월17~31일) ▲류경정주영체육관 준공식 남측 선수.참관단 1천명 방북(8월 중) ▲남한 문화예술인들의 방북 공연(9월) ▲추석에 즈음한 제주도 '통일민족 평화체육축전'(9월) ▲500명 규모 이산가족 상봉 행사(9월)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는 북한 핵 상황이 악화되면서 남북 당국간 교류 협력과 관련, 우리 정부가 3대 경협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핵 문제로 정부 당국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민간교류 이벤트들이 한반도의 긴장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8.15 에 즈음해 남측 통일운동 단체 인사들이 대거 방북, 민족공동행사를 갖고 남북의 화해.협력과 민족 동질성 회복,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 열기를 이어받아 북한은 8월 17~18일 U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선수.임원단과 응원단 529명을 남북 직항로를 통해 대구로 보낸다.

특히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때 선보였던 '미녀 응원단' 310명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회 마지막(8월말)까지 전국민을 들뜨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대아산은 8월중에 평양 소재 류경정주영체육관(가칭) 준공식에 농구선수단과 일반인을 포함한 참관단 1천여명을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보낼 계획인 것도 주목거리다.

정부 당국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전 유엔군 사령부가 참관단의 DMZ 통과를 허가할 경우, 지난 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에 이어 1천명을 실은 버스들이 DMZ를 통과하는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도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중 사상 최초로 남한 문화예술인들이 예술단체 차원에서 방북 공연을 갖게 된다.

그동안 가수 윤도현씨나 개별 방송사가 방북, 공연한 적은 있으나 남측 예술단체 차원에서 방북 공연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9월11일)을 전후해 남북 각각 400~5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가 지난 3월 방북, 북측과 합의한 '통일민족 평화체육축전'도 추석을 전후해 제주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북측 선수단 및 참관단의 대규모 제주도 방문도 예상되고 있다.

kjih@yna.co.kr

〈남북장관급회담〉추석 상봉단, 면회소 규모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제11차 장관급회담에 참가중인 남북 양측 대표단이 첫날 전체회의를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에 대략적인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측은 이날 기본 발언을 통해 "남북은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민속명절인 올해 한가위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도록 협조하자"고 밝혔다.

남측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후 대규모 상봉과 면회소 설치, 6.25전쟁중 실종자 및 전후 남북자의 생사주소확인 등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석 상봉단과 면회소의 규모. 남측은 제8차 상봉부터는 규모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측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제7차 상봉 기간 북측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나 올 추석에 남과 북 각각 400~500명씩 인원을 크게 늘리기로 원칙적 합의를 본만큼 그대로 시행하자고 북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면회소의 경우 북측은 2만평을, 남측은 3천평 정도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 대략 5천평 정도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석 상봉과 면회소 설치에 합의하게 되면 남북 양측은 적십자 실무접촉이나 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 등 실무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쟁 실종자 및 전후 남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실종자 및 남북자 문제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종자의 경우 지난해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들의 생사 주소 확인에 북측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 만큼 북측의 성의있는 이행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yh@yna.co.kr

(끝)

추석때 8차 이산가족상봉 사실상 합의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남북은 오는 9월11일 추석을 계기로 제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1일 오후 신언상 남측 회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추석을 계기로 남북은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는 데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단 규모와 포함대상, 그리고 장소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kjihh@yna.co.kr

(끝)

'한가위' 이산가족상봉 사실상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남북은 제11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1일 두 차례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오는 9월 11일 추석을 계기로 제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담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 문제와 관련, 남측은 남북한과 미.중.일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반면, 북한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신언상 남측 회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갖고 "제8차 이산가족 상봉과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장관급회담 일정에 대해서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이산상봉 시기는 추석을 계기로 하고, 장소는 북측은 금강산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확대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과 관련, 그는 "협의해 봐야 하지만, 북도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내(남측) 여론을 잘 알고 있어 참고할 것"이라며 "핵 관련 조항은 (공동보도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담 대변인은 "수석대표와 실무대표 단독접촉에서 확대 다자회담이 왜 시급히 개최되어야 하는 가를 북측에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문안이 되기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평화수호 의지' 포함 요구와 관련, 그는 "우리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과 정신은 같지만,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며 "그런 정신은 공동보도문에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 제의 전에 국방부와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협의됐다. 회담 대책을 수립하는데는 유관부처가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lye@yna.co.kr

kjihh@yna.co.kr

(끝)

-남북장관급회담-'북핵. 평화의지' 공동보도문에 담길듯

한가위 이산상봉, 제12차 장관급회담 일정 사실상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제11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1일 남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실무대표 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수호 의지를 어떤 형태로든 담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했으나 공동보도문에 담길 수위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오는 9월11일 추석을 계기로 한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남측은 이날 잇단 실무대표 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에서 핵 문제와 관련, 남북한과 미.중.일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반면, 북측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신언상 남측 회담대변인이 전했다.

신 회담 대변인은 "수석대표와 실무대표 단독접촉에서 확대 다자회담이 왜 시급히 개최되어야 하는가를 북측에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문안이 되기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평화수호 의지' 포함 요구와 관련, 그는 "우리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과 정신은 같지만,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며 "그런 정신은 공동보도문에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 남측은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고위 군사당국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반면, 북측은 '주적론'을 거론하며 현 여건상 국방장관회담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북 체제의 성격상 국방장관회담을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남북은 이날 저녁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 주최의 환송만찬을 가진 뒤 공동보도문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31편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lye@yna.co.kr

kjihh@yna.co.kr

(끝)

〈남북장관급회담〉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장용훈.이상현 기자 = 남북은 12일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제11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서명,교환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울

(끝)

〈남북장관급회담〉 성과와 전망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9~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측으로 부터 핵문제와 관련, 확대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동보도문을 도출해냄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또 목전으로 다가온 민간부분의 8.15 공동행사, 추석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비롯, 향후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을 검토기로 한 것 등 핵위기속 남북간 교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남.북.미.중.일 등이 참여하는 확대다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맞서 회담기간 내내 진통을 겪었다.

◆ 핵문제 = 확대다자회담 수용 가능성 여부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분야다.

이와관련, 남측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안전문제도 보장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남북경협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대다자회담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북측은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로 미국이 대북 압살정책을 바꾸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내내 북측에 확대다자회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회담 막판에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을 공동보도문에 넣는데 동의했다.

신언상 회담 대변인은 "이는 3박4일간의 진통끝에 나온 표현으로, 확대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확인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10일 전체회의에 앞선 환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이번 회담이 조-미간 토론하는 회담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두고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해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핵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는 것조차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회담내내 핵문제와 관련된 남측의 주장을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도 주목을 끌었다.

◆ 이산가족 상봉 및 8.15 광복절 행사 =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실시기로 정식 합의했다.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100명 이산 가족의 상봉을 실현시켰으며 이번 추석 상봉은 8번째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향후 적십자실무접촉을 통해 건설규모 등 절차적 문제 협의를 거쳐 현실화될 수 있게 됐다.

상봉규모가 우리측이 요구하는 400-500명선에 이르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과거보다는 훨씬 커질것으로 보인다.

면회소의 경우 북측의 2만평, 남측의 3천평 규모 제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대략 5천평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북측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자.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진행하자는 남측의 제의를 거절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8.15 광복절 행사의 경우, 개최지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양측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합의함으로써 평양이든 금강산이든 곧 결정될 전망이다.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 남측은 당초 확대추세에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장관급 회담 산하의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남북은 교류협력사업 이외에 북한의 비방방송 중지 요구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조건으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북측은 당초 KBS 사회교육방송 등 방송권역이 북한에 뺏치는 국내의 모든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에서 올해 8월15일부터 남북 동시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방송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분과회의가 구성될 경우 예컨대 국제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어 핵위기속에서도 남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무산 = 남측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작년 11월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제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방부마저도 "여건조성이 안돼있다"는 이유로 시큰둥한 상황에서 북측이 이를 수용하리라는 것은 기대난이었다.

북측은 남측이 북 지도층과 군을 '주적'으로 규정,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은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북국방장관 회담은 장관급회담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kjih@yna.co.kr

(끝)

“이산가족 자유왕래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설치촉구위원회'(위원장 강정숙 서구여성개발센터 소장)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정략적,체제적 문제로 연계시키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동서독과 중국,대만처럼 자유왕래가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더이상 이벤트성의 일회성 만남과 과도한 상봉비용을 지양하고 더많은 이산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정례화,제도화하는 한편 이미 상봉했던 이산가족의 경우 재회는 어렵더라도 서신과 소포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sy@yna.co.kr

(끝)

“외아들 보고 죽을끼라고 하더니...”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외아들은 보고 죽을끼라고 하더니...외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5개월만에 저렇게 세상 버리니 너무 불쌍합니다"

지난 2월 6차 남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을 통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남북 어부 정도평(58)씨 어머니 옥말군(77)씨가 외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병세가 악화돼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경남 거제시 옥포 대우병원에서 끝내 뇌경색으로 숨졌다.

20일 유가족과 이웃에 따르면 평소 심장병을 앓아온 옥씨는 지난 72년 12월 오대양62호를 타고 납북된 외아들 정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 숨졌다.

옥씨의 또 다른 혈육인 딸도 지난 2001년 겨울 10년 투병 끝에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옥씨 사망 소식에 남북어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는 또 다시 한숨에 젖어들고 있다.

오대양62호와 함께 납북된 오대양61호 선장 박두남(69)씨의 부인으로 이 마을 남북어부 가족의 반장격인 옥철순(71)씨는 21일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건 기자에게 세상 원망을 늘어냈다.

"(옥말군씨는) 20살에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는데 아들은 (북으로) 끌려가고 딸은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외아들은 보고 죽을끼라고 했는데...너무 불쌍합니다"

정씨의 유일한 혈육인 옥말군씨 손녀 정선희(30)씨는 이날 상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원래 심장병을 앓으셨는데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은 뒤로는 말씀도 잘 하지 않으셨다"며 "3일장을 치른 뒤 고모님이 묻힌 부근 공원묘지에 묻어 드렸다"고 전했다.

옥말군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들은 남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외아들 사망 소식 듣고 쓰러져서 식사도 안 하고 누워 계시기에 내가 북한 애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살아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북한이 '사망'했다고만 하면 정부는 유해를 돌려보내라는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있음)

chungw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7. 23 (수)

한적, 25일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선정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본사 강당에서 인선위원회를 열고 제8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날 인선위에서는 60세 이상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고령자와 직계가족 상봉 우선 원칙에 따라 후보자 300명을 정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23일 "이병웅 총재 특보 주재로 인선위를 열어 300명의 상봉 후보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실사를 거쳐 300명중 200명을 선정, 북측에 재북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은 내달초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교환해 시간을 갖고 가족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명단교환 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봉규모 확대와 남측 상봉단 규모를 북측보다 많게 하는 비대칭 상봉 등에 대해서도 계속 북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jyh@yna.co.kr

(끝)

ICRC,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고통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ICRC는 한국전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교전 당사자들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전으로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조속한 재결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ICRC는 지난 수십년간 남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거듭 촉구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의해 왔다.

songbs@yna.co.kr

(끝)

한적, 제8차 이산상봉 후보자 선정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제8차 이산상봉 후보자 300명을 선정했다.

60세 이상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중 고령자와 직계가족 상봉 우선 원칙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 300명중 심사과정을 거쳐 200명을 선발해 북측에 재북 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00명은 남자 211명, 여자 89명이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150명, 70대 123명, 60대 27명이다.

또 부부와 부모, 자식 상봉 희망자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빠와 동생을 만나려는 이산가족이 87명 선정됐다.

이병웅 한적 총재특보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8차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생사주소를 확인하는데 1개월 이상 걸리고 휴가 기간이 끼어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보자 선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차 상봉기간 상봉인원 확대를 북측에 제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북측의 답이 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 후보자를 정해놓고 북측이 상봉규모 확대 방안을 수용하면 이미 북측 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한 이산가족들을 상봉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yh@yna.co.kr

(끝)

“이산가족교류공사 설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금강산사랑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심의섭)는 28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찾기운동 촉진을 위해 '이산가족 교류공사'(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외 민간단체, 종교기관, 언론기관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chsy@yna.co.kr

(끝)

내달 7일 8차상봉 생사확인의로 명단교환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내달 7일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을 북측과 교환할 계획이다.

한적 관계자는 28일 "8.15민족공동행사,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등 남북관계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7일에는 명단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며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상봉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선정된 후보자 300명중 상봉이 가능한 200명을 가려내기 위해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생존여부, 건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적은 추석을 지낸 직후인 9월 20일께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는 방안을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yh@yna.co.kr

(끝)

내달 20-25일 8차 이산상봉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회의 21-23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8차 이산가족상봉행사가 9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또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회의가 8월21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통일부는 북측이 14일 오후 장재언 조선 적십자사회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에게 이런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으며, 우리 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9-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1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봉 규모는 북측이 전례에 따르자는 입장이어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를위해 16일 상봉 후보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며 상봉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 회의에서는 면회소 건설 규모, 설계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면회소 건설과 관련, 남측은 필요시설을 고려해 완공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면회소와 함께 회담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건물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kjihh@yna.co.kr

(끝)

〈8차 이산상봉 복측 후보 명단〉-1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7일 오는 9월20-25일 금강산에서 있을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복측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적은 전날인 1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상봉 후보자 각각 200명의 명단이 포함된 생사확인 의뢰서를 북측과 서로 교환했다.

북측 상봉 후보 명단은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명단은 「번호. 북측 가족 이름(성별,연령,출생지) = 남측 가족 이름(성별,연령,관계)」의 순.

1. 강석월(여,69,충남) = 강신혁(남,86,부), 고소조(여,88,모), 강석봉(남,72,오빠), 강신호(남,84,숙부), 강신도(남, 80, 숙부), 강신행(남,82,숙부), 강석임(여,75,4촌), 강석애(여,73,4촌), 강보해(여,72,4촌)

2. 강성호(남,72,경북) = 강성익(남,76,형), 강명자(신자)(여,59,조카), 강명화(0,54,조카), 강명옥(0,51,조카), 강명진(0,47,조카), 강진태(0,55,조카)

3. 강성후(남,83,경북) = 김흥련(여,80,처), 강명락(남,57,아들), 강영자(여,61,딸), 이희조(여,57,며느리), 권옥화(여,61,며느리), 강남례(0,75,동생)

4. 강성암(남,72,전남) = 김탄탄(여,81,누이), 강성도(성조)(남,74,4촌)

5. 강재성(남,75,경북) = 강돌선(남,100,부), 한룡희(여,101,모), 전숙녀(여,73,처), 강효구(남,53,아들), 강맹성(남,77,형), 강춘홍(여,71,동생), 강춘임(여,68,동생), 강성기(남,66,동생), 강성래(남,63,동생)

6. 강임석(남,71,경북) = 강무진(남,94,부), 김분희(여,92,모), 강영석(남,69,동생), 강해석(남,66,동생), 강안석(남,63,동생), 강건석(남,60,동생)

7. 강원준(남,68,일본) = 강춘식(남,93,부), 백남선(여,94,모), 강원문(남,73,형), 강영자(여,66,동생), 강춘남(남,64,동생), 강건치(남,62,동생), 강추자(여,60,동생), 강재호(남,85,숙부)

8. 구선희(남,70,서울) = 구광서(남,98,부), 리광자(여,98,모), 구중희(남,72,형), 구정희(여,79,누이), 구준희(여,77,누이), 구승희(남,67,동생), 구철희(남,63,동생)

9. 구성문(남,73,경남) = 구억술(남,110,부), 김봉악(봉익)(여,107,모), 구성운(남,80,형), 구성순(여,77,누이), 구소순(여,71,동생), 구명실(남,95,사촌), 구찬이(남,80,사촌)

10. 국봉동(승지)(남,71,경남) = 국신강(길자)(여,61,동생), 국현룡(남,57,이복동생), 국기남(여,73,고모), 국소순(여,55,이복동생), 국대지(남,34,조카)

11. 김경춘(남,74,경기) = 김석이(남,103,부), 안순남(여,90,모), 리효기(여,75,처), 김00(여,53,딸), 김태성(여,85,누이), 김태임(여,68,동생), 김경희(여,62,동생), 김인순(임순)(여,57,동생)

12. 김경희(남,68,경기) = 김인회(남,71,형), 김상회(남,66,동생)

13. 김공순(여,70,전북) = 김용철(남,108,부), 심성녀(여,108,모), 김시중(남,85,오빠), 김권중(남,81,오빠), 김서운(여,56,동생), 송은순(여,82,형님), 양명순(여,78,형님), 김복덕(여,88,고모), 림관규(남,88,고모부)

14. 김교학(남,72,경북) = 김순애(순채)(여,66,동생), 김교성(남,65,동생)

15. 김기선(남,70,서울) = 김남이(남,110,부), 최씨(여,105,모), 김기운(남,65,동생), 김옥순(여,72,누이), 김옥희(여,61,동생)

16. 김기태(남,70,충북) = 김학도(남,97,부), 정순옥(여,92,모), 김기성(남,73,형), 김기재(남,67,동생), 김기백(남,66,동생), 김계화(여,60,동생), 정순택(남,89,외삼촌)

17. 김기영(남,68,충북) = 김춘배(남,100,부), 정씨(여,100,모), 김기순(여,78,누이), 김기중(남,75,형), 김기철(남,72,형)

18. 김귀복(남,72,경기) = 김귀녀(여,68,동생), 김귀선(여,66,동생), 김귀돌(남,63,동생)

19. 김관수(남,71,경기) = 김영조(남,95,부), 림규순(여,85,모), 김경수(남,68,동생), 김정수(여,70,동생), 림규영(남,82,외삼촌), 림규천(남,77,외삼촌), 림경화(여,80,이모)

20. 김덕례(여,70,충남) = 김왕갑(남,100,부), 리광희(여,93,모), 김덕배(남,76,오빠), 김덕희(여,73,언니), 김덕순(여,66,동생), 김덕선(여,61,동생), 김선녀(여,84,고모)

(계속)

〈8차 이산가족 복측 후보 명단〉-2

21. 김룡식(남,70,경기) = 김천만(남, 113, 부), 최정자(간난)(여, 113, 모), 김정식(남,83,형), 김학순(남,67,조카), 김학녀(여,64,조카), 김규분(여,75,누이), 김인식(남,81,형), 김우천(남,57,조카), 김소자(여,54,조카)

22. 김룡찬(남,71,경북) = 김병경(남,91,부), 리선이(여,92,모), 김문찬(남,66,동생), 김수찬(남,64,동생), 김수원(남,95숙부), 최씨(여,93,숙모), 김달석(남,74,사촌), 김건수(남,72,사촌), 리봉운(남,80,외삼촌)

23. 김명수(남,69,경기) = 김유복(남, 96, 부), 최영자(여, 92, 모), 김명숙(여, 65, 동생), 김명천(남, 63, 동생), 김룡식(남, 60, 동생), 김개천(남,98,백부), 리씨(여, 96, 백모), 김승완(남, 72, 사촌)

24. 김명순(여,69,경기) = 김정석(남, 99, 부), 황점옥(여, 93,모), 김장덕(남, 73, 오빠), 김일순(여, 76, 언니), 김룡순(여, 68, 동생), 김덕순(여, 65, 동생), 김희순(여, 61, 동생), 김봉순(여, 58, 동생), 김말순(여, 55, 동생)

25. 김명주(남,69,경남) = 김광주(남, 65, 동생), 김두임(여, 84, 누이), 최수선(여, 65, 제수), 권말남(여, 66, 제수), 김기년(여, 54, 제수)

26. 김상렬 남자 73 경기 "김상완(남, 68, 동생), 김상윤(남, 66, 동생), 김명례(O, 86, 누이), 김승엽(O, 44, 조카)

27. 김석기(남,72,경남) = 김종수(남, 101, 부), 안복수(여, 93, 모), 김광숙(여, 71, 동생), 김부명(여, 69, 동생), 김석조(남, 67, 동생), 김방자(여, 64, 동생), 김정혜(여, 65, 동생), 김부자(여, 62, 동생)

28. 김석환(남,73,경기) = 김중환(남, 71, 동생), 김필환(남, 68, 동생), 김복진(여, 75, 누이)

29. 김숙이(여,76,서울) = 김진오(남, 110, 부), 서성녀(여, 102, 모), 김숙자(여, 80, 언니), 김숙희(여, 64, 동생), 황희자(여, 77, 형님), 김창근(남, 56, 조카), 박철약(여, 77, 시누이), 박철연(여, 74, 시누이), 박점순(여, 68, 시누이)

30. 김시통(남,69,경북) = 김창로(남, 110, 부), 리원귀(여, 110, 모), 김시방(남, 75, 형님), 김효진(여, 80, 누이), 김효정(여, 76, 누이), 김향숙(여, 66, 조카), 김향옥(여, 63, 조카)

31. 김장한(남,75,충남) = 김영진(남, 106, 부), 리범덕(여, 107, 모), 김두한(남, 88, 형), 김필한(남, 68, 동생), 김룡한(남, 65, 동생), 김주동(남, 67, 조카)

32. 김정수(남,74,강원) = 김상수(남, 63, 동생), 김운수(여, 72, 동생), 김춘수(여, 69, 동생), 김길수(여, 65, 동생)

33. 김주훈(남,70,강원) = 김벽수(남, 92, 부), 유계옥(여, 93, 모), 김주옥(여, 72, 누이), 김주채(남, 68, 동생), 김주일(남, 66, 동생)

34. 김준석(남,70,경북) = 김미해(여, 62, 동생), 김정석(남, 59, 동생), 김현호(0, 35, 조카), 김분연(여, 60, 제수)

35. 김중배(남,70,경기) = 김나석(남, 95, 부), 김점민(여, 90, 모), 김용자(여, 73, 누이), 김정자(여, 55, 누이), 김인배(남, 68, 동생), 김영배(남, 65, 동생), 김정배(남, 62, 동생), 김만원(남, 92, 숙부), 김윤배(남, 53, 사촌)

36. 김지수(여,74,충남) = 김대수(남, 70, 동생), 김윤수(남, 63, 동생), 김완수(여, 69, 동생), 김화수(여, 62, 동생), 김복수(여, 57, 동생)

37 김지연(순택)(남,71,충북) = 김철성(남, 95, 부), 김부희(여, 99, 모), 김순남(여, 74, 누이), 김지한(순철)(남, 68, 동생), 김순자(여, 65, 동생), 김지평(순원)(남, 62, 동생),김기선(남, 78, 사촌), 김수형(남, 81, 사촌)

38.김재권(남,71,인천) = 김중범(남,나이모름,부), 안애자(여,나이모름,모), 김상권(남, 77, 형), 김영권(남, 68, 동생), 김치권(남, 65, 동생), 김음전(여, 74, 누이)

39. 김재복(남,73,충남) = 김지현(남, 110, 부), 조정숙(여, 107, 모), 김재환(남, 79, 형), 김순희(여, 76, 누이), 김재석(남, 69, 동생), 김재선(남, 66, 동생)

40. 김재옥(남,71,충남) = 김필수(남, 104, 부), 배옥금(여, 78, 후어머니), 김태용(남, 80, 형), 김진옥(남, 73, 형), 김삼용(남, 87, 숙부), 배재환(남, 83, 계외삼촌)

(계속)

북 이산상봉 희망자에 김우중씨 형 포함된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오는 9월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제8차 이산가족상봉때 남측의 가족을 만나기를 희망한 북측의 신청자 김윤중(78)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개한 북측의 8차 이산가족 후보 200명중에 포함된 김씨가 찾는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과 나이, 본적지 등이 김 전회장 주변의 인적사항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본적지를 제주도 제주군 애월읍 하귀리로 적시하면서 아버지 김용하(103), 어머니 김평아(102), 형 대중(82), 동생 관중(72), 덕중(70), 우중(68), 성중(65), 영숙(여, 64)씨와 만나기를 희망했다.

김씨는 가족과 헤어질 당시 서울여자의과대학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회장의 아버지 김용하씨는 1949년 제 4대 제주도지사를 지냈고 그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6.25 전쟁 와중에 납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결과, 김윤중씨가 보내온 남측의 가족 이름과 나이, 본적지가 김우중 전 회장의 관련 사항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등 가족이 확인을 해오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1년 5월 검찰에 외화도피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수년째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을 지낸 덕중씨 등 나머지 가족들은 즉각 연락이 닿지 않았다.

kjih@yna.co.kr

(끝)

남북, 상봉후보자 생사주소확인서 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예정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양측의 후보자 각 200명씩의 생사주소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

북측은 남측이 의뢰한 200명중 135명에 대한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으며 이 중 105명만이 생존해 있어 상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측은 이번에 200명의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 922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며 북측은 추가로 확인된 93명을 포함, 모두 1천15명의 재북가족을 확인했으며 이중 생존자가 301명, 사망 329명, 확인불능 385명으로 집계됐다.

또 남측은 북측이 의뢰한 후보자 200명중 190명에 대해 남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으며 이중 182명의 경우 남측 가족이 살고 있어 상봉이 가능하게 됐다.

북측에서는 200명의 이산가족이 남측 가족 1천271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며 남측은 추가 확인된 358명 등 모두 1천629명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했다. 이들중 생존자는 1천33명, 사망 436명, 확인불능 160명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우리측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은 북측에서 보내온 회보서를 토대로 직계가족과 고령자를 우선하는 인선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며 "오는 7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오는 20일부터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을, 23일부터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을 2박3일씩 금강산에서 만날 예정이다.

jyh@yna.co.kr

(끝)

<8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 명단>-1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대한적십자사는 7일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9.20~25)에 참가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름 (성별.나이)/출신지/상봉대상 순.

- ▲정기본(남.70)/일본/동생1, 형수1, 조카3, 기타1
- ▲백영철(남.80)/전남/형제4, 조카1
- ▲안종을(남.73)/경기/동생1, 조카2, 기타2
- ▲류영길(남.70)/경기/형1, 계모1, 이복동생1, 조카1, 기타3
- ▲김옥순(여.71)/전남/동생4, 조카1, 사촌1, 올케1
- ▲리옥인(여.72)/서울/언니2, 조카3
- ▲림윤호(남.71)/경기/동생3, 조카2, 기타1
- ▲박상만(다음)(남.72)/서울/누나2, 조카4
- ▲김경희(남.68)/경기/형제2, 형수1, 조카1
- ▲김우현(남.74)/경북/동생6, 숙모1
- ▲리소영(남.64)/서울/형제6, 조카1
- ▲리원구(남.73)/경북/형제3, 숙부1, 조카1
- ▲장기현(남.74)/충북/아들1, 형제4
- ▲조철형(남.71)/충남/동생4, 제수1
- ▲현충근(남.81)/충북/배우자1, 자녀2, 며느리1, 동생1, 조카2
- ▲리재오(남.70)/경남/형제4, 조카1, 제수1, 사촌1
- ▲윤영희(여.70)/충남/형제6
- ▲김지수(여.74)/충남/동생5
- ▲전순돌(남.75)/충북/동생1, 제수1, 형수1, 조카2, 기타2
- ▲박한규(남.71)/경북/형제3
- ▲은창원(남.68)/전북/형제6

- ▲오대호(남.68)/서울/형제2, 조카6
- ▲강성후(남.83)/경북/자녀2, 머느리2, 동생1
- ▲신태우(남.76)/전남/형제2, 조카4, 형수1, 제수1
- ▲선희창(남.72)/서울/사촌3
- ▲최순보(남.75)/충북/동생4, 조카1
- ▲남기설(남.80)/경기/동생5
- ▲유재득(남.78)/전북/배우자1, 딸1, 동생1, 조카3, 기타1
- ▲하영옥(여.74)/경남/형제7, 올케1
- ▲오숙균(여.69)/충북/동생4, 조카1
- ▲김영윤(남.76)/충남/손자1, 조카3, 기타2
- ▲김룡찬(남.71)/경북/동생2, 제수1, 조카1, 기타1
- ▲신동주(남.70)/전남/형제6, 숙부1, 조카1
- ▲오진렬(남.71)/전북/형제4, 조카1
- ▲전종도(남.69)/경북/형제5
- ▲리종만(남.76)/경기/배우자1, 동생4, 매제1
- ▲장익성(남.70)/경북/모1, 동생5
- ▲신제균(남.69)/경북/형제2, 조카2, 매부1, 제수1
- ▲권영례(남.72)/경북/이복형제4, 조카1, 형수1, 기타1
- ▲김교학(남.72)/경북/배우자1, 아들1, 동생2
- ▲우수복(남.70)/경북/누나1, 이복동생1, 조카3, 기타1
- ▲리근화(남.74)/경기/형제6, 제수1, 조카1
- ▲남상택(남.70)/경기/동생1
- ▲권순하(남.70)/경북/형제3
- ▲리춘식(남.71)/전남/동생1, 조카1, 사촌2, 기타2
- ▲김정수(남.74)/강원/동생5
- ▲리원우(남.71)/서울/형제3, 형수1, 제수1
- ▲유덕준(남.71)/경기/형제4, 형수1, 제수1
- ▲김춘동(남.72)/강원/형제4, 조카1
- ▲류석기(남.72)/충남/동생2, 사촌2, 기타2

〈8차 이산가족 상봉 복측 명단〉-2(끝)

- ▲강재성(남.75)/경북/배우자1, 동생3, 형수1
- ▲양문옥(남.84)/제주/자녀2, 동생2, 손자1
- ▲김귀복(남.72)/경기/동생3, 매형2
- ▲리상진(남.71)/서울/형제4, 조카2, 기타2
- ▲리희대(남.77)/충남/자녀3, 형제2, 사촌1
- ▲박정규(여.69)/충북/동생3, 제부1, 사촌1
- ▲원수상(여.74)/경기/형제2, 사촌1, 기타2
- ▲박종호(남.68)/강원/동생1, 조카2, 제수1, 고모1
- ▲리원식(남.69)/경북/형제4, 매제3
- ▲김용준(남.79)/경기/동생1, 조카1, 사촌1, 기타2
- ▲리은례(여.68)/강원/동생2, 조카1, 외삼촌1, 사촌1
- ▲리영순(여.70)/서울/동생4, 기타2
- ▲구성문(남.73)/경남/형제2, 형수1, 기타1
- ▲김석환(남.73)/경기/형제3, 제수2
- ▲정경화(남.70)/강원/동생3, 조카2
- ▲구선희(남.70)/서울/형제3
- ▲황종화(남.77)/충북/동생5
- ▲김명주(남.69)/경남/형제2, 제수3
- ▲국복동(승지)(남.71)/경남/동생1, 이복동생2, 제수1, 조카2, 고모1
- ▲강임석(남.71)/경북/모1, 동생4, 제수1
- ▲최병희(남.74)/충북/배우자1, 동생5, 조카1
- ▲정연길(원도)(남.71)/경북/누나1, 조카4, 사촌1, 기타1
- ▲리성련(여.69)/경남/동생3, 조카1, 처남1
- ▲박옥순(여.80)/전남/아들2, 며느리2, 손자1, 동생2
- ▲강성호(남.72)/경북/형1, 형수1, 조카5
- ▲리동걸(남.77)/경북/동생2, 사촌3, 매부1

- ▲전통권(남.71)/전남/동생4, 육촌1
- ▲김상렬(남.73)/경기/형제3, 조카1
- ▲김준석(남.70)/경북/형제2, 조카2, 제수1
- ▲김주훈(남.70)/강원/형제3, 제수2
- ▲권오상(남.72)/충남/형제7
- ▲리태원(남.72)/전남/동생4, 조카1
- ▲김운용(남.74)/강원/동생4, 제수1
- ▲장주학(남.72)/경기/동생1, 형수1, 조카5
- ▲한홍석(남.70)/경기/형제3, 숙부1, 조카1, 기타1
- ▲오희용(남.72)/충북/동생5, 사촌4
- ▲윤승민(여.78)/서울/동생1
- ▲강석월(여.69)/충남/오빠1, 사촌1
- ▲리상배(남.72)/충남/조카3, 기타2
- ▲차정인(정자)(여.71)/서울/오빠2, 올케1, 조카2
- ▲황의렬(남.69)/충북/동생1, 사촌6, 기타3
- ▲림만홍(남.70)/서울/형1, 조카6
- ▲강성암(남.72)/전남/누나1, 사촌2, 조카2, 기타1
- ▲조임환(남.69)/강원/형제5
- ▲정석준(남.69)/경북/동생1, 조카1, 제수1, 기타1
- ▲정기봉(남.72)/경북/동생1, 조카2, 사촌1
- ▲김관수(남.71)/경기/동생1
- ▲문로석(남.80)/제주/조카1
- ▲조규범(남.74)/서울/형제2, 조카1, 기타4
- ▲김학원(남.71)/경기/동생1, 사촌2, 조카2, 제수1

chsy@yna.co.kr

(끝)

남북, 8차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 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한 적십자사는 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0일 부터 금강산에서 만날 이산가족 각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방문단중 최고령자인 정월옥(95) 할머니는 북측에 살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를 만나게 됐으며 북측 최고령자인 량문옥(84) 할아버지는 남쪽에 생존해 있는 자녀와 동생들과 상봉을 하게된다.

특히 북측 상봉 후보자중 김윤중(78)씨는 남측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측이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으나 김 전 회장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나머지 가족도 상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상봉이 무산됐다.

반면 지난 2000년 9월 2차 상봉과정에서 남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북측 상봉단의 백영철씨는 공과계통의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활동중인 '권위 있는 전력학자'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남측 상봉단 100명은 연령별로 ▲90대 5명 ▲80대 38명 ▲70대 39명 ▲60대 16명 ▲50대 2명으로 북측의 부모나 부부, 자식을 만나는 경우가 26명이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가족이 44명, 나머지는 3촌 이상의 친척과 상봉하게 된다.

북측 상봉단 100명은 ▲80대 7명 ▲70대 76명 ▲60대 17명으로 남쪽의 부모나 부부, 자식을 만나는 사람이 13명, 형제자매를 만나는 경우가 83명, 3촌 이상 친척을 상봉하는 가족이 4명이다.

jyh@yna.co.kr

(끝)

김우중 전회장측 북 가족 상봉 거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오는 20~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때 성사 여부가 기대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가족들간의 만남은 김회장 등 남측 가족의 상봉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지난 4일 남북이 상봉후보자 생사주소확인서 명단을 교환했으며 이 명단에 북측의 김윤중(78)씨가 신청한 김 전 회장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김 전 회장 측이 김윤중씨와 김 전회장이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으나 김 전 회장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나머지 가족도 상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5월 검찰에 외화도피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수년째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을 지낸 덕중씨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중씨는 지난달 중순 북측 적십자회를 통해 자신의 본적지를 제주도 제주군 애월읍 하귀리로 적시하면서 남측의 아버지 김용하(103), 어머니 김평아(102), 형 대중(82), 동생 관중(72), 덕중(70), 우중(68), 성중(65), 영숙(여,64)씨와의 상봉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가족과 헤어질 당시 서울여자의과대학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 김용하씨는 제주도 지사를 지낸 이듬해 터진 6.25 전쟁 와중에 납북된 것으로 전해졌다.

kjihh@yna.co.kr

(끝)

<8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명단>-1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대한적십자사는 7일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9. 20~25)에 참가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름 (성별.나이)/출신지/상봉대상 순.

- ▲강선옥(여.61)/평북/백모1, 사촌1
- ▲강성민(남.80)/함북/처, 딸2, 동생3
- ▲강은준(남.76)/평남/조카3
- ▲고영찬(남.79)/황해/동생2
- ▲곽재영(남.65)/황해/동생2
- ▲권병제(남.69)/황해/형수1, 조카1
- ▲김관규(남.91)/황해/딸3, 아들1
- ▲김광연(남.78)/함남/동생1, 조카3
- ▲김금순(여.79)/경기/딸1, 동생1
- ▲김기학(여.78)/평북/조카2
- ▲김명순(여.73)/강원/조카1
- ▲김복례(여.86)/충북/이복아들1,여느리1
- ▲김봉인(남.89)/함남/아들2
- ▲김선녀(여.88)/함남/사촌1, 조카2
- ▲김성균(남.81)/개성/처제1
- ▲김성남(여.76)/황해/동생1,조카1
- ▲김성태(남.74)/경기/동생2
- ▲김순희(남.94)/평북/아들3
- ▲김영복(남.74)/함북/조카3
- ▲김영춘(여.69)/함남/조카2
- ▲김용환(남.71)/경기/동생4
- ▲김원실(남.84)/평남/동생3

-
- ▲김원준(남.73)/평남/동생2, 사촌1
 - ▲김종훈(남.85)/황해/딸1, 아들2
 - ▲김준태(남.87)/평북/누이1, 조카1
 - ▲김창모(남.90)/평남/딸1, 아들1
 - ▲김철(남.81)/함남/동생3
 - ▲김춘자(여.73)/평북/언니1, 동생2
 - ▲김택순(남.72)/황해/누이1, 동생2
 - ▲김홍식(남.63)/평남/누이1, 동생1
 - ▲남성기(남.58)/강원/부,백부,백모,이복동생
 - ▲남영자(여.78)/경북/동서1,조카1
 - ▲문일승(남.77)/함남/동생4
 - ▲문진환(남.71)/황해/동생3
 - ▲문충십(남.76)/서울/재수1, 조카1
 - ▲박구섭(남.77)/황해/동생1
 - ▲박부서(남.66)/황해/동생2
 - ▲박영희(남.80)/평남/딸1, 아들1, 조카1
 - ▲박주영(남.70)/평남/동생2, 조카1
 - ▲방도원(남.89)/평남/처, 아들2
 - ▲백금주(여.71)/경기/동생2
 - ▲백기남(남.74)/평남/동생1, 조카1
 - ▲백낙보(여.74)/평남/조카2
 - ▲백석숙(여.77)/평남/동생2
 - ▲선우현(남.67)/황해/동생1
 - ▲설정웅(남.76)/함남/형수1, 조카3
 - ▲송수창(남.82)/황해/동생1, 아들1
 - ▲안용덕(남.81)/함남/동생3, 조카1
 - ▲안천복(여.50)/충북/이복동생3, 작은어머니1
 - ▲오말신(여.74)/전남/아들1,며느리1,손주2"
-

〈8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명단〉-2

- ▲오춘량(여.62)/강원/이복동생4
- ▲원동현(남.83)/황해/딸3, 아들1
- ▲윤기병(남.80)/평북/동생1, 조카1
- ▲이근실(남.85)/황해/아들1
- ▲이덕수(남.68)/황해/동생3
- ▲이무철(남.76)/충남/조카3
- ▲이봉남(여.73)/평북/동생3
- ▲이상심(여.76)/전남/조카2
- ▲이선정(남.79)/황해/사촌1
- ▲이순기(여.80)/경기/조카2
- ▲이순옥(여.81)/함북/조카3, 올케1
- ▲이아지(여.91)/경기/손자1, 며느리1
- ▲이양선(남.81)/황해/아들1, 조카2
- ▲이종윤(남.74)/황해/동생3
- ▲이창린(남.81)/평남/동생2
- ▲이학철(남.79)/평남/누이1, 조카1
- ▲이현호(남.84)/함북/아들1, 며느리1
- ▲이호성(남.64)/황해/동생4
- ▲임영자(여.80)/경북/이복아들1
- ▲임진옥(여.83)/평북/딸1, 사위1
- ▲장관섭(남.84)/평북/아들1, 딸2
- ▲장흥식(남.81)/황해/동생3
- ▲전병옥(남.83)/함남/조카1
- ▲정대홍(남.72)/충남/누이1
- ▲정성옥(남.72)/함북/동생2, 조카1
- ▲정운관(남.85)/경기/딸2, 아들1, 조카2

-
- ▲정월옥(여.95)/충북/손주2, 며느리1
 - ▲정택규(남.76)/함남/동생1, 조카2
 - ▲정화현(남.83)/황해/아들3
 - ▲조치순(남.79)/함남/동생2, 조카1, 매부1
 - ▲조타관(여.78)/전북/조카1
 - ▲조한남(여.80)/함남/동생2, 조카1
 - ▲조화자(여.69)/황해/동생1, 조카1
 - ▲진교형(남.80)/경기/조카3
 - ▲천병숙(여.68)/서울/조카2
 - ▲최대규(남.83)/함북/조카3
 - ▲최돈철(남.76)/강원/조카1, 사촌2
 - ▲최상현(남.69)/경기/형1, 조카2
 - ▲최영조(남.80)/황해/아들1, 며느리1
 - ▲최해학(남.83)/강원/이복동생1
 - ▲최형극(남.81)/함남/조카1
 - ▲하동희(남.80)/평남/동생2
 - ▲한동원(남.65)/평남/누이1, 동생1
 - ▲한일덕(여.68)/경남/오빠1, 조카3
 - ▲한춘단(여.87)/함남/손주6, 며느리1
 - ▲허용근(남.73)/평남/동생1, 아들1
 - ▲홍성관(남.75)/황해/동생3
 - ▲홍승달(남.69)/충남/이복동생1, 사촌3
 - ▲홍재만(남.83)/평남/딸1, 조카1
 - ▲황봉현(남.82)/평남/동생1, 조카1

jyh@yna.co.kr

(끝)

<남측 가족 만나는 北 백영철 교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남북한이 7일 교환한 제8차 이산가족 북측 명단에 포함된 전남 강진 출신의 백영철(80)씨는 북한의 공과계통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 지도교수로 북한 전력공학부문의 최고 권위자이다.

백 교수는 과학 및 교육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수학직(1967), 박사학위(1979)에 이어 91년 각 분야에서 최고권위자 한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원사학위를 받았다.

또 지난 98년 특출한 공로가 있는 과학자 및 문예인에게 수여되는 '김일성상'(1998년)을 받았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백 교수의 80돌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남한에는 누이 나열(86)씨와 동생들인 영제(75), 영방(68), 영주(64)씨 등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3월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아온 남측 가족과 서신을 교환했다.

백 교수는 1923년 1월 2일 강진군 병영면 백양리에서 출생, 서울에서 중학교를 거쳐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1기)한 후 서울 중앙전기시험소 기술자로 일하면서 한양대 공대와 서울사대 강사로 전기 이론을 강의했었다.

한국전쟁 초기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잠시 근무하다가 인민군을 따라 홀로 월북한 백 교수는 노동당의 지시로 서울에 남았던 처자를 뒤늦게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월북 이후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이 대학 산하 전기공학연구소장, 박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의 전력공업 발전과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1956년부터 약 3년 동안 외국에서 연구활동도 했다.

백 교수는 지금까지 '전력계통공학', '동기기계의 기술적 운영' 등 60여권의 과학 기술도서와 교재를 집필했고 15명의 박사와 30여명의 학사(석사)를 육성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속에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건설되던 중소형 발전소의 자동화장치를 전부 완성했다.

북한 언론은 백 교수에 대해 "중소형발전소용 자동화 장치를 개발해 발전소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으며 원격기술과 조종용 컴퓨터를 결합한 지역 전력계통의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중요 공장·기업소의 정전 사고를 방지하게 하는 등 전력계통 운영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chsy@yna.co.kr

(끝)

제8차 이산상봉 '육로' 확정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동로가 육로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남측 이산가족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북측에 육로이용을 제안했으며 북측이 지난 7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8일 밝혔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해 동해선 육로가 이용되는 것은 지난 2월22일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강원도 속초에서 해로를 통한 금강산행은 4시간이 걸리는 반면 고성에서 육로를 통한 금강산행은 1시간 정도여서 이동시간이 절약돼 피로감이 적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육로관광이 재개돼 향후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육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금강산에서의 응급환자 수송도 육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ih@yna.co.kr

(끝)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2명 교체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15일 오는 20일 부터 시작될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던 백석숙(77.여), 천병숙(68.여)씨 등 2명이 건강상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후보자인 이갑복(90.여), 김순석(74.남)씨로 교체했다.

이갑복 할머니는 딸 현광희(62)씨, 김순석 할아버지는 어머니 강기효(89)씨 등 북측 가족들을 만나 이산의 아픔을 달랠 수 있게 됐다.

한적 관계자는 "이 할머니 등은 서신교환 등을 통해 북측 가족과 연락을 해왔으며 북측도 이들의 재북 가족을 확인해줘 상봉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이번 8차 상봉 일정을 역시 육로를 통해 상봉이 이뤄진 지난 3월 제6차 상봉 때에 준해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의 방문단(100명) 및 상봉단(467명)은 육로를 통해 금강산에 들어가 방문 첫날 단체상봉과 환영만찬 등 4시간, 둘째날 개별상봉과 식사, 참관 상봉에 이어 셋째날 작별상봉 1시간 등 모두 11시간 동안 해후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금강산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도로 70m정도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북측과 금강산 현지의 현대측에서 북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진 만큼 상봉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jyh@yna.co.kr

(끝)

북, 80세 이상 이산가족 43명에 가족동반 허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측은 오는 20~25일 8차 이산가족 상봉때 남측 이산가족 100명 중 80세 이상 노인 43명에 대해 가족 동반을 허용함에 따라 방문단 규모가 143명으로 늘게 됐다.

지난 7차 상봉(6.27~7.2) 때 북측은 이산가족 10명에 한해 가족 동반을 허용했었다.

한적 관계자는 16일 "그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고령 이산가족 방문단의 가족 동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북측이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가족 동반을 수락함에 따라 방문단이 100명에서 143명으로 대폭 늘게 됐다"고 말했다.

jyh@yna.co.kr

(끝)

이산상봉단 1진 575명 20일 육로로 금강산행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북측 가족 100명이 찾는 남측 이산가족 464명과 지원요원 81명, 취재진을 포함한 1진 상봉단(단장 이기상 한적 인천지사 회장) 575명은 19일 낮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한 뒤 방북교육을 받고 20일 오전 육로로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1진 상봉단은 20~22일 금강산 지역에서 단체 및 개별 상봉을 포함해 모두 4차례 북측 가족을 만나고 2차례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어 남측 가족 100명과 보호자 43명을 포함, 모두 224명으로 이뤄진 2진 상봉단(단장 양후열 한적 제주지사 회장)이 23~25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들을 만난다.

lye@yna.co.kr

(끝)

외환銀 '방북 임시 특별환전소' 설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외환은행은 제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방문단 일행의 여행경비 환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임시 특별환전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방문단 일행은 별도로 은행을 방문해 환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부가 지정한 집결장소인 한화리조트 내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외환은행은 밝혔다.

외환은행은 또 환전금액에 관계없이 30%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하고, 쓰기 편하도록 환전시 소액권과 신권 위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rhd@yonhapnews.co.kr

(끝)

설봉호,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2항차 휴향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속초~고성향을 오가는 금강산 쾌속선 설봉호가 19일과 21일 휴향한다.

19일 현대아산 속초사무소에 따르면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설봉호를 이산가족 방문단의 숙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일 속초항 출발과 21일 출발을 휴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라면 19일 오전 북한 고성향을 떠나 속초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설봉호는 북한 고성향을 출항하지 않았으며 설봉호의 정상운항은 오는 2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아산 속초사무소는 "이산가족 상봉에 따라 2항차 휴향하게 됐으나 이 기간 해로를 이용한 관광객 예약은 받지 않아 관광일정 등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1진 456명은 20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버스편으로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

momo@yna.co.kr

(끝)

〈상봉 앞둔 이산가족 속초에 집결〉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상봉단은 19일 오후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시 설악한화리조트에 속속 도착해 등록을 마친 뒤 꿈에도 그리던 상봉을 앞두고 휴식에 들어갔다.

이산가족 상봉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화리조트 5동 1층 로비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도착사실을 알리고 상봉행사와 관련해 세세한 안내를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영동 복지구협의회 소속 회원 150여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속초고속버스터미널과 양양국제공항에서 승용차 편으로 이산가족 상봉단을 집결지인 한화리조트로 이동시켰다.

한적은 특히 접수대에서 이산가족 상봉단이 북한 가족에게 주려고 준비해온 선물을 접수받아 인식표를 붙이고, 선물의 포장을 풀어 가방의 부피를 줄여주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단은 대개 한 가족당 대형 여행가방 2개 분량의 선물을 준비했으며 선물은 의류, 화장품, 시계, 과자, 우황청심환, 치약, 칫솔, 간단한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이 주조를 이뤘다.

일부 이산가족은 북측 가족에게 주기위해 1층 로비의 임시환전소에서 달러를 사기도 했다.

한적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 7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혈압·당뇨 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이산상봉 행사에는 적십자병원 소속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동행하고 있다.

의사 오재국씨는 "고혈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뇨나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상황 악화가 걱정된다"며 "북측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소화제나 진통제류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을 마친 이산가족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한화리조트 5동 7층의 크리스탈룸과 에메랄드룸에서 상봉행사 절차와 방북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방북설명회에 참석했다.

한적 관계자는 "이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들뜬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이산가족 사이에 정보 공유가 많이 돼 짐도 간소해지고 분위기도 많이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상봉 1진 내일 육로로 금강산행(종합)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대한적십자사 이기상 인천지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564명이 반세기만에 북측의 이산가족 100명을 만나기 위해 20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번 상봉행사는 2000년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해 상봉을 가진 이후 여덟번째이고 현 정부 들어 두번째로 남측 상봉단은 이산가족 453명과 지원요원 81명, 취재진 30명 등으로 구성됐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19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 집결해 방북 교육을 받았다.

상봉단 중 최고령인 김분희 할머니(93)는 6·25 전쟁중에 잃어버린 북쪽의 큰 아들 강임석(71)씨를 52년만에 처음 만나지만 건강이 나빠 가족들이 상봉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번 금강산행을 관광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한다.

동행하는 아들 영석(67)씨는 19일 "어머니가 옛날에는 형님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기억 속에 잊어버린 듯 말씀이 전혀 없으셨다"며 김 할머니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였다.

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 박옥순(80)씨와 만날 남한의 두 아들 임석주(62), 승주(57)씨는 "막상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처음해야 할지를 몰라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김보희(67)씨는 전쟁 때 북으로 간 누나 옥순(71)씨를 반세기 만에 만나는 기쁨에 들떴으나 출발 직전 옥순씨가 지난 15일 사망해 북의 조카 박광빈(47)씨가 대신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5일만 참았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말문을 닫았다.

류석원(66)씨 가족은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끌려간 형 석기(72)씨를 만나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류씨 가족은 전쟁 때 국군이었던 석기씨 때문에 인민군으로부터 고초를 당해야 했고, 전쟁 후에는 석기씨가 북에 있다는 이유로 연좌제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북측 이산가족 중 선의창(72)씨와 문로석(80)씨는 남쪽에 직계 가족이 한 명도 없어 사실상 대가 끊긴 상태여서 선씨의 이종사촌형 어인갑(76)씨와 문씨의 외조카 김용하(66)씨 각각 혼자서 금강산길에 오르게 됐다.

남측 상봉단은 20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20여대에 분승 오전 11시30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12시30분쯤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동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전사처리된 형을 만나는 동생들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6.25때 전사한 줄 알았던 형님이 살아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번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쪽의 형 리종만(76)씨를 만나러가는 종선(69)씨의 감회는 남다르다.

종만씨는 지난 1945년 8월 일본군의 신분으로 해방을 맞이했고 이같은 경력으로 인해 1948년 국군의 전신인 경비대에 쉽게 입대했다.

종선씨는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때라서 형이 밤이나 굶지 않으려고 군대에 갔다"고 회상했다.

당시 경비대 1연대는 일명 '호(虎)부대'라 불릴 만큼 용맹스런 부대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 부대는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수도방위 최일선에 투입됐다.

종만씨는 부대원의 일원으로 동두천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기록돼 있으며 당시 1등중사나 2등상사 정도의 사병계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선씨는 "군인인 형 친구가 와서 '호부대' 부대원 대부분이 전멸해 (형이)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죽은 줄로만 알고 "매년 음력 9월9일로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리종만씨를 전사자로 처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문의 6.25 전사자 명단에 들어있다.

또 현재까지 재가하지 않고 살고있는 종만씨의 부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지만 몸이 아파서 이번 상봉행사에 남편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

죽은 줄만 알았던 종만씨가 남측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이 온 것은 지난 7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때였다.

종선씨는 "형이 군인신분이었던 만큼 국군포로로 잡혀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쪽으로 가서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을 만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손들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강산에는 종선씨 외에도 종부(77.남), 종분(75.여), 종복씨(69.남)등 나머지 동생들도 함께 간다.

형제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제들의 사진과 내복, 시계 등 선물을 준비했다.

(끝)

〈금강산상봉〉 전사처리된 北아버지 만날 자식들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자식들 놔두고 군에 간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50여년만에 살아있다고 이제 연락이 오다니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의 아버지 양문옥(84)씨를 50여년만에 만나는 아들 중신(63)씨는 한껏 이 산가족으로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안돼 저희 형제들은 모두 고아원으로 가야했고 부모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 고생을 하시면서 거의 평생을 혼자 사셨구요" 사연을 얘기하는 동안 중신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냈다.

제8차 이산가족 행사를 위해 방북길에 오르는 문옥씨의 가족들은 여동생 화자(68), 남동생 언옥(65), 아들 중신(63), 며느리 박병진(62), 딸 원숙(56세)씨 등 모두 5명.

양문옥씨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한 살 아래인 부인 홍인생씨와 종만, 중신, 진 등 세 아들, 딸 원숙 등과 제주도 도두동에 살았다.

양씨의 고향인 제주도는 당시 4.3사태를 겪은 뒤 공산당의 활동 무대였고 어업 조합장과 청년활동을 하며 반공활동을 하던 문옥씨는 "차라리 군에 가는게 낫다"며 30살의 나이에 뒤늦게 한국군에 입대했다.

군에 간 이듬해 설 직후 가족들은 실종 통보와 전사 통보를 잇따라 받아, 문옥씨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반세기 넘게 살아왔다.

부인 홍씨는 전쟁 직후 서울로 상경해 홀로 살다 지난 95년 남편을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홍씨는 음력 8월25일 숨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9월20일(음력 8월24일)이 바로 홍씨의 제삿날이다.

중신씨 등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중신씨는 제주도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했다.

중신씨는 닥치는대로 막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두 딸을 둔 중신씨는 아버지 양씨가 한국군 전사자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명단이 올라 있어 삶이 고달프게 여겨질 때 마다 두 딸과 함께 동작동을 찾고는 했다. 또 아버지의 생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까지 지내왔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동명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했다는 중신씨는 "너무 고생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생각까지 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씨의 동생 언옥(65)씨는 형이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난 85년쯤 고향인 도두동에 형의 비석까지 세웠다.

"형이 군대갈 당시 너무 어려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언옥씨는 "형이 살아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전사처리된 北아버지 만날 자식들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자식들 놔두고 군에 간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50여년만에 살아있다고 이제 연락이 오다니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의 아버지 양문옥(84)씨를 50여년만에 만나는 아들 중신(63)씨는 한땀한 이 산가족으로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안돼 저희 형제들은 모두 고아원으로 가야했고 부모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 고생을 하시면서 거의 평생을 혼자 사셨구요" 사연을 얘기하는 동안 중신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냈다.

제8차 이산가족 행사를 위해 방북길에 오르는 문옥씨의 가족들은 여동생 화자(68), 남동생 언옥(65), 아들 중신(63), 며느리 박병진(62), 딸 원숙(56세)씨 등 모두 5명.

양문옥씨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한 살 아래인 부인 홍인생씨와 종만, 중신, 진 등 세 아들, 딸 원숙 등과 제주도 도두동에 살았다.

양씨의 고향인 제주도는 당시 4.3사태를 겪은 뒤 공산당의 활동 무대였고 어업 조합장과 청년활동을 하며 반공활동을 하던 문옥씨는 "차라리 군에 가는게 낫다"며 30살의 나이에 뒤늦게 한국군에 입대했다.

군에 간 이듬해 설 직후 가족들은 실종 통보와 전사 통보를 잇따라 받아, 문옥씨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반세기 넘게 살아왔다.

부인 홍씨는 전쟁 직후 서울로 상경해 홀로 살다 지난 95년 남편을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홍씨는 음력 8월25일 숨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9월20일(음력 8월24일)이 바로 홍씨의 제삿날이다.

중신씨 등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중신씨는 제주도에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했다.

중신씨는 닥치는대로 막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왔다. 두 딸을 둔 중신씨는 아버지 양씨가 한국군 전사자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명단이 올라 있어 삶이 고달프게 여겨질 때 마다 두 딸과 함께 동작동을 찾고는 했다. 또 아버지의 생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까지 지내왔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동명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했다는 중신씨는 "너무 고생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생각까지 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씨의 동생 언옥(65)씨는 형이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난 85년쯤 고향인 도두동에 형의 비석까지 세웠다.

"형이 군대갈 당시 너무 어려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언옥씨는 "형이 살아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끝)

이산상봉단 564명 금강산으로 떠나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기상(李起祥) 한적 인천지사 회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564명이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20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떠났다.

남측 상봉단은 이산가족 453명과 지원요원 81명, 취재진 30명 등이다.

이날 아침 강원도 속초시 설악한화리조트에서 반세기를 넘긴 가족 상봉의 설렘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남측 이산가족들은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금강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상봉단 중 최고령인 김분희 할머니(93)는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북쪽의 큰 아들 강임석(71)씨와의 상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날 아침까지도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52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만나는 김 할머니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전쟁 때 헤어진 북녘의 어머니 박옥순(80)씨와 만날 남한의 두 아들 임석주(62)승주(57)씨는 이날 아침 긴장된 모습이었으며, 전쟁 중 아버지 양문옥(84)씨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던 남쪽의 아들 종신(63)씨는 금강산으로 떠나면서도 "아버지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시 전쟁 때 전사한 줄 알았던 형 리종만(76)씨를 만나러 가는 남쪽의 동생 종선(69)씨 형제들은 "꿈만 같다"고 했다.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끌려간 형 석기(72)씨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연좌제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동생 류석원(66)씨 가족들은 이번 만남으로 아픈 기억들을 다 지워보겠다는 기분으로 버스에 올랐으며, 남쪽에 직계 가족이 한 명도 없어 사실상 대가 끊긴 북한의 선의창(72)씨와 문로석(80)씨를 만날 선씨의 이종사촌형 어인갑(76)씨와 문씨의 외조카 김용하(66)씨는 전날(19일)에 이어 착잡한 표정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남측 상봉단과 지원요원, 취재진 등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13대의 관광버스를 나눠타고 숙소인 한화리조트를 출발해 10시쯤 고성 출입국관리소(CIQ)에 도착, 간단한 입북수속을 받는다.

이어 현대아산측이 보낸 금강산 관광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 출입국관리소를 출발해 동해선 도로를 따라 12시30분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하며,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동안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북측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할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남측상봉단 육로로 금강산 도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453명이 남측 출입국관리소를 출발해 금강산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20분 남짓 걸렸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에게는 이 시간도 무척 길게 느껴졌다.

북측의 오빠 리동걸씨를 만나러 가는 미자(61)씨는 "1시간 20분이 너무 지루하더라.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남측 상봉단은 단장인 이기상 한적 인천지사 회장을 비롯한 지원요원 80명, 취재진 30명 등과 함께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25대에 나눠타고 오전 11시10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앞에 임시로 마련된 남북 출입국관리소(CIQ)를 떠났다.

가끔 비가 뿌리는 가운데 이산가족들을 태운 차량행렬은 동해선 도로를 따라 1km정도 늘어서 장관을 이룬 가운데 천천히 북으로 향했다.

차량은 동해선 남측 구간에선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 임시도로를 이용했으며 북측 구간에선 본도로를 이용했다. 지난 6월14일 연결된 동해선 철도의 경우,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에서 2km 정도 레일이 부설돼 있었다.

오전 11시 26분 남측 상봉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금강통문을 지나 3분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이어 북방한계선을 조금 지나 차량 행렬은 북측 경무관들의 인원파악과 차량 검색을 위해 20여분 정도 기다린 뒤 다시 북으로 향했다.

차량행렬이 지나는 도로 왼쪽으로 동해선 철도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도로는 보도 경계석 위로 코스모스가 잘 피어 있었다.

남측 상봉단은 낮 12시30분께 장전항에 도착했다. 장전항에는 북한의 북측 적십자회 정덕기 상무위원을 비롯해 이세복, 황철 등 적십자회 관계자 3명이 미리나와 남측 이기상 단장과 이세중 한적 부총재, 이병웅 총재특보, 홍재형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등을 맞이했다.

남측 상봉단은 장전항 출입관리소에서 간단한 통관수속을 마치고 숙소인 해금강호텔과 설봉호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1시간 남짓 휴식을 취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동안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가는데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북측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할 예정이다.

북측의 형 조철형씨를 만날 조옥형씨는 "감개무량하다"며 "금강산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지난 번에 비해 도로 사정 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南단장 '이산상봉 정례화' 강조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인 이기상 제8차 이산가족 상봉단장은 20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환영만찬행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강조했다.

이 단장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이산가족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오직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 그 행동이 요구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다음달에 아니 매주 한번씩 계속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용호 북측 단장은 "우리에게는 민족의 통일번영을 담보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있고 온 거래를 하나로 융치게 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있다"며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북과 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가슴에 쌓인 아픔을 씻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화목하게 사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뜻을 합치면 아무리 엄혹한 정세도,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도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거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금강산상봉〉 환영만찬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들은 20일 북한 금강산지역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에 이어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남짓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0...만찬장 헤드테이블에선 이산가족 상봉이 화제가 됐다.

이기상 제8차 이산가족상봉단장이 "오늘 오신 분중에 93세 되신 분은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다. 이처럼 이산가족들이 자꾸만 노화되고 있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만나게 하자"고 말을 건네자 곁에 앉은 북측 백용호 단장은 "그러니 우리가 빨리 면회소를 짓자는 것 아니냐. 이것을 기점으로 만남을 활발히 하자"고 답했다.

0...북측 김운용(74)씨와 남측 형제, 자매 5남매는 "처음으로 형제들끼리 술을 마신다"며 "강회가 새롭다"고 말해 반세기 만의 형제가 모인 저녁식사에 감격해 했다.

북측 전순돌(75)씨는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40년째 틀니를 끼고 살지만 아직까지 못먹는게 없다"고 하자 남쪽의 조카 순식(61)씨는 "저도 얼마전부터 틀니를 낀다"며 "세월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인민예술가 리근화(74)씨 가족 테이블에선 남측의 동생 근우씨가 "오늘만 같으면 100살을 살겠다"고 말하자 가족들은 모두 한바탕 웃기도 했다.

0...이날 만찬에는 삼색냉채, 호박죽, 모듬전, 메로구이, 소고기 송이볶음, 진지와 맑은 두부장국, 계절과일, 수정과 등이 준비됐으며 일부 이산가족들은 산머루술, 들쭉술, 개성인삼주 등 북한 특산주들을 별도로 주문해 마시기도 했다.

0...만찬을 끝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친 남북 이산가족들은 21일 개별상봉과 공동오찬, 삼일포 관광 때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금강산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끝)

〈금강산상봉〉 선물과 만남의 징표 나눠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병풍과 액자로 제작해 부모님 제사때 사용하라"

북측의 인민예술가(화가) 리근화씨는 21일 해금강호텔의 객실에서 치러진 개별 상봉에서 가족들에게 한시와 풍경화, 꽃그림 등을 전했다.

리씨가 쓴 시는 "푸르른 소나무는 눈에 덮여 그 기상 더욱 장엄하고/ 푸른 대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서 그 빛깔(빛깔) 더욱 새로워지네/ 푸른 송죽의 절개를 본받으며/ 한평생 충성과 효성의 길에서 몸과 마음 다해가리라"라는 내용으로 한글로 쓰인 한쪽과 한문으로 쓰인 7언절구 4쪽짜리였다.

또 근화씨는 칠보 도자기와 술을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남측의 가족들은 "옷가지를 몇개 준비했다"며 근화씨에게 정퍼를 입혀주고 모자를 씌워주며 애뜻한 형제애를 나타냈다.

전날 첫 상봉 후 네 시간여만에 극적으로 아들 강임석씨를 알아보았던 남쪽의 김분희(93)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만나 "이 아이가 19살때 집을 나갔는데..."라며 연방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손목시계 두개를 아들 강씨에게 건넸고 강씨는 "월 이런걸 주느냐"며 거절하다 가족들의 강권에 선물을 받아들였다.

이어 강씨는 '장명' '금장'이란 이름이 붙은 북한산 장수약품을 어머니 김씨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 먹으면 10년은 더 산다"고 말하며 노모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북측 이산가족 리소영(64)씨는 함께 북으로 갔던 어머니가 지난 1992년 100세 생일 때 녹음한 육성을 남쪽 가족들에게 들려줬다.

내용은 김일성 주석이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도 보내주었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리씨는 북한의 방송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지만 남쪽의 누나 숙영(84), 순라(73)씨 등은 녹음 내용을 들으며 "소리가 너무 작고 음질이 안좋아 어머니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씨는 "어머니가 '생일선물 가운데 개성고려인삼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녘의 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함께 마시라'고 했다"며 개성고려인삼주 한병을 꺼내놓기도 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박사원 지원교원실 지도교원으로 40년간 재직했던 백영철씨와 남측 가족들은 개별상봉이 시작되자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환담을 나누다 취재진이 들어서자 백씨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며 침대에 늘어놓았다.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뉘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다. 53년이 너무 길다. 어릴 때 헤어진 동생들도, 조카들도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며 "어서 빨리 함께 모여 사는 날이 와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8차 상봉에서도 남측 선물공개를 늦출 것을 원하는 북측 취재진 및 안내요원들과 북측 선물이 공개됐으니 남측 선물도 공개하자는 남측 취재진 간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가족들은 상봉장면이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 사무치는 어머니님 생각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제는 어머니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됐네"

외가의 대가 끊겨 홀로 방북길에 오른 어인갑(76)씨는 21일 북쪽의 이증사촌 선희갑(72)씨를 만나 남쪽에서 돌아가신 선씨의 어머니 기일이 3월 28일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씨는 "기일을 몰라 그동안 어머니님 제사를 모시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상봉에서 남쪽의 어머니를 만난 장익성씨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 안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겠느냐"며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평생 소원이 풀렸는지 어제는 정말로 잘 잤다"며 옆에 자리한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남쪽의 어머니 김남용씨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이 애가 내 말아들"이라며 "90이 다되도록 익성이 한번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원대로 됐다. 부모를 보겠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북쪽의 형 리종만씨를 만난 종선(69)씨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특별한 유언은 없고 항상 형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전하자 종만씨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후 20여년동안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으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잊었다"며 그동안의 안타까웠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30여년동안 철도 관련 계통에서 일하다 지난 5월 청진역장으로 퇴임한 종만씨는 "앞으로 동해선이 연결되면 청진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박함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북측 이산가족 유재득(78)씨는 헤어질 때 젓먹이였던 딸 정희(54)씨를 바라보며 "이름도 짓지 못하고 떠나왔던 딸이다"며 "죽은줄만 알았다"고 그동안 헤어져 딸의 이름조차 모르고 지내온 반세기의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뜨거운 부성애를 표시하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 공동중식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남북 이산가족들은 21일 오전 북한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가진 뒤 오후 1시부터 온정리 북측 김정숙 휴양소로 자리를 옮겨 점심을 함께했다.

북측 여성 봉사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부터 도열, 남측 이산가족들을 맞이했고 북측 가족들은 김정숙휴양소 1층 로비와 2층 연회실 등에 준비된 식탁에서 남측 가족들을 기다렸다.

식사중 일부 이산가족들은 함께 있는 장면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사진과 캠코더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북측 형 류재득씨를 만난 남측의 동생 석용씨는 "돌아가 남측 가족들에게 보여 주려면 많이 찍어야 한다"며 손에서 캠코더를 놓지 않았다.

이날 식탁에는 여러가지 고기를 합쳐놓은 육합송과 모듬 산나물인 산채합송, 닭편구이, 새우찜, 케이크, 빵, 룡성 딸기사이다, 배단물, 냉요리(냉채), 계피떡, 절편, 낙지초대(오징어순대), 청포냉채, 섭죽, 생선죽, 쇠고기중탕, 비빔밥 등이 가지런히 마련됐다.

북측 강성암씨의 남측 조카 매리씨는 "순대와 김치 등이 맛있다"며 "작은 아버지 덕분에 북한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북측의 인민화가 리근화씨의 남쪽 네자매는 북쪽의 음식을 맛보고 하나같이 "남쪽 음식에 비해 상당히 싱겁다"라고 말하자 동행한 남쪽의 남동생 근우씨는 "남쪽은 상대적으로 더워서 음식이 자주 상하다보니 짠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동오찬에는 평양 대외봉사국 소속 봉사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봉사국 소속으로 평양 해방산호텔에서 근무하는 봉사원 남경희씨는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것 처럼 기쁘다"며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휴양소 현관 앞마당에는 지난 6월말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부터 이산가족들을 상대한 간이 판매대가 또 다시 마련돼 있었다.

판매대에는 들쭉술, 뱀술, 포도술, 활춘술 등 주류, 평양담배, 인삼담배, 던힐 등 기호품들과 도자기세트, 인두화(나무에 인두로 지져 그림을 새긴 것) 등이 진열돼 있었으며 특히 미화 2천 달러의 은식기 세트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동오찬은 이번 행사중 처음으로 북측 시설에서 열려 이산가족들은 물론, 현대측 지원요원들도 휴양소 벽에 전시된 김일성.김정숙.김정일 등 3명의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 참관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남북 이산가족 550여명은 21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공동오찬을 한 뒤 오후 함께 삼일포를 관광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 늦은 4시40분께 삼일포에 도착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참관상봉에 앞선 세 차례의 상봉에서도 할말을 다 못 나눈 듯 이야기 꽃을 피웠고 가족들이 호숫가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북측에서 준비한 다과를 함께했다.

이날 북측 가족은 사과 네 개, 신덕생물, 진달래 레몬음료, 박하사탕을 준비했고 특히 '크림겸과자'(산도)가 인기를 끌었다.

북측 오대호씨를 만난 동생 중호씨는 "53년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삼일포에 함께 오니 더욱 기쁘다"며 "삼일포는 어느 곳보다 맑고 정결하고 굉장히 정돈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측 리재오씨는 함께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북측의 강성후씨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강씨를 가리키며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아버지(강성후씨)가 내가 사는 평양의 아파트 옆에 살고, 이번에도 같은 차로 내려왔다"며 "내일 돌아가면 너희들 아버지를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켰다.

북의 시어머니 박옥순씨를 처음 만난 남의 두 며느리들은 준비해간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각각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이며 "잘 간직하세요"라고 반세기만에 고부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북한의 오빠 정경화씨의 한 여동생이 오빠에게 과자를 건네며 "오라버니, 많이 드시라요"라고 오빠의 북한 말투를 흉내내 주위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이 함께 삼일포를 관광하는 동안 남북한의 지원요원들은 단풍관에서 담소를 나눴다.

남측 단장인 이기상 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은 백용호 북측 단장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못만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우리가 바보지..."라고 한숨을 지었다.

이 단장은 "지구는 자꾸 좁아지는데 적십자가 다리 역할을 해 이산가족들을 하루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번이 첫 방북인 이 단장은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산가족들이 하루 빨리 만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정덕기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은 "만나는 장면도 마음이 아프지만 헤어질 때는 더하다"며 "그러나 이런 만남도 그전에는 생각이나 할 수 있었느냐"고 말했다.

(끝)

北, 이산가족 상봉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제8차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전날인 20일 북측 상봉자들이 남측 가족 및 친척과 집단으로 상봉한 데 이어 21일 가족 단위 상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은 혈육들끼리 손을 맞잡고 뜨겁게 포옹하기도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해 했다"면서 "21일 상봉에서는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백영철 김책공업종합대 교수와 인민예술가 리근화씨 등 북측 상봉자 10여명의 상봉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금강산상봉> 짧은 만남, 기약없는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22일 오전 북한 금강산 온정각 앞마당은 떠나야 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들이 한데 엉켜 눈물바다를 이뤘다.

김태순씨는 반세기만에 만난 북의 오빠 룡찬씨를 태우고 가는 북측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따라가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남쪽의 오빠 수찬씨의 품에 매달리며 "엄마랑 얼마나 닮았는데. 엄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라며 오열했다.

임승주씨는 북의 어머니 박옥순씨를 부축해 온정각 계단을 내려오다 '어머니'를 부르며 대성통곡하자 어머니는 "승주 이놈, 엄마가 우는 것 보려고 왔느냐. 그러면 다시는 안온다"며 달랬다.

박씨가 몸을 돌려 버스로 향하자 승주씨는 어머니의 한복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머니'라고 외쳤고 끝내 버스가 떠나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영자씨는 버스에 올라탄 북측의 언니 성련씨에게 "언니 건강이 중요하다"고 울먹이자 성련씨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남측의 박상영씨는 버스에 올라탄 남동생 상만씨의 손을 붙잡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말 알아 몰라"라고 말하며 버스가 떠나려고하자 안내요원을 붙잡고 "(동생) 손을 한번만 더 만지게 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상만씨는 조카 정상덕씨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작별상봉이 시작되자 남측 이산가족들은 두 차례 상봉과 삼일포 참관 때 찍은 사진을 현상해 북측의 가족에게 전해주기도 했으며 마지막 안부인사를 건네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인 김분희 할머니는 북측의 아들 강임석씨를 보고 "아이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래 볼줄 몰랐다"고 말했다.

52년만에 구순의 어머니를 만나게 '장군님 덕분'이라고 말하던 북측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강씨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납시다. 집으로 돌아가 통일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들에게 "기특하구나. 어머니 잘 모셔다오. 어머니 건강은 너희들 노력에 달렸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남측의 여동생 유재남씨는 북측의 오빠 재득씨 수첩에 "오빠 안녕히 계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계세요"라는 글을 적어주자 재득씨는 "우리가 오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다. 마음 든든히 먹고 다시 올 때까지..."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 오빠 리원구씨를 만난 원주씨는 "어제 우리가 삼일포에서 만난 장면이 남쪽TV에서 방영됐다. 고향에서 오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오빠 얼굴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씨는 "내 다섯살, 오빠 스무살 때 그 마음으로 꼭 보자고 약속, 약속, 약속"이라며 손도장을 찍고서는 다시 손을 부비며 "이것은 우리 약속을 복사하는거야"라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닷새 전에 어머니 김옥순씨가 사망해 대신 상봉장에 나온 박광빈씨는 "통일이 되면 어머니 유해를 모시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삼촌, 이모 백세 넘어까지 사세요"라고 말하자 남측의 작은 아버지 김보희씨는 "광빈이가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북측 박옥순씨 두 아들 내외와 손자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행사장에서 테이블을 잠시 밀치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북측 림윤호씨가 동생 명호씨에게 "오늘 헤어지는데 건강하게 잘살아라"라고 말하자 명호씨는 "헤어진다는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오늘 임시로 작별하는 것이다. 곧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형 건강하게 잘있어"라고 답했다.

북측 정경화씨의 남측 여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오빠 경화씨의 손을 붙잡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담배 끊어.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강재성씨는 남측의 부인 전숙녀씨에게 "북측의 아내가 적어준거야"라며 편지를 건넸고 동생들에게 북측 가족들의 사진도 전달했으며 박상만씨는 남측의 두 누나 상영, 상순씨에게 "언제면 우리가 모여살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흐느꼈다.

남측 이산가족 453명은 이날 오후 상봉일정을 마치고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육로로 귀환하며 23일부터 25일까지는 남측 이산가족 143명이 만나기를 희망한 북측 가족 250여명과 금강산에서 반세기만의 상봉행사를 갖는다.

-금강산상봉- 상봉2진 내일 육로로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단장 양후열 한적 제주지사 회장) 223명이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거쳐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보호자 43명은 출발 하루전인 22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한화콘도에 모여 방북교육을 받았다.

6.25 전쟁통에 인민군에 끌려간 아들이 북녘에 남겨놓은 두 피붙이와 며느리를 만날 예정인 최고령자 정월옥(95) 할머니는 "53년 동안 그리움에 한을 품고 모질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먼저 갔다"고 울먹인 뒤 "그래도 손주와 며느리라도 만나게 된 것에 위안을 삼는다"고 상봉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당시 10살이었던 큰 딸 윤정자(63)씨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1.4후퇴때 피난내려 왔다는 김금순(79) 할머니는 "항상 가슴에 묻어두었던 큰 딸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며 "만나서 알아볼 수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 했다.

전쟁 당시 피난 내려와 반세기 넘어 북측의 아들과 여동생을 찾은 김준태(87)

할아버지는 아들 응호(57)씨가 병원에 입원, 이번에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북측의 부모님과 아내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됐고, 아들도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우울하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전 8살짜리 딸 최덕복씨만 시댁에 남겨두고 남편과 아들 최덕창(64, 미국 애틀랜타 거주) 등과 함께 월남했던 임진옥(83) 할머니는 "거의 고아로 살다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딸이 결혼해 사위와 자녀와 함께 나온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남측 상봉단은 23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 30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12시30분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동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측 이산가족 453명을 포함한 이산상봉단 1진(단장 이기상 한적 인천지사 회장)은 꿈만 같은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후 동해선 육로를 거쳐 속초로 귀환했다.

(끝)

〈이상상봉 ‘숨은 일꾼’ 적십자 자원봉사자〉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기까지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의 남모르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4차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 금강산에서 열리면서 강원도 속초.양양. 고성 지역의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은 단골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노란색 조끼에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22일에도 8차 상봉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산가족들을 도왔다.

집결지인 설악한화콘도 뿐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 공항 등지에서 반가운 얼굴로 가족들을 맞았다.

터미널과 공항에서는 승용. 승합차 등 70여대를 직접 몰고 나온 봉사자들이 노인이 대부분인 이산가족들을 그때 그때 한화콘도로 모셨다.

여러 차례의 상봉행사를 치른 자원봉사자들의 노하우도 그만큼 쌓였다.

북측 가족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 지 모르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이것 저것 챙겨 주기도 하고 박스째 선물을 들고온 가족들에게는 가방을 사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이날 동반가족을 포함한 143명의 이산 가족을 맞기 위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200명을 훨씬 넘는다.

강원지역 적십자 봉사회 최돈일 부의장은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팔을 걷고 나선 분들"이라며 "상봉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가게 문을 닫아 걸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이날만은 일을 쉬고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등 행사지원 요원들도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상봉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자원봉사자는 "지난 주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다 쉴 틈도 없이 자원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려움은 적지 않지만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사에 참여한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국군포로 만나는 남측 두가족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현충일 마다 아버지의 위패가 있는 국립묘지에 가서 원망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던 분을 만나게 된다니 이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줄만 알았던 북의 아버지 남소열(76)씨를 만나는 성기(58)씨는 지난 반세기 넘게 흩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멧힌 가슴의 응어리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남소열씨는 지난 1950년 6.25 전쟁당시 아내 김지수(78)씨와 아들 성기(58), 윤기(56), 순기(54)씨와 함께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다.

소열씨는 그해 12월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며 군에 입대했고 전장에서도 가족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 받았으나 1953년 초부터 연락이 끊겼다.

휴전 2개월 후에 가족들은 소열씨가 53년 7월 21일 기마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시고 국가 연금을 받으며 지난 반세기를 살아왔다고 한다.

부인 김씨는 혼자서 어렵게 세 아들을 길러 모두 출가를 시키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독한 세월을 견뎌왔다.

강원도 병무청장인 성기씨는 "직장일로 기마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갈 때 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혼자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남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에 제3국의 사업가를 통해 소열씨가 국군포로로 북에 끌려갔으며 아직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 방송사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열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적십자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였고 이번에 마침내 제8차 상봉단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성기씨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고혈압이 심해 저만 가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해 북의 아버지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국군 포로로 끌려간 북의 오빠 한영옥(80)씨를 만나게 되는 남의 여동생 일덕(68)씨는 오빠가 죽은 줄로 믿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에 목이 메었다.

일덕씨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오빠가 전쟁 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충격으로 몇 년 후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둘째 오빠를 보러 가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 살던 영옥씨는 6.25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되어 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끝)

〈금강산상봉〉 “북의 아들들이 날 몰라보면 어쩌나”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혹시 날 몰라보면 어쩌나 싶어 잠도 못 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속초 한화콘도를 찾은 방도원(89) 할아버지는 긴장한 모습이었다. 반백년이 지나서야 북녘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됐지만 당시 12살과 9살이었던 아들들이 자신을 몰라볼까 걱정에서였다.

"내가 월남한 뒤로 총살당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살아 있다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는 방 할아버지는 "두 아들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을텐데 나에 대한 기억이나 있을지..."라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고향인 평남 명산군 동면에서 2남2녀를 두고 농사를 지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방씨는 전쟁이 나자 "머칠만 피해 있다가 오겠다"며 혼자 길을 나섰다. 그 길은 긴 이별로 이어졌고 그동안 이산의 한을 안고 살아왔다.

온갖 고생을 하며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북녘의 가족과 친지들이 행여 자신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을까 하는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쪽에서 재혼을 했지만 딸만 다섯을 뒀 장남으로서 대를 잇지 못한 정도 늘 마음의 짐이었다. 이 때문에 명절 때면 어김없이 임진각에 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는 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쟁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난 뒤 홀로 남으로 내려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막내 동생 병원(70)씨를 만나 뒤늦게나마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두 딸의 생사를 몰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산상봉 신청 8년만에 아내와 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씨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방씨는 "스스로 정신력과 생활력이 강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들 녀석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 애가 탄다"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끝)

-금강산상봉- 남측 방문단, 북측 가족 만나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하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23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2시간 가량 단체상봉을 갖고 반세기를 훌쩍 넘긴 이산의 아픔을 달렸다.

남측 가족들이 오후 3시5분께 김정숙 휴양소에 마련된 단체 상봉장에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북측 가족들이 반갑게 맞았으며 곧바로 여기저기서 손을 부여잡거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말신(74) 할머니는 함께 간 큰아들 김상규(56)씨와 함께 지난 1987년 1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동료 선원들과 함께 납북된 둘째아들 상섭(53)씨와 16년만에 만나 오열했다.

또 강원도 강릉병무지청장인 남성기(58)씨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줄 알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모셨던 아버지 남소열(76)씨를 만나 얼싸 안았다.

남소열씨는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1953년 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북한에서 국군포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25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간 한영옥(80)씨도 남의 여동생 일덕(68)씨를 만났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정월옥(95) 할머니는 전쟁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가 북에 끌려간 아들이 얼마전 세상을 떠나면서 생면부지의 북측 두 손자와 며느리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

6.25 당시 단신 월남했던 방도원(89)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 50년이 넘도록 그리워했던 정을 나눴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 김정숙휴양소에서 북측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금강산의 첫 밤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8시40분께 속초 설악한화콘도를 떠나 이산가족 143명을 포함한 남측 이산상봉단 (단장 양후열 한적 제주지사 회장)은 버스편으로 동해선 육로를 거쳐 낮 12시 20분께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입북수속을 밟았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24일 오전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가진 뒤 김정숙휴양소에서 점심을 함께하고 날씨가 좋을 경우, 오후에 삼일포를 참관할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단체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23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8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단체상봉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50년 이상 남모르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을 풀어냈다.

워낙 오랜 세월이라 못 알아보지나 않을까 남측 가족들은 시원스레 떨어진 동해선 도로를 달려오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것도 잠시였고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아내, 자식과 형제들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비보를 접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0...남측의 김성태(74)씨는 건강이 안좋아 상봉장에 못나올 것으로 알았던 북의 어머니 북점순(92) 할머니를 만나자 "너무 기쁘다"며 와락 끌어안았다.

북할머니는 "오래 사니 너를 만나게 되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렸고 북의 여동생 김경애(65)씨도 "오빠가 아버지를 닮아 단번에 알아봤다"며 반가워했다.

이와는 반대로 남의 홍성관(75)씨는 이날 상봉장에서 만난 북의 여동생들로부터 처음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오열했다.

황해도 연안이 고향인 홍씨는 4형 한시로 된 사모가를 수 차례 읊으며 "53년동안 이 시를 외우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렸는데...저는 불효자입니다"라며 울먹였다.

홍씨는 여동생 섭섭(73)씨에게 "눈은 편안히 감으셨느냐"고 자세하게 캐물으면서 임종 못한 한을 달랬다.

0...함북 청진에서 교사를 하다 남에 혼자 내려온 강성민(80)할아버지는 북의 아내 차대임(71)씨의 손을 꼭 잡고 속죄라도 하고 싶은 듯 "나 알아보겠어. 고생하지 않았나"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강 할아버지는 두살, 한살배기 때 역시 북에 두고온 딸 영옥(55)과 영숙(53)씨에게 주려고 치수도 어렵짐작해 옷가지를 사왔다.

북에서 농사를 지으며 결혼생활을 하다 37세 되던 해 아내와 5명의 자식을 남겨 놓고 참전, 제주도 포로수용소에 있다 남에 정착한 김순희(94)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많이 보고 싶었는데..."라며 한탄했다.

외조부가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라는 김 할아버지는 북의 세아들 재만(65), 재억(64), 재하(55)씨의 이름을 차례로 부른 뒤 얼굴을 어루만지며 "헤어질 때 네가 10살이어서 못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만나니 금방 알겠다"고 말했다.

0...남측의 김금순(81) 할머니는 1.4후퇴 때 북에 두고온 열살짜리 딸 윤정자(63)씨를 찾았다. 황해 개풍군에서 남편과 두살된 딸을 데리고 뱃길따라 강화, 인천을 거쳐 부여로 내려온 김 할머니.

당시 시어머니가 "큰 딸은 너희들이 버거워서 못데리고 간다. 잠시 내려갔다 오는 것인데 두고 가라"는 만류에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라고 자위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될줄 몰랐다.

김 할머니는 내내 윤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손을 떼지 못했다. 윤씨도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5남매가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손자들도 많다"며 가족자랑을 했다.

김 할머니는 "일 다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늙었지"라며 50년의 세월을 한스러워했다.

0...피난 당시 아들 둘만 데리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채 남에 내려왔던 임진옥(83) 할머니는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딸 최덕보(66)씨가 북에서 결혼해 사위와 함께 나오자 기쁨과 회한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임 할머니는 딸과 사위로부터 큰절을 받으며 회한을 달랬다.

남측 상봉단중 회고령으로 휠체어를 타고온 정월옥(95) 할머니는 북에서 사망한 외아들 대신 나온 며느리 김봉도씨와 손자 김기영, 세영씨를 만나 통곡했다.

정 할머니는 "아들은 전쟁 당시 축구선수로 지내다 인민군에 끌려갔는데 결국 이렇게 못만나고 먼저 가다니 한이 남는다"고 울먹였다.

정 할머니는 며느리 김씨가 "제가 며느리입니다"라며 인사를 하고 손자의 사진을 건네주자 사진을 얼굴에 파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끝)

〈금강산상봉〉 이산상봉 환영만찬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얼마 만에 함께하는 식사인가.

제8차 이산가족 상봉 2진 행사 환영만찬이 열린 23일 저녁 김정숙휴양소에서 머리에 서리가 내린 아들 딸들과 이마에 짙은 주름이 진 어버이들이 반세기를 넘겨 한 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감격을 누렸다.

처음 만난 북쪽 손자에게 풍성히 차려진 맛난 음식을 권하는 남쪽 할아버지의 눈길에는 '새식구'를 찾았다는 뿌듯함이 어렸고 백발 노모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는 북쪽 딸의 눈시울에는 애뜻함이 배어났다.

91살의 노모 북정순씨를 만난 남쪽 아들 김성태(74)는 "어머니 무엇을 좋아하세요"라고 묻고는 나물과 묵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어 드렸다.

53년만에 북의 여동생들과 재회한 고영찬(79)씨는 만찬 내내 즐거운 표정이었다.

3대 독자로 여동생만 셋을 둔 고씨는 첫째 동생 영순(75)씨가 몸이 불편해 참석치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영원(65), 영진(56) 두 여동생에게 새우를 직접 먹여주고 등을 토닥거리기도 했다.

고씨는 "내 옷 주머니가 크다면 여동생 둘을 모두 주머니에 넣어가고 싶다. 어린 시절 함께 소꿉장난 하던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철(81)씨는 단체상봉에 이어 만찬장에서 북의 여동생 은숙(66)씨를 다시 만난 반가움에 동생의 얼굴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은숙씨는 함박웃음을 짓고 "꿈만 같다"며 식탁에 놓인 새우반찬을 오빠의 입에 넣어주었다.

북측은 통닭구이와 편육, 떡, 전, 나물, 과일과 음료수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 반세기만의 상봉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백용호 북측 단장은 만찬사를 통해 "서로 얼싸안고 혈육의 정을 나눈 시간은 갈라져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에 비하면 비록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설사 정견과 이념이 다르다 해도 북과 남은 한 형제이며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됐다"고 말한 뒤 축배를 제의했다.

이어 양후열 남측 단장은 답사를 통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어떠한 이유도 붙이지 않고 적십자인들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주고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오늘 같은 상봉을 마지막 한사람이 만날때까지 주선해 주어야겠다"고 화답했다.

(끝)

-금강산상봉- 남북이산가족 오붓한 시간보내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방북 이틀째인 24일 남측 이산가족들은 오전에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을 갖고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가진데 이어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오후에는 삼일포 관광을 하면서 세월의 무게만큼 겹쌓인 이산의 한을 털어냈다.

이날 개별상봉은 100 가족 가운데 공개대상 선정을 둘러싼 남북 적십자간 논란으로 당초 예정보다 20여분 늦게 시작됐으나 진행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남측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김금순(81) 할머니는 6.25전쟁 때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피난을 내려왔던 북의 큰딸 윤정자씨를 만났다.

김순석(74)씨는 북의 어머니 강지효(89)씨를 만나 큰절을 올린 뒤 남측 가족들 얘기를 들려주며 모자의 정을 나눴고, 1.4후퇴 때 월남한 원동현(83)씨는 북의 아내가 몸이 불편해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영자(63), 영숙(61), 영실(58)씨 등 세딸과 아들 성근(55)씨를 만나 즐거움을 나눴다.

월남해 재혼한 남측 김봉인(89)씨는 상봉장에서 처음 상면한 남과 북의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실랑이를 벌이자 눈물을 흘렸고 김택순(72)씨는 북의 누나와 두 여동생을 만나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리움을 달랬다.

강성민(80)씨는 북의 아내 차대임(71)씨를 보고 손을 꼭 잡은채 안타까움을 전했고 박부서(66)씨는 북의 남동생 항원(62), 항벽(58)씨의 손을 꼭 잡고 살아서 다시 만난 것을 감사해하며 서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했다.

이어 남과 북의 이산가족 389명은 낮 12시 30분부터 북측 김정숙휴양소에서 점심을 함께 했으며 오후에는 함께 삼일포 나들이를 했다.

삼일포를 둘러보며 남북 이산가족들은 못다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가족별로 여기저기 둘러 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나 일부 가족들은 내일이면 또 다시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탓인지 연방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25일 오전 9시 북측 김정숙휴양소에서 작별상봉을 가진 뒤 이날 낮 금강산을 떠나 동해선 육로를 통해 속초로 귀환할 예정이다.

(끝)

“조국통일만이 이산 고통 해결”〈북TV〉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조국통일이 민족을 위한 최고의 인도주의이며 이산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증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5일 주장했다.

중앙TV는 이날 온 거래의 관심속에 금강산에서 시작된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났다면서 그렇기 밝혔다.

방송은 이번 행사는 "조국통일만이 민족을 위한 최고의 인도주의로서 북남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영원히 가셔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6.15공동선언만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가장 정확한 이정표임을 다시한번 확증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중앙TV는 "상봉 장소는 반세기 이상만에 처음 만나게 된 북남 가족친척들의 혈육의 정과 통일열망으로 가득찼다"며 "북과 남의 가족친척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상봉의 기쁨을 나누면서 혈육의 정을 두텁게 하고 통일애국의 마음들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금강산상봉〉 북측 협조 자세 돋보여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지난 20일부터 1, 2진으로 나눠 진행된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별탈 없이 치러지며 25일 막을 내린다.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측이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대목.

북측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을 감안한 동반가족 43명의 동행을 흔쾌히 수용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상봉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동반가족의 확대를 꾸준히 북측에 요구해 왔고 지난 7차 상봉 때는 10명으로 시작된 동반가족이 이번에는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북측은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의 상봉가족 246명을 데려와 겨우 200명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남측 대표단이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소지품 하나에도 신경을 쓰던 북한이 이번에는 고배율 카메라의 반입까지 허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협조 속에 북측은 금강산여관의 개보수가 마무리되는 올해 11월까지 또 한차례 상봉행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은 행사 기간 내내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상봉과 제반 행사지원에도 남측의 요구들을 잘 들어줘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차분해진 것도 횡수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상봉이 남긴 또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만나면 눈물바다를 이루던 이산가족들은 이번 상봉 때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밀렸던 이야기를 나눴고 북측의 가족들도 그동안 '장군님'을 거론하며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던데서 탈피했다.

이같은 성과 속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상봉의 정례화와 제도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상봉 1진의 환영만찬 때 남측 단장이 "이산가족들이 자꾸만 노화되고 있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만나게 하자"고 말을 건네자 북측 단장은 "그러니 우리가 빨리 면회소를 짓자는 것 아니냐. 이것을 기점으로 만남을 활발히 하자"고 답했다.

면회소의 규모와 운영방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양측이 만남의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iyh@yna.co.kr

(끝)

-금강산상봉- 제8차 이산상봉 모두 마쳐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25일 오전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가졌다.

이날 작별상봉이 이뤄진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은 50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서야 어렵게 한 핏줄임을 확인했던 남과 북의 가족들이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아픔 탓인지 누구랄 것 없이 온통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작별 상봉을 마치고 북측 가족들이 버스에 오르자 끝내 오열을 터뜨렸으며 일부는 북측 버스를 따라 뛰어가기도 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단장 양후열 한적 제주지사 회장) 223명은 이날 낮 해금강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에 동해선 육로를 통해 속초로 귀환한다.

(끝)

〈금강산상봉〉 ‘꿈’도 잠시, 다시 현실로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아버지, 잘 가시라요" "여보 건강하시라요"

25일 오전 작별상봉장인 북한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은 남측 상봉단과 북측 가족들이 2박3일간의 꿈 같은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느낀 탓인지 눈물 바다를 아꼈다.

6.25때 서울에 피난 나왔다가 일가족이 폭탄을 맞아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북측의 현광희(62)씨는 남측의 어머니 이감복(90) 할머니의 흰머리를 정성스레 빗겨 드리면서 "언제 또다시 만날 지 모르겠다. 마지막이 될 지 모르겠다"며 노모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남측 최고령자인 정월옥(95) 할머니는 북측의 며느리 김봉도씨와 손자 김기영, 세영씨를 얼싸안고 "죽은 아들 소식을 알게 됐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자 며느리 봉도씨는 "어머니, 오래 오래 사셔야해요. 통일이 돼서 반드시 다시 만나자요"라고 말했다.

납북된 아들 김상섭(58)씨를 만난 남의 어머니 오말신(75)씨는 "너랑 있으니 꿈 속에 있는 것 같은데..."라며 기약없는 이별에 가슴 아파했다.

상섭씨는 "통일되어 다시 만나야지요.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며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북의 손녀 향란(16)양은 남의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볼을 비비며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북의 어머니 강지효(89)씨를 만난 김순석(74)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니 얼마나 좋으냐"며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를 지켜보던 북의 여동생 금량(52)씨는 "오빠 마음을 합쳐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며 애써 순석씨를 달랬다.

작별상봉의 끝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자 순석씨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상봉장 밖으로 나갔고 한참을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남측의 어머니 김복례(86)씨를 만난 북의 이복아들 우종남(46)씨는 "남쪽의 가족들께도 제 안부 잘 전해주세요. 자꾸 울기만하면 통일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달랬다.

어머니 김씨는 "건강히 살다가 통일되는 날 찾아오거라"며 "너희 아버지 산소에 들러 내가 왔다 갔다고 얘기나 전해다오"라고 당부했다.

남측 이산가족 143명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마치고 동해선 육로를 통해 속초로 귀환했다

(끝)

사설

朝鮮日報

2003. 7. 15 (화)

6·25때 피살·납북된 인사 14만명 담긴 명부 첫 발간

월간조선사서 보내

6·25전쟁 때 피살됐거나 납북된 인사 14만여명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名簿)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월간조선사가 최근 펴낸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및 일반 공무원(군경 제외) 피살자 5만9994명, 납북자 8만2959명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인적사항에는 피살자(납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납북) 연월일, 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자료는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수집해 모아놓았던 것이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6·25전쟁 남북 인사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발견, 방일영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삼(金容三) 월간조선 출판기획부장 직무대행은 "피살자들은 북한군과 좌익에 의해 희생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던 납북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입문의 (02)724-6822

/廣龍源기자 kysu@chosun.com

사설

朝鮮日報

2003. 7. 25 (금)

6·25때 납북·피살된 사람 이름 정부작성 명단에 없는경우 많아

'월간조선 14만명 명부' 뒤지며 가족들 눈물

명부에 빠진 숫자를 감안하면, 6·25 전쟁 당시 납북되거나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명부상에 나오는 14만여명을 훨씬 상회하는 2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월간조선 사무실에서 명단확인 작업을 돕고 있는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김성호 이사장은 "명부가 책으로 발간된 뒤 6일간 납북·피살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모두 300여명이었으나 가족 이름을 찾은 사람은 140여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전쟁 와중이던 지난 52년 이뤄진 정부 조사가 불완전했고 그 뒤로 후속 조사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납북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어디로 끌려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가족들이 명부에서 이름

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전 5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남북협상에서 북한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피랍신고를 새로 받는 등 정확한 납북자·피살자 명부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명부에서 삼촌 정사용씨의 이름을 확인하러 월간조선 사무실로 찾아온 정영희(58·경기도 안양)씨는 결국 명부에서도 삼촌 이름을 찾지 못하자 눈물을 글썽거렸다. 정씨는 "지난 93년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삼촌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유언을 남겼었다"며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납북자 더이상 쉬쉬할 수 없다

25일자 A9면 '끌려간 아버지들... 대한민국은 잊었다' 기사를 읽고 쓴다. 정전 5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정부는 6·25때 납북·피살된 사람의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납북자·피살자의 수가 명부에 나타난 14만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사확인이나 사망자 유해송환에는 나뉘라라 하는 안일한 태도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직도 납북자 가족은 장교가 될 수 없고 간첩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은 요즘 같은 남북화해의 시대에도 여전히 같아 유감스럽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함께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에 나서야 한다.

/朴京甲 36·회사원·경기도 하남시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일 반 기 사

| | |
|------------------|-----|
| ❖ 일반기사 | 85 |
| ❖ 시 설 | 150 |

남북 장관급회담 시작

北대표단 어제 도착... 9차 이산상봉 등 논의

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3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차 회담 이후 난제였던 북핵 문제가 북한의 2차 6자회담의 참가 발표로 어느 정도 풀려서인지, 첫 공식 일정인 양측 수석대표의 환담부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령성 북측 단장에게 “그동안 핵문제로 김 단장을 괴롭

혔다. 이제 (북측이) 자진 신고하고 나오니 모양이 좋게 됐다”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빨리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단장은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으나, 우리의 실제적 입장을 미국이 깨달은 것 같다”면서 “문제는 우리의 원칙적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6자회담에

서 실질적으로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표단도 핵문제로 북측과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인지 여느 회담 때보다 밝은 분위기였다.

양측은 이날 저녁 고건 총리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4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갖는다. 우리측은 지난 2000년 9월 첫 회담 이후 3년 이상 중단돼 온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군사당국자 간 대화채널 개설과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잡는 문제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중앙일보

남북 장관급 회담에 바란다

중앙 시평



박재규
경남도 총장·전 통일부 장관

66

새로운 사업보다
합의사항 점검하고
6자회담에 앞서
진지한 의견 교환을

77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필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4차까지 장관급 회담의 남북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새로 출범하는 장관급 회담을 냉정시기와 달리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당국 간의 공식 대화기구로 만들기 위해 발상을 설치면서 북측 대표들을 설득한 것이 머리에 떠오른 한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남다르다.

북측, 이산가족 문제에 더 성의를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의 열의와 노력으로 화해협력은 지속돼 왔다. 그러나 2002년 북핵 문제의 대두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와 한계가 노출됐다. 북핵 문제의 여파로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경수로 사업이 중단됐다. 남측은 내부적으로 남남갈등이 고조돼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팔하의 목소리가 나오고, 북측 또한 외부와의 고립 심화로 경제난 극복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비록 2차 6자회담 개최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 참여하는 양측 대표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석대표를 역임한 필자로서는 이번 회담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첫째,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북 간 새로운 사업

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성·보안할 점이 있으면 양측이 협의·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정상회담 이후 여덟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8천51명이 상봉했다. 총 1만8천9백39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했고, 6백79명이 서신을 교환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이 생사 확인과 상봉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설치가 합의돼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공만 기다리지 말고 계속 생사 확인과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은 열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협력의 활성화와 긴장완화가 평화통일의 지름길임을 이미 남북 정상들이 이해를 같이하지 않았는가. 걸림돌이 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해 남측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반미·친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말없는 메시지를 매일 매일 북측에 보내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이 메시지는 ‘김정일’ 위원의장의 현명한 선택’이다.

중국의 중재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지난해 8월 베이징(北京)에서 1차 6자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에서 북측은 참가국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바람이 무엇인지 확인했을 것이다. 북한도 미국

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강조했고,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만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북한은 차기 6자회담에서 당당하게 미국에 요청할 것은 해야 하고, 핵문제 해결과 북·일 등 관련국 간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이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에 도움이 됨을 북한은 알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대표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의 조정안과 우리 국민의 바람을 북측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남측, 핵문제 한·미·일 협 설득을

중요한 시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음을 북측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보증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협력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려는 노력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열의를 보이면 국내외의 갈채를 받을 것이다. 또 장관급 회담이 북한이 주장하는 ‘반외세적 민족공조’가 아닌 ‘세계와 같이하는 열린 민족공조’의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 모두가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듯이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해 남북 대표들은 서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9차 이산가족상봉 내달 금강산 개최 장관급회담 3일째

남북한은 13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5일 오전부터 마지막 날인 6일 새벽까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 등을 잇달아 갖고,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 말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14차 장관급회담을 5월 중 평양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남북관계를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개성공단 건설과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상호 비방방송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북핵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장성급회담 개최 등에 대해서 6일 새벽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절충 작업을 계속했다. 양측은 이에 앞서 북측이 제기한 '미국에 의한 남북 경협 속도 조절' 주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져 공동보도문 협상이 지연됐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남북 장관급 회담 3일째인 5일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만찬에서 북측 김영성 수석대표와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달말 이산상봉’ 의견접근

남북공동보도문안 막바지 조율

고구려사 연구 공동지원도 모색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3일째인 5일 양측 대표단은 다음달 말 금강산에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구려사 문제도 남북 양측이 학계의 연구를 공동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회담은 남북 양측이 회담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지지부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책임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은 전날에 이어 남북경협 속도가 늦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남측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합의한 4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북측은 전날 저녁 아시아태

평양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회담 중에 이런 식의 말을 공개하는 것은 소탐대실 격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때문에 경협이 늦어진 것은 없고 북측의 제도적인 정비가 늦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실무 및 수석대표 접촉을 거듭하며 이견을 좁혀갔다. 남측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사회문화교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관계가 균형있고 내실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와 개성공단의 조기 착공, 금강산 관광 지원 등을 주장했다. 남북은 오후 5시까지 공동 보도문을 작성, 종결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6일 새벽까지 보도문안을 두고 집중조율을 벌였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9차 이산가족 상봉 3월말께 금강산서

南北장관급회담 의견접근

남북한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계속된 13차 장관급회담에서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 하순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개성공단 조기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14차 장관급회담을 5월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남북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문구 조정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남측이 강하게 요구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북측이 군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거절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이 고구려사 문제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측대표단은 6일 오전 공동보도문 발표와 북한 방문자의 통행과 신변안전에 대한 남북통행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간다. 윤상환기자

다음달 이산가족상봉 의견접근

장관급회담 “6자회담서 핵문제 결실 협력”

남북은 5일 제13차 장관급회담 첫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열어, 올 3월 중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2차 6자 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회담 개최와 경협 현안 등의 의제에선 자정을 넘겨가며 의견절충을 계속했다. 남북은 6일 오전 북한 대표단의 출발 전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핵폐기를 전

제로 한 핵동결 태도를 정했다면 6자 회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 핵문제 해결에 호응하고,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도 도움을 받기 바란다”며 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신언상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회담기간인 4일 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시사한 북측 이태평화위 담화가 나온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변함없음을 설명하고 북측의 그런 행동이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남북경협에도 장애를 조성한다고 강력히 질책했다고 신

대변인은 덧붙였다.

군사회담과 관련해 남측은 이번에 새로 제기한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를 고집하지는 않고, 기존의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장성급회담이나 2차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제기한 남북 당국 책임 아래 경협사업 추진과 해운합의서 발효, 휴전선 상호 비방방송 중지 등은 각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등의 하위 회담을 통해 풀어나가는 쪽으로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남북 장관급회담 진통

공동보도문 쓰고 이견

9차 이산상봉은 의견접근

남북은 13차 장관급회담 폐막을 하루 앞둔 5일 수석대표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갖고 공동보도문 조율을 시도했으나 핵 문제와 경협 속도 논란에 막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남북은 ▲고구려사 공동연구 ▲국호 영문 표기(COREA)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3월에 9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는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어차피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결 입장을 정했으면 6자회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지원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금강산관광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담화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반면 김영성 북측 단장은 시종일관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민족 공조를 내세워 “남쪽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경협 속도를 내달라”며 전날 기초발언을 되풀이했다.

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北송금’ 관련자 6명 열린우리, 特赦 건의

열린우리당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은 5일 입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초실장도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사안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장관급회담, 6자회담 협력-내달 이산상봉등 6개항 합의

남북한은 6일 남북간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쳤다.

▶A5면에 관련기사 남측 대변인인 신언상(申彦祥) 통

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나흘째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이 곧 열릴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장성급회담을 통해 매년 5~6월 꽃게잡이 철마다 되풀이되는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풀게 되면, 어민들의 안정적 조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또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제2차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 밖에 다음달 말 금강산에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5월 4~7일 평양에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승현기자 srkim@donga.com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왼쪽) 통일부 장관이 6일 신라호텔에서 떠나는 김경성 북측 단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南北 군사회담 조속 개최

장관급 회담 6개항 합의... 내달말 이산가족 상봉

남북은 6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장관급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13차 장관급회담 중격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와 관련, 남측 신언상 회담 대변인은 "매년 5~6월 꽃게잡이철에 되풀이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 군사당국자회담 합의는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후 끊어졌던 고위급 군사협의체널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핵 문제와 관련, '완전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결'과 '동결 대 보상 동시실행'을 주장하는 남북의 의견이 맞았으나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개성공

| | |
|---|----------------------------|
| 1 | 2차 이산가족 상봉-회담 규모 확대 |
| 2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 3 | 상반기 중 1만명 규모 개성공단 시범단지 개발 |
| 4 | 임진강 수계방지, 핵안전의사 발표 등 계속 협의 |
| 5 | 9차 이산가족 상봉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 |
| 6 | 14차 남북 장관급회담 5월 4~7일 평양 개최 |

단 개발 문제는 상반기 중 1만명 규모 시범단지 조성에 협력키로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1단계 100만명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말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5월4일부터 14차 장관급회담을 개최기로 했으며, 8월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에도 잠정 합의했다.

남북은 그러나 고대사 공동연구

와 'COREA' 국호표기 문제 등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철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20만톤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남측은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각자의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정치·군사분야에서도 남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남측의 목표는 장관급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로 이어졌고, 북측은 지지부진한 남북경협에 대해 남측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장관급회담의 경우 북측이 군부의 확답을 얻지 못해 "조속한 개최를 군사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정도로 약속, 개최 여부에 변수가 남아 있다. 김경성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했다. /정삼원기자 ornot@hk.co.kr

내달 29일 이산상봉 정부, 北제안 수용

대한적십자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의 제안대로 다음달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고자 13일 북측에 통보했다.

남북은 내달 15일 생사확인 회보서, 내달 18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내달말 이산상봉 후보자 200명 선정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19일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을 선정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오는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0명 중 남자는 135명(67.5%)이고 여자는 65명(32.5%)이다. 연령별로는 80대 90명(45%), 70대 77명(38.5%), 60대 23명(11.5%), 90세 이상이 10명(5%)이다.

대한매일

2004. 3. 1 (월)

이산가족 상봉 후보

남북, 200명 명단교환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2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이 전달해온 후보자 명단 중 최고령자는 91세의 박권석 할아버지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181명(90.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명(7%), 80세 이상이 5명(2.5%)이었다.

특히 북측 후보자 명단에는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누나인 옥희(76)씨가 포함됐으며 김 전 수석부의장은 2002년 5월 4차 이산가족 상봉 때도 형인 성하씨를 만났었다.

또 북측이 보내온 후보자 명단에는 8차 이산가족 상봉 때 이미 남측 가족을 확인했던 재북 이산가족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와 한적은 이날 북측 후보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북측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은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세계일보(www.segye.com)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2004. 3. 1 (월)

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월29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후보자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 후보자 가운데선 70대가 181명(90.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명(7%), 80살 이상이 5명(2.5%)이었다. 91살의 박권석씨가 최고령자였다. 출신지역별로는 경기도(42명), 경북(37명), 전남(21명) 순이었다.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누나인 옥희(76)씨가

포함됐으나, 김 전 수석부의장은 2002년 5월 4차 이산가족 상봉 때 이미 형인 성하씨를 만나 다시 상봉단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측 후보자 가운데선 80대가 9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77명(38.5%), 60대 23명(11.5%), 90살 이상 10명(5%) 순이었다.

남북 적십자사는 후보자 가족의 생사와 주소 확인을 거쳐 오는 18일 100명씩의 최종명단을 확정해 교환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이산상봉 후보자 200명씩 명단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각 200명의 명단을 교환하고 후보자들의 연고자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북측이 전달한 상봉 후보자 명단에는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누나인 옥희(76)씨가 포함됐다. 최고령자는 91세의 박권석 할아버지이며, 90.5%인 181명이 70세 이상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도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7명, 전남 21명, 서울·강원·충남이 각 17명, 충북 16명, 경남 13명, 제주 3명, 인천 2명, 함남·대구·일본이 1명씩이다.

남북 적십자사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열 계획이다.

북측 후보자 200명의 명단은 본보 홈페이지(www.kmib.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9차 이산가족상봉

남북 100명 명단 교환

남북한 적십자사는 1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3월29일~4월3일)에 참가할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최고령자는 김옥준(96) 할머니로 북측의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만나게 되며, 북측 최고령자는 박권석(91) 할아버지로 남측에 있는 자녀, 손자녀와 상봉하게 된다.

남측 상봉단 100명은 연령별로 ▲80대 48명 ▲70대 40명 ▲60대 7명 ▲90대 5명이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북측의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는 가족은 21명, 형제자매를 만나는 가족이 57명이며, 나머지는 삼촌 이상의 친척과 만나게 된다.

북측 상봉단 100명은 ▲70대 92명 ▲60대 5명 ▲80대 3명 순이며, 이중 16명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80명은 형제자매를, 3명은 삼촌 이상 친척을 상봉하게 된다. 북측이 지난달 28일 의뢰해온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에 포함돼 있던 동양 려운형의 조카 려운구(71)씨와 탤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 장경수(79)씨,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누나 김옥희(76)씨는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자세한 남북상봉자 명단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나 세계일보 홈페이지(www.segye.com)를 참조하면 된다.

조정진기자/jjj@segye.com

한국일보

2004. 3. 1 (월)

이산상봉 후보명단

南北 200명씩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달 2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 후보자 각 2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 후보자는 70대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령자는 91세 박권석 할아버지였다. 북측 후보자 명단에는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누나 옥희(76)씨가 포함돼 있다. 남측 후보자는 8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90세 이상도 10명이나 됐다. 최종 상봉자 명단은 18일 확정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상봉후보자 명단은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ooki.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2004. 3. 18 (목)

남북 이산가족상봉 명단교환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18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갖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100명의 명단을 각각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7일 "우리측은 지난 15일 북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상봉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결과 회보서를 바탕으로 100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며 "내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한 뒤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 이산상봉 명단 교환

29일부터 금강산서 만나

남북 적십자사는 18일 판문점에서 연락관접촉을 갖고 9차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최종명단을 교환했다. 남북 각 100명의 상봉대상자는 29일부터 금강산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양쪽의 가족 5명씩을 만나게 된다.

이산가족상봉행사 세부 일정은 다음주 중 연락관 접촉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상원기자ornot@hk.co.kr ※상봉대상자 전체 명단은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kooki.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29일 오후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총재 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은 오전 9시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12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낮 1시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한다.

숙소에 여장을 푼 남측 방문단은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단체상봉장인 김정숙휴양소로 이동, 두 시

간 동안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갖는 등 네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해후한다. 이번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김옥준 할머니(96)는 먼저 세상을 뜬 딸 대신 손자 김진명(38)씨와 손자며느리 서명복(37)씨를 만난다.

또 당초 방문단에 포함됐던 이산가족들이 방북을 포기해 뒤늦게 방문단에 긴 이희철(86) 할아버지는 북측의 딸 리은숙(57)씨를, 김정보(82) 할아버지는 아들 관용(63), 건용(59)씨와 딸 순복(56)씨를 만나 그동안 미뤄뒀던 가족의 정을 나눈다.

/속초=연합 공동취재단

문화일보



오늘 금강산서 이산상봉 휠체어에 몸을 실은 한 장애인이 29일 9차 남북 이산가족상봉참석을 위해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속초=이정훈기자 jhlee72@



다시 만난 쌍둥이형제

29일 금강산 북측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9차 남북 이산가족 첫날 공동만찬 도중 남측 이현성씨(왼쪽)가 북측의 쌍둥이 형인 송성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33년만에 형제 꿈같은 재회

남측 100명 금강산서 9차 이산상봉 첫밤

1971년 서독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보사부 노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입북한 유성근씨(71)가 29일 금강산 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측의 형제들과 33년 만에 감격의 재회를 했다.

유씨는 당시 본국 귀환 하루를 남기고 한국에 있던 부인 및 두딸과 함께 동베를린 여행을 하던 중 사라졌다가 몇달뒤 북한 방송을 통해 입북사실이 알려졌다. 당국은 유씨 일가족이 자진 입북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납북된 것으로 결론내렸었다.

유씨는 그러나 이날 피랍 또는 입북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다.

그는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장에서 형 참근씨(75)를 만나 “형님 좀 진정하세요. 나도 형님에게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하시죠”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상봉에서는 또 87년 1월15일 납북된 동진27호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중 한사람인 양용식씨(47)도 남측의 아버지 양태형씨(78)를 만났다. 용

식씨는 손주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한동안 “아버지”라는 말만 되뇌며 말을 잊지 못했다.

국군포로인 형 이종욱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씨가 지난 1월 사망해 이날 형수 문영숙씨(66)와 조카 리철호씨(45)를 만난 이종득씨(66)는 조카에게 “네가 잠손이다”라며 건강히 살 것을 당부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은 이날 두 시간 동안의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갖고 상봉 첫날 밤을 보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반세기 만에 꺼안은 혈육

금강산=연합

29일 금강산의 북측 숙소인 김정숙휴게소에서 시작된 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측 허송월씨(오른쪽)가 북측에서 온 친동생들을 반세기 만에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해 9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A27면에 관련기사

이산가족 1진 금강산 상봉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1진으로 참여한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29일 동진27호 남북 어부를 포함해 1971년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던 독일 파견 노동부 노무관 등 품에 그리던 북측 가족 236명과 만났다.

이날 김정숙휴양소에서 상봉에서는 유창근(75)씨가 동부의 독일 파견 노무관의 가족과 함께 사라진 동생 유성근(71)

씨를 만나 오열했다.

성근씨는 귀국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에 있던 부인과 딸을 초청해 여행을 하던 중 동베를린행 기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간 뒤 고시에 합격해 온 집안의 기대를 모았던 성근씨는 "형님에게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하자"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창근씨를 달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유창근-성근씨 형제 35년만에 이산상봉

“암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뉘 보려고 이 악물고 견뎌”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29일 금강산에서 열린 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측의 유창근씨(왼쪽)가 1971년 독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동생 성근씨(오른쪽)를 35년 만에 만났다. 이들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혈육의 정을 되새겼다.

29일 금강산의 북측 숙소인 김정숙휴게소에서 시작된 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유창근(74), 종근씨(62) 형제는 독일에서 실종된 성근씨(71)를 35년 만에 만나 와락 부둥켜안았다.

“그냥 다 죽은 줄만 알았어.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창근씨)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형.”(성근씨)

성근씨는 독일(서독) 본 대사관에서 노동부 파견 노무관으로 일하던 1971년 베를린 부근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부인, 딸과 함께 실종됐다. 정부방침에 따라 성근씨 혼자 69년 독일로 부임했고, 부인과 딸은 성근씨의 귀국을 1개월 앞둔 71년 독일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성근씨가 (동독지역인) 동베를린행 열차를 탄 것 같다”는 목격자가 나오면서 한때 자진 입북설이 나왔지만 뚜렷한 입북동기가 없어서 남북사건으로 종결됐다.

형 창근씨는 취재를 위해 모여든 남북의 기자에게 “고향(충남 연기군)에서 이름난 수재였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동생이 뭐가 아쉬워서 북한으로 갔겠느냐”고 되물었다.

남측에서 온 두 형제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자 성근씨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좋은 날 왜 우시느냐”고 말했다.

한국대사관을 떠날 당시 여덟살짜리 꼬흘리개 꼬마였던 성근씨의 딸 정희씨(41)였다. 이에 창근씨 가족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성근씨는 “형님, 좀 진정하세요.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합시다”라며 형제들을 달랬다.

그는 입북 후 통일연구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은퇴했다고 말했다. 성근씨의 아내는 가정주부로 지내다 2002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씨는 “암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형님 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면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자”고 말했다.

그러나 성근씨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문제를 위해 봉사하겠다. 대학생 시절에도 한민족의 예측현상 때문에 민족자주사상에 많이 흥분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봉에서는 87년 1월 남북된 '동진 27호' 선원 12명 중 한 명인 양용식씨(47)가 남측의 아버지 양태형씨(78)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이날부터 시작된 첫 행사에선 남측 가족 126명이 북측 가족을 만났다.

금강산=유재동기자, jarrell@donga.com

공동취재단



17년만에 만난 北아들 가족

남북된 동진호 선원 양용식씨(오른쪽)의 아버지 양태형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9일 북한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아들 가족과 상봉하고 있다. 금강산=맹

87년 남북 동진호선원 아버지 재회

9차 이산가족 상봉... 독일서 실종 유성근씨 형제 만나

제9차 남북 이산가족 1진 상봉 행사가 열린 29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33년 만의 형제 상봉이 이뤄졌다. 1971년 독일에서 남측 대사관 노무관으로 근무하다 본국 귀환 한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북측으로 사라진 유성근(71)씨는 형 창근(75)씨와 동생 종근(62)씨를 만나 오열했다. 종근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실신하기까지 했다.

고향인 충남 연기군에서 소문난 수재였던 성근씨는 압북 과정 등 자신의 인생역정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하자"며 말을 아꼈으나 자신이 북으로 간 뒤 부모님이 화병을 앓다 20여년 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혹시나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동생 종근씨는 "암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형님 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 남았다"며 33년 만에 형을 다시 만

난 기쁨을 표시했다. 성근씨는 입북 후 통일연구소에서 20여년간 줄곧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7년 1월15일 남북된 '동진27호'에 타고 있던 12명 선원 중 한 사람인 양용식(47)씨도 남측의 아버지 양태형(78) 할아버지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남측에서 온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7명은 이날 두 시간 동안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환영 만찬을 갖고 해금강호텔로 이동, 반세기 만의 상봉으로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상봉 첫날 밤을 보냈다. 1진은 31일까지 상봉 행사를 가지며, 2진 100가족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봉 행사를 갖는다.

김지방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납북선원 양용식씨 목메인 “아버지...”

금강산서 9차 이산가족상봉

29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제9차 이산가족상봉' 단체상봉에서 유창근(75)씨는 1971년 독일에서 노무관으로 일하다 본국 귀환을 한달 앞두고 사라졌던 동생 성근(71)씨를 만나 오열했다.

못다한 사연에 눈물만

성근씨는 충남 연기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수재로 서울대 사회

학과 입학 뒤 고시까지 합격해 노동부에서 근무하다 독일 주재관으로 나갔다.

한국에 있던 부인과 딸을 초청, 여행 중 성근씨 가족이 동베를린행 기차를 탄 것으로 알려지자 입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북한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남북으로 결론난 상태다.

성근씨는 자신의 인생역정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 “형님 진정하세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하지요”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형 창근씨를 달랬다.

이날 상봉에서는 87년 1월15일 납북된 '동진 27호'에 타고 있던 12명 선원 중 한 사람인

양용식(47)씨도 남측의 아버지 양태형(78)씨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용식씨는 건강하게 자란 두 손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한동안 “아버지”만을 되뇌며 말을 잊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처음 본 며느리에 “고맙다”

용식씨는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 계셔서 너무 좋다”며 “혹시 돌아가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하자 양씨는 “어디서 살든 몸만 건강하면 된다. 통일될 때까지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또 며느리 도애숙(38)씨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곱고 예쁜 며느리가 북쪽에 있었구나. 너도 너무나 고맙다. 애들 낳고 잘 살아줘서...”라며 생전 처음 본 며느리의 손을 놓지 못했다.

국군포로인 형 종옥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작년 1월 이미 사망해 이날 상봉에서 형수 문영숙(66)씨와 조카 리철호(45)씨를 만난 이종득(66)씨는 조카에게 “네가 장손이다”라며 건강히 살 것을 당부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은 이날 두 시간 동안의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갖고 해금강호텔로 이동, 반세기 만의 상봉으로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상봉 첫날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東亞日報

2004. 3. 31 (수)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北손녀들에게 뽀뽀 받아

1987년 동진 27호 선원으로 납북된 아들 양용식씨를 만나기 위해 금강산의 9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석한 남측 양태형씨가 30일 김정숙 휴양소에서 북한의 손녀들로부터 뽀뽀 받고 흐뭇해 하고 있다.

‘짧은 만남 긴 이별’ 이젠 바뀌야

한겨레

2004. 3. 31 (수)



할아버지와 손녀 오붓한 상봉 제9차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인 30일 오후 금강산의 김정숙휴양소에서 77회 생일을 앞두고 생일상을 미리 받은 양태형 할아버지가 북의 손녀 은애양에게 뽀뽀를 하고 있다. 금강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제9차 이산상봉 남측 방문단 1진 100명이 어제 속초로 돌아왔다. 이어 남측 방문단 2진이 오늘 금강산으로 간다.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경협 실무회의 등 각종 남북회담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사정에 비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산상봉 합의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심정으로 남북에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남측 방문단 중 96세의 최고령 할머니는 생면부지의 외손자로부터 셋째딸이 2년전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2년만 빨리 왔으면..." 하며 통한의 눈물을 뿌렸다. 남측의 경우 북측 가족과의 만남을 신청한 이산가족 12만여명 중 이미 2만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들도 80% 이상이 70세를 넘어서 실정이다.

한번에 100명 정도 만나는 현 추세라면 태반이 통한을 풀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래선 안 된다. 온 지구촌이 한 가족안문명의 시대에 이념과 체제가 혈육을 갈라놓은 야만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 남북은 우선 지난해 합의한 금강산 면회소 건설 사업에 가속도를 더해야 한다. 특히 남북 당국 모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발상의 전환을 하기 바란다. 북측은 이산상봉이 체제 불안 을 야기할 것이라 가설을 펼쳐버려야 할 것이다. 최근 4년간 공식적으로만 9차례에 걸쳐 모두 8000여명이 만나고, 1만 2000여명이 생사를 확인하거나 서신을 교환했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이제 북한 당국도 이산상봉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으며, 남한 당국은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재결합 등의 해결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작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남측 가족들이 31일 금강산을 떠나는 버스안에서 북측 가족들에게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또다시 이별

31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김창준(오른쪽)씨가 북에 남는 세 동생의 손을 잡은 채 기막없는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은 이날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입마당에서 북측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육로를 통해 귀환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世界日報

2004. 4. 2 (금)



白壽의 모친 상봉

제9차 남북이산가족 2진 상봉 첫날인 1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아들 최종훈(71)씨가 남측의 어머니(99)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서상배기자

서울신문

2004. 4. 2 (금)



99세 어머니...

1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열린 제9차 이산가족 2진 상봉 행사에서 남측의 조모(99) 할머니가 반세기 만에 만난 북측의 아들 최종훈(71)씨에 안긴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北, 이산상봉 행사 일방취소

어제 오후 “南인사가 北 비난” 공식사과 요구 2000년 이후 첫 행사무산... 오늘 일정 불투명

2일 오후로 예정됐던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부가 남측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삼은 북측의 사과 요구로 무산됐다. 이산가족 행사의 공식 상봉 일정 일부가 무산된 것은 2000년 8월 15

일 1차 상봉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3일 오전으로 예정된 작별상봉 행사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찬을 함께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후 3시반부터 삼일포 관광 상봉을 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일정 취소는 양측 행사 요원들이 김정숙휴양소에서 오찬을 하던 중 남측 관계자가 북측 최고지도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남측은 2차례의 연락관 접촉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행사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행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북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측 이산가족들은 삼일포행 출발을 기다리며 온정각휴게소 앞에 주차된 버스 등에서 2시간여 동안 대기해야 했다.

남측 행사당국은 오후 5시20분경 안내방송을 통해 “남북 접촉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남측 가족들은 온정각휴게소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7시15분경 숙소인 해금강호텔로 돌아갔다.

김승권기자 skim@donga.com

朝鮮日報

2004. 4. 3 (토)



2일 오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한의 취소로 무산되자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에 있던 남측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 상봉단 관광일정 취소

北, 김정일위원장 관련 남측 발언 문제삼아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도중, 2일 북측이 우리측 관계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삼일포를 참관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00년 8월 15일 이산가족 행사 도중 공식 일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이날 낮 북한 이산가족 100명과 남측의 가족·친척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도중, 우리측 행사 관계자가 바위에 새겨진 ‘천출장군 김정일’이란 글귀를 보고 “남측에서는 천출(天出)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북측 관계자들이 ‘최고지도부에 대한 폄하’라고 문제 삼으면서 시작

됐다.

북측은 이 발언 직후 우리측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삼일포 참관 등 오후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측은 두 차례 연락관 접촉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행사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했으나 북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측의 사과만 계속 요구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열릴 남북 이산가족들의 작별상봉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은 6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제13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서명, 교환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울

(끝)

한적, 9차 이산가족 후보자 300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10일 서울 명동 본사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3월말 열릴 제9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30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00명은 남자 206명, 여자 94명이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171명(57%), 70대 107명(35.6%), 60대가 22명(7.4%) 순이었다.

부부와 부모, 자식 상봉 후보자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빠와 언니, 동생 등 형제자매를 만나려는 후보자는 87명이다.

후보자의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85명과 8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인천 32명, 부산 22명, 강원 20명 순이었다.

또 후보자 출신지역은 황해도 89명, 평남 52명, 평북 31명, 함남 43명, 함북 12명, 경기 13명, 강원 4명, 기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병웅 한적 총재특보는 "오늘 추첨된 후보자 300명 중 신체검사와 상봉희망 여부 확인 등의 실사과정을 거쳐 200명을 선발한 뒤 이달 하순 200명 명단과 이들이 찾으려는 재북가족(1인당 5~6명)을 포함해 1천여명의 생사주소 확인을 북측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남측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잘 돼있어 생사확인에 어려움이 없지만 북측에서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남북이 서로 생사주소를 확인하는데 2~3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주 중으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9차 이산가족 상봉날짜를 확정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일단 우리측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북측이 답변을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적은 이날 컴퓨터 추천에 앞서 가진 인선위원회(위원장 이병웅 총재특보)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약 6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삼촌.이모 등의 순으로 9차 이산가족 후보자 선정 기준을 정했다.

chsy@yna.co.kr

(끝)

한적, 내달 20~25일 9차 이산상봉 제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3월 20~25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10일 북측에 제의했다.

한적은 이윤구 총재 명의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적은 또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이달 20일 교환하고 판문점 연락관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

chsy@yna.co.kr

(끝)

북, 3월 29일 금강산서 9차 이산상봉 제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12일 수정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장재언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제의했다고 한적이 밝혔다.

한적은 10일 9차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20~25일로 제의했었다.

chsy@yna.co.kr

(끝)

내달 29일 금강산서 제9차 이산상봉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 제안대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13일 북측에 통보했다.

한적은 이날 이윤구 총재 명의로 장재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내달 15일 생사확인 회보서, 내달 18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한적은 앞서 9차 상봉을 내달 20~25일로 제의했으나 북측은 3월 29일로 수정 제의했다.

한적은 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최종 계획 설계를 북측에 통보하고, 면회소 부지 측량 및 지질 조사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술실무협의를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chsy@yna.co.kr

(끝)

<이산가족상봉 숙소해결 비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장용훈기자 =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들과 상봉하는 남측 가족들에게 숙소로 이용돼온 현대 설봉호가 지난달 말 금강산 해로 운항을 중단, 속초항에서 철수함에 따라 오는 3월20일로 예정된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속초~장전항간 금강산 해로관광에 투입됐던 설봉호는 이산가족 상봉시 보통 4백50여명 규모의 남측 상봉단중 1/4 정도를 투숙시켜왔기 때문에 당장 그만큼의 숙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5일 "설봉호 철수로 이산가족들의 숙소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때문에 상봉 행사를 못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검토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지의 해금강호텔과 현대아산이 이 호텔 앞에 건설 중인 펜션을 이용하는 것.

해금강호텔의 최대 수용인원은 400명이고, 펜션 34개동의 수용인원은 최대 260명이다.

한적 관계자는 "펜션 건설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어 숙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적 등은 숙소 문제와 함께 경비 문제를 감안, 상봉행사 지원인원과 취재단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숙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경비 절약을 위해서도 불요불급한 인원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이산가족 100명시 지원 인원 50명, 이산가족 500명시 지원 인원 80명을 구성해왔으며 취재진은 30명이다.

한편 북측의 경우도 이산가족 상봉장소인 금강산여관이 현재 수리 중이어서 숙소 문제 때문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금강산 여관을 수리한다며 숙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6차 상봉 때 김정숙휴양소를 숙소및 상봉 장소로 이용했고, 일부 북측 지원 인원들은 인근 민간인 집을 숙소로 이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산가족 만남이 숙소 문제로 비상은 걸렸지만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hsy@yna.co.kr

jyh@yna.co.kr

(끝)

한적, 9차 이산가족 후보자 200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19일 북측에 생사 확인을 의뢰할 제9차 이산가족 상봉(3.29~4.3) 후보자 200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0명 중 남자는 135명(67.5%), 여자 65명(32.5%)이며 연령별로는 80대가 90명(45%), 70대 77명(38.5%), 60대 23명(11.5%), 90세 이상이 10명(5%) 순이었다.

부부와 부모, 자식 상봉 후보자는 140명(70%)이고 형제자매 상봉 후보자는 60명(30%)이다.

후보자의 거주지역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55명과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2명, 부산 15명, 충남 10명 순이었으며, 후보자의 출신지역은 황해도 55명, 평남 35명, 함남 25명, 평북 18명, 경기 9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적 관계자는 "200명 후보자는 지난 10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했던 300명 후보자 가운데 신체검사와 본인의 상봉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80세 이상 고령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삼촌.이모 등의 순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 중으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200명 후보자 명단을 북측과 교환하려고 한다"며 "상봉날짜가 3월 말이어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9차 이산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교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2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이 전달해온 후보자 명단 중 최고령자는 91세의 박권석 할아버지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181명(90.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명(7%), 80세 이상이 5명(2.5%)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53명, 여자 47명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7명, 전남 21명, 서울·강원·충남이 각각 17명, 충북 16명, 경남 13명, 제주 3명, 인천 2명, 함남·대구·일본이 각각 1명이었다.

특히 북측 후보자 명단에는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누나인 옥희(76)씨가 포함됐으며 김 전 수석부의장은 2002년 5월 4차 이산가족 상봉 때도 형인 성하씨를 만났었다.

또 북측이 보내온 후보자 명단에는 8차 이산가족 상봉 때 이미 남측 가족을 확인했던 재북 이산가족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남측이 북측에 전달한 상봉 후보자 200명은 남자 137명, 여자 63명으로 연령별로는 80대가 9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77명(38.5%), 60대 23명(11.5%), 90세 이상이 10명(5%) 순이었다.

남측 후보자의 출신지역은 황해도 58명, 평남 34명, 함남 24명, 평북 17명, 경기 7명 등이었으며, 후보자의 거주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55명과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2명, 부산 15명, 강원 13명, 충남 10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한적은 이날 북측 후보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작업에 들어갔다.

chsy@yna.co.kr

(끝)

“2주가 50년이 될 줄이야 ..” <김민하 前평통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주면 온다더니..50년이 될 줄이야.."

북측 적십자사가 28일 보내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중 누나 옥희(76)씨가 남측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접한 김민하(70) 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낭보에 즉각 항공편을 취소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발길을 재촉했다.

부인과 함께 일본에 살고 있는 큰 형 재하(80)씨를 방문하던 길이었지만 적십자사의 연락을 못받아 취소될까 하는 마음에서다.

김 전 부의장은 재작년 5월 북한에 있는 형 성하(77)씨와 반세기만의 혈육의 정을 나눈 바 있어 또다시 누나가 남측 가족을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시 성하 형을 통해 옥희 누나 소식을 전해 들은 터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누나를 보고픈 싶은 마음 만은 간직하고 있었지요"

김 전 부의장은 모두 10남매로 둘째 성하, 셋째 옥희, 넷째 창하씨 등 3남매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월북한 채 반세기를 살아왔다.

전쟁이 터지자 경북 상주에 살고 있던 김 전 부의장 가족은 어느 가족처럼 남쪽으로 피난을 하러 갔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양조장이던 그의 집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대구여고 교편을 잡고 있던 옥희씨는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 끌려갔다.

"당시 인민군이 무슨 교육인가한다면서 2주 뒤 누나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며 안동으로 데리고 갔지요. 하지만 그 2주가 반세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 전 부의장은 누나 옥희씨를 찾아 안동과 괴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어머니는 무속인에게까지 물어보면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허사였고 때마침 연합군의 북진으로 인민군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북으로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죽은 줄만 알았지요"

이렇게 50년의 세월을 지낸 김 전 부의장은 재작년 둘째형 성하씨와 상봉을 통해 "옥희가 모스크바에 유학한 뒤 조선중앙통신 기자생활을 하다 현재 시골에 내려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옥희씨는 전쟁 직전 오빠 성하씨 친구인 의대졸업생과 결혼했지만 전쟁이 터지자 남편은 국군 군의관으로 징집되고 자신은 북으로 가면서 뜻하지 않은 생이별을 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형에 이어 누나까지 만날 수 있다니 기쁘지만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죄송한 따름입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김 전부의장의 눈가엔 어느덧 이슬이 맺혀 있었다.

honeybee@yna.co.kr

(끝)

 **연합뉴스** 2004. 3. 5 (금)

〈이산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저조〉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가 제9차 이산가족 상봉(3.29~4.3) 북측 후보자 200명의 재남가족 생사확인이 저조해 고민하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5일 "신문들에 후보자 명단이 실리지 않은 탓인지 예전에 비해 생사확인이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달 중순께 북측과 200명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약 절반인원이 확인이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적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북측과 교환한 이후 현재까지 북측 후보자의 재남가족이 확인된 것은 110여명 안팎, 그중 86명은 기존에 확인이 된 상태이고 새로 확인된 인원은 20여명 정도다.

새로 확인된 경우도 후보자 가족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명단을 보고 연락을 해온 것보다는 한적에서 기존의 등록정보를 통해 확인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

한적은 이에 따라 나머지 인원의 생사확인을 위해 다음 주부터 각 지사별로 북측이 보내온 출신지역 주소를 토대로 이산가족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통해 홍보활동도 다그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이산가족 후보자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명단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라도 9차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신문과 방송이 북측 명단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적십자사는 15일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 회보서를, 18일께 최종 상봉자 100명 명단을 각각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hsy@yna.co.kr

(끝)

남북, 내일 이산상봉후보 생사확인결과 교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 적십자사는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3.29~4.3)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각 200명의 생사주소 확인결과 회보서를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 관계자는 14일 "북측이 의뢰해온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91명의 재남가족 생사 여부와 주소를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회보서를 내일 북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또 "남측 상봉 후보자 200명이 찾고 있는 북측 가족들의 생사주소 결과를 받는대로 최종 100명의 방문단 명단을 확정해 18일 북측과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남북, 상봉후보자 생사주소확인서 교환

"탄핵정국에도 9차 이산상봉 예정대로"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남북한 양측 적십자사는 탄핵정국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각 200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 회보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북측이 의뢰한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91명의 재남가족 생사를 확인했으며, 이 중 182명의 가족이 생존해 상봉이 가능한 상태라고 통보했다.

북측 후보자 200명은 남측 가족.친척 1천359명에 대해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1천231명의 생사가 확인됐고 우리측의 노력으로 286명이 추가돼 총 1천517명의 생사가 확인됐다.

북측 후보자의 생사확인 의뢰자 중 생존자는 1천80명이었으며, 생존자의 가족관계는 형제자매 655명, 삼촌 이상 380명, 자녀 26명, 배우자 8명, 부모 7명, 손자 4명 순이었다.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수는 128명이었다.

남측은 이와 함께 7차와 8차 의뢰자 중 추가 확인된 2명도 이번 회보서에 포함해 북측에 통보했다.

반면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200명 중 142명의 재북가족 생사를 확인했으며, 이중 사망자 등을 제외하면 104명의 가족에 대해 상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남측 후보자 200명은 북측 가족.친척 874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했으나 이 중 510명의 생사가 확인됐고 북측이 추가한 115명을 포함해 총 625명의 생사가 확인됐다.

남측 후보자의 생사확인 의뢰자 중 생존자는 295명으로 형제자매 128명, 삼촌 이상 123명, 자녀 34명, 손자 9명, 배우자 1명 순이었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수는 364명으로 남측의 확인불능자의 거의 3배에 달했다.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이번 확인 결과를 토대로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을 확정해 오는 18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은 북측에서 보내온 회보서를 토대로 직계가족과 고령자를 우선하는 인선기준에 따라 선정될 것"이라며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3월 29일부터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을, 4월 1일부터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을 2박3일씩 금강산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편 남측 상봉단 단장에는 이윤구 한적 총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chsy@yna.co.kr

(끝)

남북, 9차 이산상봉 최종명단 교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남북한 적십자사는 18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3.29~4.3)에 참가할 각각 100명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최고령자는 김옥준(96) 할머니로 북측의 손자와 손자며느리를 만나게 되며, 북측 최고령자는 박권석(91) 할아버지로 남측에 있는 자녀 및 손자녀와 상봉하게 된다.

당초 지난달 28일 북측이 의뢰해온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에는 인민당 당수를 지낸 몽양 려운형씨의 조카 려운구(71)씨, 유명 탤런트 김무생씨의 외삼촌인 장경수(79)씨,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누나 김옥희(76)씨가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남측 상봉단 100명은 연령별로 ▲80대 48명 ▲70대 40명 ▲60대 7명 ▲90대 5명이다. 남측 상봉단 가운데 북측의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는 가족은 21명, 형제자매를 만나는 가족이 57명이며, 나머지는 삼촌 이상의 친척과 만나게 된다.

북측 상봉단 100명은 ▲70대 92명 ▲60대 5명 ▲80대 3명 순이며, 이 중 16명은 부모.배우자.자녀를, 80명은 형제자매를, 3명은 삼촌 이상 친척을 상봉하게 된다.

chsy@yna.co.kr

(끝)

외환銀 '방북 임시 특별환전소' 설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외환은행은 26일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방문단 일행의 여행경비 환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과 31일, 각각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속초 한화리조트 5동 1층 로비에서 임시 특별환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방문단 일행은 별도로 은행을 방문해 환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부가 지정한 집결 장소인 한화리조트 내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환전금액에 관계없이 30%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하고 환전시 소액권과 신권 위주로 교환해 줄 예정이다.

이산가족들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 증명서'나 대한적십자사의 '안내장'만 제시하면 미화 1천 달러까지 방북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다.

rhd@yonhapnews.co.kr

(끝)

29일부터 금강산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대한적십자사는 26일 "이번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내달 1일부터 만나게 될 재남가족의 명단을 갖고 서울에서 출발, 금강산으로 떠났다"며 "탄핵정국 이후 남북간 접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치러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9월 하순 이후 6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상봉 1진 단장은 이병웅 한적 총재 특보가, 2진 단장은 우봉제 한적 경기지사 회장이 각각 맡게 된다.

당초 상봉 1진 단장은 이윤구 한적 총재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북측 상봉단장과 격을 맞춰 교체했으며 이 총재는 29일부터 1박2일간 별도로 금강산을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둘러본다.

이번 상봉에 참가하는 남북 양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29일부터 1진과 2진으로 나눠 6차례 11시간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이산가족 100명과 지원요원 및 취재단 등 남측 상봉단 1진 181명은 28일 오후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로 집결해 방북 안내교육을 받은 뒤 29일 육로로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부터 상봉에 들어간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첫 일정으로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 및 동석만찬 등 4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을 만나며, 30일에는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에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공동중식을 한 뒤 삼일포를 함께 참관한다.

31일 오전에는 김정숙휴양소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통해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달랜 뒤 오후 1시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돌아온다.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게 될 남측 이산가족 494명과 지원요원 및 취재단 111명으로 구성된 상봉 2진은 31일 속초에 집결, 상봉 첫날인 내달 1일 장소만 남측지역인 온정각휴게소로 바꿔 단체상봉과 동석만찬을 가진다.

상봉 이틀째인 내달 2일에는 해금강호텔과 펜션에서 개별상봉에 이어 중식 및 삼일포 참관을 함께 하며 3일 온정각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chsy@yna.co.kr

(끝)

한적총재 “365일 내내 상봉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이제는 일년에 한두차례 만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연회소가 건설돼 365일동안 내내 상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윤구(李潤求)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8일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3.29~4.3) 참관에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산가족들이 반세기만에 만나는데 밥 한 두끼 먹고 헤어지는 것은 적십자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상봉이 금강산 뿐아니라 각자의 고향에서도 이뤄져야 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재회에 그치지 않고 재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북측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만나 생사확인이나 하고 명단이나 교환해서 하루이를 만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는 되지만 적십자정신과 민족의 이익의 측면에서 북측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남북 적십자사가 민족을 위해 힘을 합쳐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남측 100명 상봉단이 만날 재북가족 중에는 6.25전쟁 때 헤어진 소학교 동창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 총재는 대북 지원과 관련,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방북때 15억~20억원 어치의 의약품을 트럭 20대에 싣고 육로를 통해 북한의 조선적십자사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개성시에 필요한 의약품은 전부 국제적십자 연맹(IFRC)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을 취임이후 처음 알고 '같은 동포인 우리는 원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양심에 찔렸다"며 "이제부터라도 북한 주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보내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chsy@yna.co.kr

(끝)

-금강산상봉- 상봉1진 내일 육로로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총재 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반세기만에 북측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29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번 상봉행사는 작년 9월 추석을 즈음해 상봉을 가진 이후 6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산가족 100명과 80세 이상 고령 및 거동불편 이산가족의 동반가족 47명, 지원인원 51명, 취재단 30명 등 총 22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문단에는 북측의 가족을 만나기로 선정됐던 이산가족 일부가 상봉을 포기해 이희철 할아버지(86)는 북측의 딸 리은숙(57)씨를, 김경보(82) 할아버지는 아들 관용(63),건용(59)씨와 딸 순복(56)씨를 만나는 행운을 잡았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28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 집결해 방북 교육을 받았다.

상봉단중 최고령으로 꿈에도 그리던 딸 대신 손자와 손주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김옥준 할머니(96)는 "딸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그 아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의 아들에게 피해라도 같까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적어넣지 않아 이번에 언니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김희준 할머니(82)는 "북측의 혈육을 만날 생각을 하면 잠도 못자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아들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북측의 형제를 만나는 박순애 할머니(67)의 동반가족으로 이번 상봉에 참가한 이재성 할아버지(75)는 "결혼한 뒤로 장인과 장모를 1년도 채 보지 못해 항상 죄스러웠다"며 "이번에 처남과 처제라도 보게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남측 상봉단은 29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12대에 분승, 오전 11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낮 1시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북측의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동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적의 이윤구 총재는 이번 방문에 동행해 29일부터 1박2일간 별도로 금강산을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끝)

〈상봉 앞둔 이산가족 설렘속 속초집결〉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28일 오후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시 설악한화리조트에 속속 도착해 등록을 마친 뒤 꿈에도 그리던 상봉을 앞두고 휴식에 들어갔다.

이산가족 방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리조트 1층 로비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도착사실을 알리고 상봉행사와 관련해 세세한 안내를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영동 북지구협의회 소속 회원 180여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속초 고속버스터미널과 양양 국제공항에서 승용차 편으로 이산가족 상봉단을 집결지인 한화리조트로 이동시켰다.

한적은 특히 접수대에서 이산가족 상봉단이 북한 가족에게 주려고 준비해온 선물을 접수받아 인식표를 붙이고, 선물의 포장을 풀어 가방의 부피를 줄여주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단은 대개 한 가족당 대형 여행가방 1~2개 분량의 선물을 준비했으며 선물은 의류, 화장품, 시계, 과자, 우황청심환과 같은 간단한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적 관계자가 귀띔했다.

방문단의 최찬섭(81)씨는 20년이 훨씬 지난 구형카메라를 선물로 준비,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 동생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이산가족은 북측 가족에게 주기위해 1층 로비의 임시환전소에서 달러를 사기도 했다.

김경보(82)씨를 모시고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한 자녀는 "몇십년 동안 북에 두고 온 자녀들을 만나시길 고대하셨는데 잘됐다"며 "오시기 며칠전부터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적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 7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혈압·당뇨 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이산상봉 행사에는 적십자병원 소속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동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상당수가 팔순 이상의 고령자여서 고혈압, 협심증, 관절염 등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가족중 10여명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

등록을 마친 이산가족은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한화리조트 5동 7층의 크리스탈 룸에서 상봉행사 절차와 방북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방북설명회에 참석했다.

(끝)

-금강산상봉- 오늘 금강산서 가족 상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29일 오후 김정숙 휴양소에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총재 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은 오전 9시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서 현대야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12대에 나눠타고 오전 11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낮 1시께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에 도착한다.

숙소에 여장을 풀 남측 방문단은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단체상봉장인 김정숙 휴양소로 이동, 두 시간 동안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갖는 등 네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해후한다.

이번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김옥준 할머니(96)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대신 손자 김진영(38)씨와 손자며느리 서명복(37)씨를 만난다.

또 당초 방문단에 포함됐던 이산가족들이 방북을 포기해 뒤늦게 방문단에 끼인 이희철(86) 할아버지는 북측의 딸 리은숙(57)씨를, 김경보(82) 할아버지는 아들 관용(63).건용(59)씨와 딸 순복(56)씨를 만나 그동안 미뤄 왔던 가족의 정을 나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단에 포함된 박순애(67), 유선예(68) 할머니의 남편 이재성(75), 채상규(75)씨는 동반가족으로 이번 방문에 동행, 실향민으로서 이산의 아픔을 달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적의 이윤구 총재는 이번 방문에 동행해 29일부터 1박2일간 별도로 금강산을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둘러볼 예정이다.

(끝)

“개별상봉자라도 상봉대상서 제외 안 해”〈한적〉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운구)는 29일 개별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 가족을 만난 실향민을 이산상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재북가족을 만난 실향민도 이산가족 상봉대상자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적은 "상봉 후보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10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근친 위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상봉대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이 고려되거나 인위적으로 취사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적은 "개별적으로 재북가족을 만난 실향민이 상봉후보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구체적 실례로 지난해 9월 제8차 이산상봉 때 기왕의 개별상봉자가 상봉후보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chsy@yna.co.kr

(끝)



<금강산상봉> 18년만에 아버지 만난 납북어부의 눈물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디 살든 건강해야 한다."

29일 이산가족 상봉장인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양태형(77.인천 부평구)씨는 아들 용식(47)씨의 얼굴을 부여잡고 18년 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용식씨 역시 비록 자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지 못한 불효에 대한 통한의 눈물만 흘리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18년 세월은 야속하기만 했다. 꿈는 피를 주체 못했던 젊은 아들을 중년으로 만들었고, 단단한 강골의 아버지는 80을 바라보는 구부정한 노인으로 바꿔놓았다.

북받쳐 오르는 그리움과 반가움에 눈물 그렁그렁한 채 한참을 아들의 얼굴만 쓸어안고 보듬던 양씨는 그제야 곁에 있던 며느리 도애숙(38)씨와 손자 평애(13), 은애(10)의 손을 꼭 쥐었다.

양씨는 "이렇게 곱고 예쁜 며느리와 손자들이 북쪽에 있었구나. 너도 너무나 고맙다. 애들 낳고 잘 살아줘서..."라며 생전 처음 본 며느리와 손자의 손을 놓지 못했다.

용식씨는 지난 87년 1월 15일 납북된 '동진 27호'에 타고 있던 12명 선원 중 한 사람.

당시 29살 청년 용식씨는 고향 인천을 떠나 여수에서 동진 27호에 올라 4개월동안 고기를 잡고 있었다.

마침 김만철씨의 일가족이 북한을 떠나 일본과 대만을 전전하다 남측으로 들어오게 됐고 북측이 보복 조치로 백령도에서 조업하던 동진 27호를 납북한 것.

태형씨는 아들이 그렇게 납북됐다는 소식만 바람결에서 듣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그 뒤 이산가족 상봉으로 선장과 기관장이 남쪽 가족들과 만났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양씨는 "4년전 즈음 이북에서 나오는 신문에 네가 '일류 기술자로 모범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다"면서 "너무 반가워 올려놓고서 네 생각날 때마다 몇 번씩 꺼내봤다"며 북쪽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을 대견해했다.

꿈에도 그리던 보고 뵈던 얼굴이기에 두 부자는 눈물을 멈춘 채 음식도 제쳐놓고 이내 얘기꽃을 활짝 피웠다.

용식씨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공부도 잘하고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고, 생전 처음 할아버지를 만난 평애양은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귀염을 떨었다.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단체상봉(종합)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그냥 다 죽은 줄만 알았어",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29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제9차 이산가족상봉' 단체상봉에서 유창근 할아버지(75)는 지난 71년 독일에서 노무관으로 일하다 본국 귀환을 한달 앞두고 사라졌던 동생 성근(71)씨를 만나 오열했다.

성근씨는 충남 연기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수재로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뒤 고시까지 합격해 노동부에서 근무하다 독일 주재관으로 나갔다.

한국에 있던 부인과 딸을 초청, 여행 중 성근씨 가족이 동베를린행 기차를 탄 것으로 알려져 자진 입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북한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남북으로 결론난 상태다.

성근씨는 자신의 인생역정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 "형님 진정하세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차차 하지요"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형 창근씨를 달랬다.

이날 동반가족으로 창근씨와 동행한 넷째 종근씨는 "암에 걸려 죽을 뻔 했는데 형님 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 남았다.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야겠다"며 형 성근씨를 다시 만난 기쁨을 표시했다.

이날 상봉에서는 지난 87년 1월15일 납북된 '동진 27호'에 타고 있던 12명 선원 중 한 사람인 양용식(47)씨도 남측의 아버지 양태형(78) 할아버지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용식씨는 건강하게 자란 두 손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한동안 "아버지"만을 되내며 말을 잇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용식씨는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셔서 너무 좋다"며 "혹시 돌아가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하자 양 할아버지는 "어디서 살든 몸만 건강하면 된다. 통일될 때까지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양 할아버지는 또 며느리 도애숙(38)씨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곱고 예쁜 며느리가 북쪽에 있었구나. 너도 너무나 고맙다. 애들 낳고 잘 살아줘서.."라며 생전 처음 본 며느리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손녀 평애(13)양은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군포로인 형 종욱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작년 1월 이미 사망해 이날 상봉에서 형수 윤영숙(66)씨와 조카 리철호(45)씨를 만난 이종득(66)씨는 조카에게 "네가 장손이다"라며 건강히 살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김옥준(96) 할머니는 생면부지의 외손자 김진영(38)씨를 끌어안고 그리운 셋째 딸 애기부터 묻기 시작했다.

2년 전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에 김 할머니는 "2년만 빨리 왔어도.."를 되뇌면서 손자의 손을 놓지 못했다.

남측 방문단 100명은 이날 두 시간 동안의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환영 만찬을 갖고 해금강호텔로 이동, 반세기만의 상봉으로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상봉 첫날 밤을 보낼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손자얼굴서 딸 모습 찾는 백발노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년만 먼저 왔어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29일 9차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김옥준 할머니(96)는 생면부지의 외손자 김진명(38)씨를 끌어안고 반세기동안 마음에 묻어둔 셋째딸 애기부터 꺼냈다.

그러나 진명씨는 "어머니께서 2년 전 속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 할머니의 표정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외손자를 만난 기쁨이 교차했지만 외손자의 얼굴에서 딸과의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이 떠올랐는지 다시금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외손자 진명씨가 셋째딸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 속에서나마 딸의 체취를 느끼려는 듯 사진을 부여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

김 할머니는 이번 상봉에서 셋째딸 조양순(헤어질 당시 18세)씨를 찾았지만 북측의 사망 통보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외손자라도 붙잡고 딸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김 할머니는 한국전쟁 전 강원 양구군의 한 시골마을에서 콩나물과 떡 장사를 하면서 3남6녀의 자녀를 키워냈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셋째딸 양순씨가 지난 49년 15살 연상의 마을 부호에 시집을 갔던 것. 딸의 효심이 자랑스럽기보다는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다.

할머니가 셋째딸과 헤어진 것은 전쟁 발발 이듬해인 지난 51년 봄.

중공군 개입과 함께 역병까지 퍼져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셋째딸 시집에 얽혀살던 김 할머니의 가족은 인민군에게 '반동'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국군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가족들 중에 오직 양순씨만이 '빨치산' 전력이 있는 시댁 가족들과 함께 북쪽에 남게 됐던 것.

휴전이 될 때까지 수용소에서 생활하다 다시 고향땅을 밟은 김 할머니는 그 후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던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반세기의 세월을 보냈다.

진명씨는 형과 누나 등 3남매지만 이날 함께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김 할머니는 "다음 이산가족찾기에는 꼭 신청을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끝)

〈금강산상봉〉 아내의 가족상봉이 부러운 실향 남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처남과 처제를 만난 것도 큰 기쁨이지만, 오늘따라 제 동생들이 더 그립네요."

29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이뤄진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첫 단체 상봉 행사장에서 동생들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부인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남올래 눈물을 훔치는 남편이 있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번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부인 유선예(68)씨와 동행한 남편 채상규(78)씨.

그도 북측에 부모와 형제를 둔 실향민으로 반 백년 만에 운 좋게 아내를 따라 동반가족으로 북녘 땅을 밟았지만 부모형제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채씨는 결국 북측의 처남 유윤달(65)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고향 형제들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그의 고향은 당시 아내가 살던 황해도 송봉면 운제리에서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다.

그동안 처남은 이사를 했지만 그리 멀리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은 100세가 넘었을 것이고 여동생들, 남동생들이 있지만 다들 나이가 많아 살아있길 기대하기 어렵네."

채씨는 "막내 상신(61)이라도 고향땅에 살고 있길 바란다"면서 "그에게 이 형이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제들의 생존 여부라도 알아봐 달라며 매달리는 매형의 애절한 사연을 뿌리치지 못한 처남 유씨는 "꼭 그렇게 하겠다"며 매형을 달랬고 그제야 채씨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난생 처음 본 처남.처제들에게 기나긴 삶의 여정을 털어놓으며 담소를 나눴다.

부인 덕택에 북측 땅을 밟은 경우는 박순애(71)씨의 동반가족으로 상봉행사에 참여한 실향민 이재성(75)씨도 마찬가지다.

황해도 평산에서 자란 이씨는 20세 때 박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르며 고향을 등졌다.

이씨는 "가족이 모두 남쪽으로 내려와 이산의 고통은 없었지만 실향의 아픔까지 자을 수는 없었다"면서 "고향이 있는 북쪽의 공기만이라도 마시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큰 처제 순희(65)씨에게 "결혼하고 장인.장모를 채 1년도 못 뵈고 살아온게 항상 죄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채씨는 "죽기 전에 이렇게 처남.처제들이라도 보게 돼 이제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끝)

〈금강산상봉〉 남북 유성근씨 33년만에 형제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유창근(74.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씨 가족은 지난 71년 4월15일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다.

4형제 중 둘째로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탄탄대로를 달리던 성근(71)씨가 외국에서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가족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다.

성근씨는 충남 연기군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수재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 고시까지 합격한 자랑스러운 동생. 가족들은 성근씨가 공무원으로 크게 성공해 집안을 빛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난 71년 성근씨가 독일에서 사라진 후 가족들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다. 주 서독 대사관에서 노무관으로 근무하던 성근씨가 귀국 1개월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부인과 딸을 초청해 여행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한동안 성근씨 가족이 동베를린행 기차를 탄 것으로 알려져 자진 입북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사라지기 며칠 전 부모님 앞으로 보낸 편지에 "곧 돌아갈 것"이라고 적고 있었으며 자진입북할 뚜렷한 사유가 없어 납치 사건으로 종결됐다.

갑작스런 헤어짐 속에서 창근씨는 2000년 제1차 이산가족상봉 때부터 성근씨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오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동생을 만나게 됐다. 넷째 종근(62)씨도 동반가족으로 상봉단에 합류하게 됐다.

29일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진행된 제9차 남북이산가족 단체 상봉현장에서 창근씨와 종근씨는 행사장에 들어서며 앉아 있던 성근씨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왔다.

창근씨는 통곡하며 "벌써 35년이 웬 말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종근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잠시 실신,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자리에 앉았다. 3형제는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창근씨는 자리에 앉아 울다 발을 구르며 애통해했다. 형이 오열하는 모습에 성근씨는 "나도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잠시만 진정하시고 차차 이야기하자"며 형을 얼싸안았다.

성근씨는 북한에 가게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형님이 부모님 모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며 "나 때문에 형님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성근씨는 자신이 북으로 간 뒤 부모님이 화병을 앓다 80년대 초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셋째 희근(당시 63)씨도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눈물만 흘렸다.

종근씨는 "희근이 형이 돌아가시면서도 형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냐"며 "나도 암수술까지 받았는데 형 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다"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성근씨는 "지난 30여년간 형과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며 "혹시나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성근씨는 입북 후 통일연구소에 20여년간 줄곧 연구사로 근무했으며 작년 12월 퇴직, 현재 명예연구사로 계속 활동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고, 첫째딸 경희(41)씨는 "여기서도 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민족문제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대학 재학 당시에도 우리 민족의 예속이 많이 심화돼 민족자주 사상에 많이 흥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근씨의 처는 주부로 지내다 재작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딸 경희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아버지 생사라도 알고싶다” <최우영씨>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했던 납북자 가족마다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물어봤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 27호 어로장 최종석(60)씨의 딸인 최우영(34) 납북자가 족협의회장.

그는 29일 동진호 선원 양용식씨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된 아버지 양태형씨를 만난 소식을 듣자 아직까지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최 회장은 "동진호 선원 12명 중 아버지 등 두 사람의 생사 여부만이 아직까지 알려진바 없어 더욱 걱정이 된다"며 "무엇보다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때마다 납북자를 끼워서 생사확인을 요청하면 북측으로부터 대부분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재조사를 북한에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납북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직접 귀환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북한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 해당하는 일본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같은 동포라고 하는 우리는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비전향장기수도 복송되고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남북한 당국도 잘잘못을 떠나 납북자 생사확인 과 귀환사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남북화해와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납북자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남북한은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납북자의 생사 확인 과 귀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sy@yna.co.kr

(끝)

-금강산상봉- 남북이산가족 환영만찬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북측 가족들과 반세기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눴던 제9차 남북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 100명과 재북가족은 이날 밤 북측 주최로 김정숙 휴양소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북측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단장은 연회 연설에서 "50여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그리운 혈육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환영사를 시작했다.

최 단장은 또 "우리 모두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며 "6.15 북남공동선언에 의해 마련된 꿈같은 상봉이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하고 우리민족끼리 리념을 다지는 애국애족의 상봉이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찬 답사에 나선 남측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보) 단장은 "50년이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혈육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우시느냐"며 "그리운 고향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많은 이산가족들의 그리움과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단장은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남북단장 환영만찬사 요지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9일 밤 김정숙 휴게소에서 열린 제9차 남북이산가족 환영만찬에서 북측 최성익 단장과 남측 이병웅 단장이 각각 발표한 연회연설 및 만찬 답사 요지.

▲북측 최성익 단장 연회연설

나는 먼저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4돌이 되는 올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행되는 상봉행사에 참가하여 50여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그리운 혈육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예로부터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덜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리는 여러분들의 상봉을 자기일처럼 기뻐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격적인 상봉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도, 분단의 반세기도 하나된 우리 민족의 혈맥만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6.15 북남공동선언에 의하여 마련된 꿈같은 이 상봉이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하고 <<우리민족끼리>> 리념을 다지는 애국애족의 상봉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남측 이병웅 단장 만찬 답사

먼저, 이번 9차 이산가족상봉 방문단을 위하여 이처럼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주신 북측 단장님과 적십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0년이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시던 그리운 혈육을 만나시니 얼마나 반가우십니까?

이번의 만남은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그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과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아직까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신 주변의 이산가족들의 소식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고향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많은 이산가족들의 그리움과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나아가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산상봉〉 환영만찬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 중인 남측 방문단 100명은 29일 오후 7시 김정숙휴양소에서 재북가족들과 반세기만의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가족을 정을 나눴다.

0...1박2일간의 창관을 위해 방북단에 동행한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환영만찬 건배사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헤어진 기간을 날수와 시간으로 계산하며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오늘 상봉에는 56년간 헤어졌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날수로는 2만일이고 시간으로는 48만시간"이라며 "나이를 좀 먹어 눈물을 참아야 하지만 눈물을 참을 길이 없다"고 말해 주위가 숙연해졌고 이산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총재는 특히 "광도 멧돼지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왜 이리 오래도록 기다렸느냐"면서 "민족의 혼이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0...일부에서는 건배를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등을 외치기도 해 눈길.

사망한 국군포로 형 대신 형수와 조카를 만난 이종득씨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로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했다"며 "하지만 오늘같이 기쁜 날 술 한 잔 해야겠다"며 백로주 한 잔을 따라 형수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0...남북 어부 양용식씨의 남측 아버지인 양태형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못하고 하자 나이 어린 손녀 평애양은 연방 음식을 집어 할아버지 앞의 접시에 올려 놓으며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라고 재롱을 떨기도 했다.

북측 양순실씨는 남측의 동생 송선씨가 아직도 나이 어린 아이로 보이는 듯 을 수건을 건네며 "손부터 닦으라"고 말해 식지 않은 형제애를 과시했다.

0...가족들은 이날 사과, 단빵, 청포채, 닭쌈찜 등을 함께 들고 늦게까지 룡성 맥주와 인풍 포도술, 백로술 등을 마시며 혈육을 정을 나눴다.

북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평양에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여성 봉사원들이 함께 내려왔다"며 행사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했음을 자랑하기도 했다.

0...이번 환영만찬에는 남북 양측의 지원인원 자리를 이산가족들 사이에 배치해 상봉을 정을 나누려는 가족들과 행사진행을 맡은 지원요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머쓱해 하기도.

일부 지원인원들은 이산가족들에게 "언제 어떻게 헤어졌느냐", "만나시니 어떻느냐"는 등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모습.

(끝)

-금강산상봉-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가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남측 방문단 100명은 30일 오전 10시 해금강호텔 숙소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오붓한 가족만의 시간을 통해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유창근(75) 할아버지는 지난 71년 독일에서 노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귀환 1개월 여를 앞두고 사라진 동생 성근씨와 조카 경희(41)씨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

성근씨는 실종 후 작년 12월까지 북한에서 조국통일연구원에서 연구사로 일하다 퇴직, 현재는 명예연구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태형(77) 할아버지는 지난 87년 1월 15일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이었던 아들 용식(47)씨와 며느리 도애숙(38)씨, 손녀 평애(13), 은애(10)양을 전날 단체상봉에 이어 다시 만나 짧지만 가족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종득(66) 할아버지도 작년 1월 세상을 떠난 형 종옥씨 대신 형수 문영숙(66)씨와 조카 철호씨를 만나 건강하게 살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김옥준(96) 할머니는 이제는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셋째딸 조양순씨 대신 외손자 김진명(38)씨를 만나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전했다.

개별상봉을 통해 남측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가족들과 만나 달려와 의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속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남북 양측은 선별 공개하던 관례 대신 이산가족들의 심도있는 상봉을 위해 개별상봉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은 2시간 동안의 개별상봉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김정숙 휴양소에서 2시간 동안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삼일포 참관상봉을 하는 등 6시간 동안 함께 하며 떨어져 지내온 반세기 동안의 간극을 메운다.

이어 31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김정숙 휴양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또 한 번의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끝)

〈금강산상봉〉 北, 南탄핵. 총선에 지대한 관심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9일부터 열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남측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보름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은 30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남측정세가 어지럽다는데 어느 정도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냐"며 남측 취재진들에게 질문공세를 폈다.

이들은 "남한사회는 대통령 탄핵사태와는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질서가 지켜지고 있어 걱정할 것 없다"는 답변에 대해 "거짓말 하지 말라. 최고지도부가 탄핵을 받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며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소 5석은 차지할 것인지, 권영길 민노당 대표의 지지도가 낮아진다는데 진짜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등 남한정세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과시했다.

북측의 한 기자는 "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되느냐"며 관심을 보였고,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는데 그럼 노 대통령은 뭘 하고 지내느냐"며 노 대통령의 근황을 궁금해 하기도 했다.

지원요원으로 행사에 참가한 북측 관계자는 "탄핵으로 불안한데다 한미군사훈련까지 열려 회담을 열지 못한 것"이라며 남측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군사훈련이 전 날 끝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 북측도 남북관계 지속에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신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며 궁금함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박 대표는 전임 대표에 비해 어떤 평가를 받느냐"며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2002년 박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간 후 회담에서 한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다녔다"고 불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박 대표의 성격이 너무 도도한 것 아니냐는 인물평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북측 관계자는 "박 대표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는 남측 기자들의 말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의 정세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해는 부족해 보였다"며 "아무래도 남측의 현 정국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이와함께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2차 6자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남측 기자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국이 2차 6자회담에서 많은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측은 "미국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고 이대로라면 뭣하러 회담을 하겠느냐"며 회담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등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에 대해서도 한 관계자는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무장해제 시킨 후 체제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무시 행정부의 오만한 계획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2004. 3. 30 (화)

〈금강산상봉〉 공동중식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 중인 남북 양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30일 오후 1시30분 김정숙 휴양소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공동중식을 하며 단란한 한 때를 보냈다.

0...동진 27호 선원이었던 양용식씨의 부친인 양태형(78) 할아버지는 이날 북측이 마련한 78회 생일상을 받고 마냥 즐거워했다. 연방 함박 웃음을 지으며 손녀 평애, 은애양이 볼에 뽀뽀를 해주자 조금 쑥스러워 하면서도 손녀들의 재롱에 즐겁기만한 표정.

아들 용식씨는 "아버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17년만의 생신상을 다시 차려드리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며느리 동숙씨는 "비록 아버님 생신은 지났지만 평생 못 차려 드리다가 이렇게 술잔이라도 올리니 위안이 된다"며 "함께 살면서 계속 생신상을 차려드리고픈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생일상에는 칠색송어통생선찜, 순대, 통닭구이, 생일떡, 카스텔라 등이 올랐고 맥주와 포도주를 잔에 채워 건배를 하며 자축하기도.

0...임재균 할머니도 90회 생일상을 받고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임 할머니는 "많이 준비해줘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일이 생일인데 생일날 이별해야 하니 내가 여기 왜 왔나 싶다"며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손자 리은철(42)씨는 "외할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니 기쁨과 함께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자식 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해 기쁘다"고 말했다.

0...북측의 사촌 남동생 동길(58).동만(56)씨를 만난 이동희(61)씨는 "동생들을 몇 번 만나니 텔레파시가 팍팍 통하는 것 같다"면서 "동생들이 많이 생겨 든든하다"며 점심시간 내내 즐거워했다.

동희씨는 대동강 소주를 잔에 가득 채워 지나가던 북측 안내원에게 권하며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이완실(91.여)씨의 손자 희근(69)씨는 "개별상봉에서 많은 얘기를 나눠 훨씬 더 정답고 어제보다 어색함이 없다"며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0...이날 공동중식에는 거동하기가 불편한 김증종(85) 할머니를 비롯한 고령자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1대를 휴양소 앞마당에 대기시켜 눈길.

하지만 박인숙(70) 할머니는 이날 아침 남측 의료진에게 현기증을 호소, 오후 일정에 불참하고 숙소인 해금강호텔에 머물기도 했다.

북측은 이날 이산가족들을 위해 소हत갓과 양장피, 종합냉채, 닭고기 기장쌈짬, 소당면국과 잣죽, 등의 음식을 새롭게 준비해 선보였다.

북측 요리 관계자는 "가족 방문하는 분이 연로해 찬 음식을 먼저 내보내고 뒤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날부터 오늘 음식을 준비했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준비하려 신경썼다"고 말했다.

(끝)

〈금강산상봉〉 삼일포 참관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양측 이산가족들은 30일 오후 4시부터 두시간 금강산 삼일포 참관행사를 가졌다.

0..북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삼일포에 도착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가 10여분 후 도착한 남측가족들을 북측 안내원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만나 소나무가 우거진 삼일포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동진 27호 선원이었던 납북된 북측의 양용식(47)씨의 딸 은애(10)양이 멀리서 걸어오는 남측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안내원의 호명에 앞서 달려나가 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0..휠체어를 타고 삼일포 참관에 나선 남측 윤정숙 할머니(87) 가족은 삼일포 기억을 오래 남기려는 듯 여섯 명의 북측 조카가 윤 할머니 주위를 둘러싸고 수차례 기념촬영을 해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다.

윤 할머니는 "내가 학생때 삼일포를 둘러보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0..남측의 최고령 김옥준 할머니(96)는 북측 조카 김진명씨에게 업힌 채 삼일포 참관해 시선을 끌었다.

김 할머니는 "손자가 나를 업고 왔어.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라며 참관 내내 만면에 함박웃음을 짓고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0..북측의 삼일포 접대원 조솔미(19)씨는 남북 이산가족들 앞에 나서 '고향하늘'을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어 평양 봉사대 소속의 김순정(21)씨가 나서 '휘파람'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한복을 차려입은 북측 장정희(56)씨가 '반갑습니다'를 부르자 삼일포 주변 여기저기에 자리잡았던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끝)

-금강산상봉- 이쉬움 속에 또 기약없는 작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살아 생전에 언제 다시 만날꼬..." "통일되면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요."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상봉 1진 남측 방문단 100명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에서 1시간 동안 북측 가족들과 작별상봉을 갖고 2박3일간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남긴 채 기약없는 작별을 했다.

독일에서 노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귀환 1개월여를 앞두고 사라진 유성근(71)씨의 딸 경희(41)씨는 "돌아가시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고 특히 외가에 엄마가 편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 해주세요."라며 작은 아버지 종근(62)씨에게 말했다.

성근씨는 "어쨌든 건강에 제일 조심해야 해. 형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건강 조심해야 해. 시대가 달라졌으니 꼭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자 종근씨는 "형하고 같이 살 수 없겠느냐"며 흐느꼈다.

상봉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던 종근씨는 "손 한 번만 다시 잡아보자"며 형 성근씨에게 달려가 안고 다시 울먹이기도 했다.

지난 87년 1월 15일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이었던 아들 양용식(47)씨를 만난 양태형(77)씨는 "내가 살아서 한번만이라도 더 봐야 할 텐데"라며 꼬깃꼬깃하게 접힌 남은 달러를 평애양 손에 쥐여주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를 용돈을 건네기도 했다.

양태형 할아버지는 "평화통일을 빨리 해야 하고 남북이 서로 양보해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동안 면회소가 설치되고 단 며칠이라도 같이 잘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종득(66)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난 국군포로 형 종옥씨 대신 상봉에 참가한 형수 문영숙(66)씨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라고 말하자 이씨는 "남측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그날이 올 겁니다"라고 형수를 달랬다.

종득씨는 "형이 북측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내왔는데 의문이 다 해소돼 마음이 출가분해됐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주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 이번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김옥준(96) 할머니는 외손자 김진명(38)씨와 전날 상일포 참관상봉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동반가족으로 상봉에 함께 한 아들 조춘목(67)씨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착잡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하다"고 말하자 조카 김진명씨가 "다시 통일이 되면 언제든지 만나는 거죠"라며 외삼촌의 손을 부여잡았다.

정상호 할아버지는 남측 상봉단이 모두 버스에 오른 뒤 다시 내려 남측 안내원의 손에 이끌려 버스 앞에서 북측 상봉단에 손을 흔들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김희준 할머니는 버스에 오른 뒤 남측 기자들에게 북측 조카 최찬욱씨를 찾아 "여기를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북측 김경숙(46)씨는 거동이 불편한 남측의 고모 김상례(71)씨를 버스 앞까지 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경숙씨는 "북과 남이 함께 되는 날을 기원하며 고모를 여기까지 업고 나왔다"고 말하기도.

이정근 할아버지는 한 살 때 헤어진 아들을 다시 두고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차량 입구에서 모자를 벗어 흔들며 흐느꼈다.

정승호 할아버지는 딸 정윤숙(64)씨에게 전날 밤새워 쓴 2쪽짜리 편지를 건네며 "내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꺼내 읽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숙아 보고싶다"로 끝을 맺은 편지에는 "그동안 미안하고 죄송하고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며 "서신교환, 전화연락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안되니 답답하다"고 할아버지의 심정을 담아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남북 양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내내 전날 함께 찍은 사진을 전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 방문단 100명은 10시 김정숙휴양소를 떠나 해금강호텔로 돌아와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낮 1시 금강산을 떠나 속초 한화콘도로 귀환한다.

(끝)

-금강산상봉- 상봉2진 내일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단장 우봉제 한적 경기지사 회장) 600명이 1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거쳐 금강산으로 떠난다.

남측 이산가족 491명은 출발 하루 전인 31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한화콘도에 모여 방북교육을 받았다.

상봉단 중 최고령으로 꿈에도 그리던 둘째 아들 최종훈(71)씨를 만나게 되는 조씨(99)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아들을 못 알아 볼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도 "하지만 가다가 죽더라도 반드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국제농구심판으로 활동했던 권석기(74)씨와 전쟁 중 피란 길에서 헤어진 동생 진기(72)씨는 "지난 8차 상봉 때 예비명단에 들었다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감격스럽다"면서 "한평생 형만 찾다가 1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폭격 속에서 누나 리량복(71)씨와 헤어진 뒤 연좌제에 묶여 해외여행도 못했다는 천복(66)씨는 "누나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연좌제 때문에 사망신고까지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중학교 때 누나가 가르쳐준 '바윗고개'라는 노래만 들으면 누나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울먹였다.

일본 유학 중 복송된 것으로 알려진 최경숙(73)씨의 여동생 최숙조(67)씨는 "언니가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편지 보내온 후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꿈만 같다"고 말했다.

남측 상봉단은 1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오전 11시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오후 1시께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온정각휴게소에서 단체상봉을 가진 데 이어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을 포함한 이산상봉단 1진(단장 이병웅 한적 총재 특보)은 꿈만 같은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후 동해선 육로를 거쳐 속초로 귀환했다.

(끝)

J통일 “6.15때 이산가족 상봉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는 6.15(남북정상회담)를 계기로 또 한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한국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 포럼'에 참석, "현재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은 전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6.15를 계기로 또 한번, 8.15와 추석 등을 계기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직 북측에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6.15 등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은 버려야 한다"며 "북한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significant change)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전술적 변화와 전략적 변화로 양단하기에는 아쉽지만 전술적 변화와 전략적 변화 중간단계에 있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서는 현재 실리, 실적, 실력 등 이른바 '3실주의'를 강조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서도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흑묘백묘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등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개인들에게 400평까지 허용한 텃밭, 종합시장 건설, 원가절감, 독립채산제 강화, 1년에 300~400여명의 경제·법제대표단과 연수단 해외 파견 등을 북한의 변화로 열거했다.

그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장성급 회담 개최와 관련, "북측이 (회담개최 일정) 타이밍을 못 잡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며 "4월이 넘어가고 꽃게잡이 성어기가 되면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성사되면 남북 관계는 좀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 때는 (대북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설정, 일관성있게 추진해 오늘과 같은 남북관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정부 때는 정책의 목적 및 방향이 좋았는데 대한 자신(감)이 너무 커 혼자서 성큼성큼 10걸음씩 나아가 국민적 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는데 이제는 열 사람이 오순도순 대여섯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lkw777@yna.co.kr

(끝)

-금강산상봉-이산상봉 2진 방북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상봉단(단장 우봉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이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기 위해 1일 오전 속초 설악한화콘도를 떠나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떠났다.

남측 상봉단은 이산가족 491명과 지원요원 등 566명으로 이뤄져 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눈물로 이산의 한을 달랬던 남측 가족들은 북측 가족을 만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금강산행 버스에 올랐다.

상봉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온정각 휴게소에서 첫 단체상봉을 갖고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북측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할 예정이다.

6.25전쟁 때 의용군에 징집됐던 북측 아들 최종훈(71)씨를 만나는 최고령자 조씨(98) 할머니는 반세기를 넘어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방잠을 못 이룬 듯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의과대학을 다니다 전쟁 발발 다음날 야전병원에 소집돼 헤어졌던 언니 리희원(74)씨를 만나러 이역만리 스위스와 미국에서 각각 날아온 덕원(65)씨와 사촌여동생 상원(58)씨는 "54년 전 헤어지던 순간 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면서도 "혹시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노심초사했다.

6.25 때 의용군에 들어간 여동생 김명순(70)씨를 만나러 가는 김장덕(74)씨는 유일하게 남은 명순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명순이가 전쟁이 터지자 어려운 형편에 내 입 하나라도 줄이겠다며 의용군에 지원했다"며 "단발머리에 까만 치마,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연사무소 급사로 일하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북측에 있는 오빠 김석기씨(73)를 만나기 위해 지난 26일 고국에 온 재미교포 여동생 광숙씨(72)는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상봉 때 만날 예정이었으나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못 만났고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북측의 형 병휴씨(70)를 만나는 남측의 전병훈씨(67)는 "형을 막상 만나고 나면 형제가 반세기동안 상봉하는 날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만남이 이뤄지고 나면 오히려 허탈해질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상봉후의 헤어짐을 걱정했다.

학도병으로 전사한 줄 알았던 동생 리도희씨(72)를 만나게 된 이장문씨(74)는 "동생의 이름을 이제는 진주시 위령탑에서 지워야겠다"며 반세기만의 만남을 감격해 했다. 리씨의 이름은 현재 6.25 당시 사망한 국군을 위해 만들어놓은 진주시 위령탑에 새겨져 있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고성의 남북 동해출입사무소에 도착해 1시간여 동안 간단한 출경수속을 받았다. 이어 현대아산측이 마련한 금강산 관광버스 24대에 나눠타고 반도의 허리를 자른, 봄이 오는 비무장지대를 넘었다.

(끝)



〈금강산상봉〉 美서 세번째 귀국에 北 오빠 만나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반세기 동안 기다렸고 또 4년을 기다린 만남'

지난 27일 북측의 오빠 김석기씨(73)를 만나기 위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세번째 귀국한 광숙씨(72)의 소원이 1일 마침내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뤄졌다.

오빠 석기씨는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남측 가족들에 대한 상봉을 신청했다. 6.25때 서울 경복고 3학년 학생이었던 석기씨는 의용군에 입대했다는 소문뿐 행방불명됐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측 가족들은 북측의 혈육과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상봉을 3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북측 석기씨가 갑자기 쓰러져 상봉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역만리 해외에서 오빠를 만나려고 조국땅을 밟은 광숙씨는 눈물을 훔치며 되돌아가야만 했다.

광숙씨는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선물까지 샀는데 오빠를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순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난해 9월 8차 이산가족 상봉때도 기회가 있었다. 한적측으로부터 "상봉자 예비후보로 지정됐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였다.

이번에는 만나는구나 하고 광숙씨는 다시 미국에서 귀국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만남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적측은 며칠 후 광숙씨 가족이 이산가족 상봉 우선순위에서 밀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다. 때문에 가족들은 이번 9차에도 이산가족상봉자로 통보를 받았지만 어제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광숙씨는 "동생 부영씨(70)가 상봉신청을 하는 등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며칠 전 척추 부상으로 입원해 이번에 같이 못 온 것이 제일 안타깝다"며 "그동안 동생이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병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광숙씨는 이날 오후 온정각에 찾아온 오빠를 먼발치서 알아보고 손을 부여잡았다. 세 번의 상봉시도 끝에 꿈을 이룬 것이다.

오빠를 만난 광숙씨가 1차 상봉 때 왜 못나왔느냐고 울먹이자 "상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 그 후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답했다.

광숙씨 가족은 이번에 오빠 석기씨를 위해 속내의, 양말, 파카, 영양제 등의 선물을 준비했으며 특별히 오빠 내외를 위해서 금반지를 마련했다.

(끝)

〈금강산상봉〉 단체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9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뤄진 1일 금강산 온정각에는 반세기 넘게 헤어졌던 혈육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기쁨과 회한이 서로 뒤섞였다.

횃수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관심은 낮아졌지만 한 가족, 한 가족이 소설 한 권 분량 이상의 사연을 안고 마주 앉았다.

꿈에나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들은 때로는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환한 웃음을 지우며 분단이 앓아간 혈육의 정을 나눴다.

0..남측 최고령자인 조 씨(99) 할머니는 북측 아들 최종훈(71)씨가 번호를 확인하고 다가오자 눈물을 글썽이며 휠체어에 의지한 채 몸을 떨었다.

최씨는 "어머니 제가 왔어요"라고 외치며 다가와 노모의 어깨를 부여잡고 흐느꼈다. 최씨는 남측 동생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들먹이며 "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말하고 듣기가 불편한 조 할머니는 어느 새 머리가 하얗게 센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광마른 입술을 움직이고만 있었다.

0..북에서 국제농구심판을 지낸 권석기(74)씨는 훈장 16개를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는 대형 봉기씨의 생사를 묻는 남측 가족들의 질문에 "형님은 의학교수에 미생물학 박사"라고 자랑하며 "원래 형님이 와야 하는데 겨울에 천식이 심해 못나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남측 동생 경숙(66)씨는 "30년전 오빠가 국제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 뒤 "봉기 오빠가 건강해야 할 텐데.."라며 울먹였다.

이에 석기씨가 "울기는 왜 우느냐. 54년만에 피붙이를 만난 이 기쁜 날을 눈물로 보내면 어떡하느냐"며 여동생을 달랬다.

0..평소 입버릇처럼 여군이 되겠다고 하다 6.25전쟁때 의용군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자원했던 김명순(70)씨는 남측 동생과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다.

여동생 덕순(66)씨는 "여자형제가 많아 언니가 입 하나 치우려고 군대에 자원했던 것 같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명순씨는 막내 여동생 말순(62)씨가 6~7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는 형편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목이 메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0..의용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됐던 북측 형 오정세(74)씨를 만난 동생 만세(58)씨는 지난 13일 세상을 떠난 누나 이야기를 전하며 흐느꼈다.

만세씨는 "누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이번 행사에 올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형님 이야기를 하셨다"고 울먹이면서 형의 손을 부여잡았다.

0..북측 형 홍성표(74)씨를 만난 남측 동생 현표(73)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빛바랜 흑백사진을 형에게 보여주었고, 성표씨는 사진을 보며 연방 눈물을 흘렸다.

현표씨는 "아버지께서 평소 형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임종하실 때 형님 이름을 세 번 부르셨다"며 울먹였다.

성표씨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듯 "아들은 행복합니다"라고 외치며 부모님의 사진을 놓지 않았다.

(끝)

 **연합뉴스** 2004. 4. 1 (목)

-금강산상봉- 상봉단 2진 온정각서 단체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어머니 제가 왔어요"

54년만에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난 아들 최종훈씨(71)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 조 씨(99)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전날 "가다가 죽더라도 아들을 보러 꼭 금강산에 가겠다"던 어머니는 막상 17살 때 헤어진 아들을 만나서는 이미 기력이 쇠진했는지 눈물로 반가움을 대신했다.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이 1일 오후 금강산에서 반세기전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

최고령자인 조씨 할머니를 비롯한 남측 100가족 486명은 육로를 통해 방북, 조 할머니의 아들 최씨 등 북측 가족 101명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단체상봉을 가졌다.

50여년만에 만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오누이와 조카들은 한꺼번에 울음과 탄식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6.25전쟁 당시 17살이었던 아들 최씨는 "어머니 제가 왔어요"라며 54년만에 만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6형제의 둘째아들인 최씨는 형과 동생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생사를 확인했지만 형 정호씨와 부친 최규선옹이 1998년 함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거동이 불편한 조 할머니는 이날 아침 만일에 대비해 딸 최종란씨(55)와 함께 강원도 속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차를 탔다.

고령의 이산가족이 상봉행사 뒤 구급차로 남측까지 이송된 것은 있지만 남측에서 북측으로 구급차를 타고 간 것은 조 할머니가 처음이다.

북측 최고령자 박권석(91)씨도 남측의 아들 원대(61), 원옥(60)씨와 딸 연옥(56)씨를 만났다.

아들 원대씨는 3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정순악씨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박씨는 "네 어머니는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거듭했지만 원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북측의 형 이대규(77)씨를 만난 남측의 동생 대용씨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 남았다. 형님때문에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형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남측 상봉단 우봉제 단장(한적 경기지사 회장)은 "생존확인 과정에서 적십자에 등록된 12만여명의 이산가족 중 이미 2만여명이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 아팠다"며 "상봉단 선발과정에서 고령자를 더 배려해 상봉단 2진 중 80세 이상인 분이 39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남북의 가족들은 이날 두시간의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함께 한 뒤 각각 해금강호텔과 김정숙휴양소로 헤어져 첫날 밤을 보낸다.

2일에는 해금강 호텔에서 가족별로 개별상봉을 갖고 김정숙 휴양소에서 공동중신을 한 뒤 참관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상봉2진 단체상봉.공동만찬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네가 물건이있더라면 주머니 속에 넣고 가련 만.."

남측의 오빠 최재기(78)씨는 반세기만에 만난 북측의 누이동생 최경숙씨(73)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긴 이별 끝에 이뤄진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다.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이 1일 오후 금강산에서 반세기전 헤어진 가족을 재회했다. 남측 가족 486명은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단체상봉을 한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공동만찬을 가졌다.

남측 우봉제(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은 만찬사에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줘야 할 책무를 지닌 적십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측 최성익 단장(조선적십자사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은 "서로 애타게 찾고 부르던 친혈육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 여러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54년만에 남측의 어머니 조씨(99)를 만난 북의 아들 최종훈씨(71)는 단체상봉에서 "어머니 제가 왔어요"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전날 "죽더라도 아들을 보러가겠다"고 했던 조씨 할머니는 막상 아들을 만나서는 기력이 쇠진했는지 눈물만 흘릴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6.25 전쟁 당시 17살이었던 최씨는 형과 동생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생사를 확인했지만 형 정호씨와 부친 최규선옹이 1998년 함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북측 최고령자 박권석(91)씨도 남측의 아들 원대(61), 원옥(60)씨와 딸 연옥(56)씨를 만났다.

아들 원대씨는 3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정순악씨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박씨는 "네 어머니는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거듭했지만 원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북측의 형 이대규(77)씨를 만난 남측의 동생 대용씨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 남았다. 형님때문에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형을 얼싸안고 울먹였다.

남측 우 단장은 "생존확인 과정에서 적십자에 등록된 12만여명의 이산가족 중 이미 2만여명이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 아팠다"며 "상봉단 선발과정에서 고령자를 더 배려해 상봉단 2진 중 80세 이상인 분이 39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남북의 가족들은 이날 공동만찬을 끝낸 뒤 각각 해금강호텔과 김정숙휴양소로 헤어져 가슴시린 첫날밤을 보냈다.

2일에는 해금강 호텔에서 가족별로 개별상봉을 갖고 김정숙 휴양소에서 공동중식을 한 뒤 참관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끝)



-금강산상봉- 상봉2진 개별상봉.공동중식 가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일 남
북가족들은 북측 김정숙휴양소에서 공동중식을 함께 했다.

이날 오후 금강산 주변은 전날 내린 비로 황사가 말끔히 가신 밝은 하늘이었지
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 연로한 이산가족들의 거동을 힘들게 했다.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인 공동중식이 진행된 김정숙휴양소에는 평양 봉사대와
금강산 봉사소 소속 여성 접대원 30여명이 색색 한복을 입고 나와 남측 가족들을 맞
았다.

앞서 남측 가족 486명은 이날 오전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가족별로 개별상봉을
갖고 전날 미처 말하지 못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눴다.

남측 가족들은 오리털 파카를 비롯한 옷가지와 금반지 등 준비해온 선물과 가족
사진 등을 펼쳐 보이며 정담을 이어갔다. 북측 가족 101명은 평양 낙원백화점 포장
이 된 도자기와 들쭉술 등을 들고 와 남측 가족들에게 전했다.

북측의 리영래씨(72)는 "아버님 제사 드릴 때 쓰라"면서 인삼술을 별도로 가져
와 남측 동생들의 손에 쥐여주었다.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들의 사적인 만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번 9차 상봉
행사부터는 다섯 가족씩 공개해오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상봉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
하기로 했다.

북측 아들 최종훈씨(71)는 기나긴 이별의 세월을 한탄하며 남측 상봉단 최고령
자인 어머니 조 씨(99) 할머니와 개별상봉 시간을 가졌다.

속초에서 줄곧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급차량을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었
던 조 할머니는 개별상봉에서 아들의 손을 꼭 짚 채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했다.

북측 최고령자인 아버지 박권석(91)씨를 만난 남측 아들 원대(61) 원옥(60)씨와
딸 연옥(56)씨는 반세기 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하겠다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풀어 놓았다.

일본에 있는 줄 알았던 북측 동생 최경숙(73)씨를 금강산에서 만난 남측 오빠
최재기(77)씨는 개별상봉 시간에 다시 한번 형제애를 확인했다.

한편 2시간 동안 개별상봉을 가진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후 1시부터 북측 김정숙
휴양소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방 별도로 저녁식사를 한 뒤 각각 김정숙휴양소와 해금
강호텔로 헤어져 온정각 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2박3일간 해후의 기쁨을 나눈
혈육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묻은 채 또다시 긴 이별에 들어간다.

(끝)



-금강산상봉- 또다시 기약없는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아이고,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날인 3일 남북 이산가족들은 작별상봉을 갖고 2박3일만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쳤다.

남측 가족 486명은 이날 오전 11시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서 버스에 오른 북측 혈육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 팔을 내밀며 애통해 했다.

북측 오빠 림절기씨(71)를 떠나보낸 임순연씨(66)는 북측 가족들이 탄 버스가 떠나기 시작하자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서 오열을 멈추지 못하다가 끝내 실신, 대한적십자사 의료진의 응급처리를 받았다.

북측 리훈숙씨(73.여)는 온정각 휴게소에서 시작된 작별상봉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기다리던 정숙씨(67) 등 남측 동생 5명을 안타깝게 했다.

북측 관계자는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돼 수액제를 맞고 계신다"며 "조금 늦더라도 모시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리 할머니는 결국 30분쯤 늦게 구급차에 실린 채 온정각 휴게소 앞마당에 도착해 남측 형제, 자매들과 구급차 안에서 작별상봉을 가졌다.

남측 최고령자인 조씨 할머니(99)는 "통일이 되면 만나자"는 북측 아들 최창훈씨(71)의 말에 "한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죽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최씨 여동생 종숙씨(62)는 "어머니가 금강산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귀가 어두우셨는데 아들 말을 잘 알아들으신 걸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북측의 형님 홍성표씨(74)를 만나러 온 동생 상표씨(72)는 끼고 있던 장갑과 들고 있던 카메라를 건네며 "장갑은 형님 손에 끼시고 형님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셔서 통일된 뒤 함께 사진을 보시죠"라고 말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해 강원도 속초로 귀환, 북측 혈육 101명과의 꿈같은 상봉을 뒤로 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다.

이들은 속초 한화콘도에서 지역별로 귀향버스에 올라 지난 18일 북측 가족과 상봉사실을 통보받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한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전날 삼일포 참관상봉이 무산되는 등 이번 행사가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이산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재차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속초 동해 남북출입사무소에 조건식 통일부 차관과 이병웅 한적 총재 특보, 홍홍주 남북회담사무국장 등을 급파해 귀환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하도록 했다.

〈금강산상봉〉 작별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날인 3일 오전 작별상봉이 열린 온정각 휴게소는 반세기만의 긴 이별 뒤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아쉬움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북 양측의 가족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작별상봉에서 잡은 손을 차마 놓지 못했다.

0...남측 이산가족들은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을 눈물로 떠나보냈다. 행사진행을 맡은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안전을 위해 가족들이 버스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별을 앞두고 북측 가족들이 타고 있는 버스 창가에 모여 차창 너머로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남측 동생 김은수씨(70)는 북측 형 김의수씨(71)에게 "울지 마세요. 웃으면서 헤어져요"라고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0...북측 오빠 림철기씨(71)를 떠나보낸 임순연씨(66)는 이별의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다 끝내 실신해 의료진들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순연씨는 오빠가 탄 버스가 떠나자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쓰러졌고 의료진은 혈압을 재고 몸을 주무르며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순연씨는 5분여가 지난 뒤 의식을 되찾아 가족들과 함께 숙소인 해금강호텔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0...일부 북측 가족들은 버스가 출발하자 "조국통일", "우리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차창 밖 남측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북측 오빠 리용완씨(71)를 떠나보낸 이정자씨(63)는 "금방 통일될 테니 기다리세요"라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북측 가족을 태운 버스가 온정각 휴게소를 떠나는 동안 100여m 떨어진 김정숙 휴양소 직원들은 꼭대기층에서 손을 흔들며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0...북측의 고모 송금숙씨(71)를 만나러 온 조카 철환씨(49)는 고모가 작별상봉 행사장인 온정각 휴게소 안으로 들어오자 문앞까지 뛰어가 자리를 안내했다.

그러나 철환씨는 이내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다. 금숙씨는 "통일된 그날 다시 보자"며 "건강하게 지내라"고 달랬다.

북측 이회원씨(74)는 "고생한 동생들을 살아서 만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며 미국과 스위스에서 언니를 보기 위해 날아온 동생들을 부둥켜안았다.

동생 덕원씨(65)는 "미국에 돌아가서 조카들에게도 언니가 건강히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꼭 전하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북측의 국제농구심판 출신 권석기씨(74)를 만난 남측 동생 진기씨(71)는 전날 공동중식 때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해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0...북측 백인회 할머니(79)의 막내 여동생 명희씨(59)는 전날 무산된 삼일포 나들이를 위해 준비했던 간식을 풀어놓으며 언니의 손에 과자를 자꾸 쥐여주었다.

명희씨는 "어제 삼일포 나들이를 못해 또다시 못보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가족들이 저녁도 거르고 방새 소화도 되지 않더라"며 "50년 전 먹던 꽃게가 생각난다던 언니를 위해 급하게 삶아 놓았던 게도 다 상해 버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0...이윤구 남측 적십자사 총재의 초등학교 친구였던 엄재섭 할아버지(73)의 막내 여동생 재영씨(55)는 "부모나 마찬가지로 우리 큰 오빠"라며 "몸만 건강해 오래 오래 살라"고 두 손을 부여잡자 이제 반백이 되어버린 큰 오빠는 "능률한 동생들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생들을 달랬다.

엄 할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겠다"며 "윤구도 건강해서 통일의 그날 반드시 만나자"고 이 총재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끝)

사설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 늦추지 말라

제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뜻하지 않은 일로 파행을 겪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금강산 치마바위에 새겨진 '천출 명장 김정일'이란 문구에 대한 통일부 소속 한 사무관의 부적절한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국 북측에 사과한 남측의 모습이나 이만한 일로 상봉행사에 차질을 빚게 한 북측의 경직성 모두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제는 남북의 현격한 의식과 의사표현의 차이로 볼 때 이 같은 마찰과 불상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남북교류의 걸림돌과 마찰 소지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일부가 이같은 행사진행상의 차질을 자초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무자세와 인식이 그토록 해이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진형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파행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문제다. 영문을 모른 채 상봉만을 학수고대할, 노인을 포함한

이산가족 486명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2시간 반 가까이 버스에서 기다리게 한 사실만 보아도 당국이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측의 경직된 태도 역시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남측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농담 한마디의 말꼬리를 잡아 혈육 상봉시간을 빼앗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은 차제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기본틀에 합의한 바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화를 조속히 가시화시켜야 한다.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산 1세대들이 노령화하고, 오늘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남측내 이산 1세대만 약 123만명,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약 70만명으로 상봉대기자만 12만여명인데 100여명씩야 상봉해서야 어느 세월에 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면회소 상설화가 말로 남북 당국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